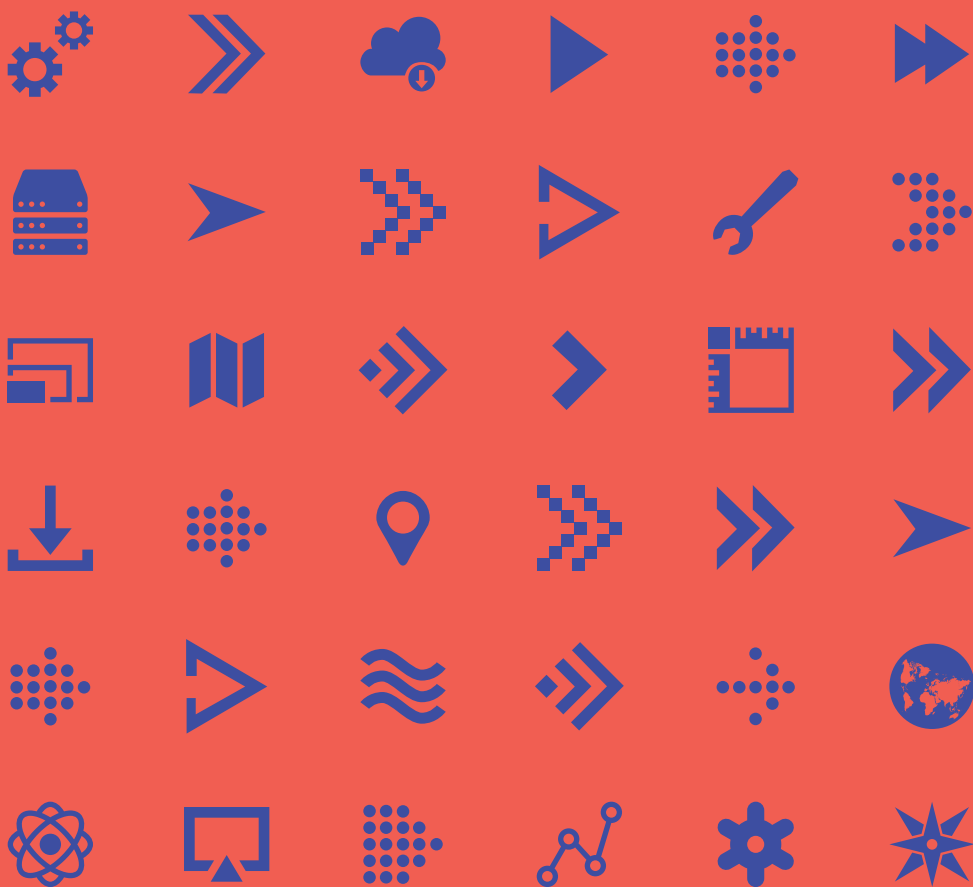


나는, 공학인이다

한국에서 여성 엔지니어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을
바꾸는
여성
엔지니어
9

(사)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펴냄



- 김민경** IBM 왓슨 연구소 연구원
- 김신현** 스토리힙, (주)허밍비 대표
- 김은주**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부3.0지원센터
정보협업공유부 부장
- 김형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제협력실장
- 김효정** 한국IBM 상무
- 박경희** 한국오라클 고객지원 서비스 부사장
- 신경선** 에스앤디아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 윤혜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서울센터 부장
- 이미정**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 이수복** (주)성우이엠이 전기사업부 상무
- 이옥화** (주)에이치오엠 건축사사무소 대표
- 임미숙**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
- 정선영** 효성기술원 전략기획팀 차장
- 정인경**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장
- 정재희**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 조혜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최수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 PD
- 허수정** 게임회사 Ohhh! 창립자
- 현우석** 한국성서대학교 정보과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나는,
공학인이다

나는, 공학인이다

한국에서 여성 엔지니어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을
바꾸는
여성
엔지니어
9

(사)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펴냄



세상을 바꾸는 여성 공학인의 비결

이삼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이 공학을 전공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 드문 일이었고, 심지어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조차도 팔목상대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이제는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취업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우리 여성 공학인이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공학 분야에서 어떻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여성 엔지니어’ 제9권 『나는, 공학인이다』는 공학을 전공한 선배 여성의 입장에서 다양한 경험과 조언을 후배 여성 공학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령 처음부터 공학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시작하지는 못했거나 첫눈에 반하듯이 전공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노력과 탐구 정신으로 점점 자신만의 분야를 만들어 이제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전문가가 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배들의 생생한 이

야기는 진로 선택을 앞두고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수많은 여학생이나 이제 사회에 갓 진출한 여성 공학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좋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강조해주신 분들도 눈에 띕니다. 주변 시선이나 상황에 얽매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나서 깊은 후회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고 비난하는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통념이나 편견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자신이 나아갈 길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크나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 이것이 사회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공학인으로서 살아남아

인정받기가 얼마나 녹록지 않은지, 또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조화롭게 잘 꾸려나가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 실체와 극복 비결을 제시해주신 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이러한 역경을 이겨낸 선배 여성 공학인들의 경험과 노하우는 후배 여성 공학인들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이 책에 손길을 더한 훌륭한 집필진을 추천하고 발굴해주신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가족들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분들, 그리고 멋지게 책을 편집해주신 효형출판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원해준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10월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회장 송정희



서문

송정희 세상을 바꾸는 여성 공학인의 비결 5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다

김민경 이제는 변해야 한다 14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 여성의 뇌는 공학에 적합하지 않다? | 공대 나온 여자는 결혼하기 힘들다? |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다 | 컴퓨터공학 전공자의 특권 | 남자 밖에 없어도 얼마든지 재미있다

김효정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26

일신우일신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적응 | 전문가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과 발전 | 글로벌 그리고 외부 커뮤니티 | 세상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다 | 평생 젊은 공학인으로서 배우고 돌려주다

이미정 열정,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열쇠 38

어느 때보다도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 | 풍요 속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일 | 삶과 밀접한 기술,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 | 융합을 통한 혁신을 꾀하려면 | ICT 분야의 빛나는 여성들

현우석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다 48

문과냐 이과냐 이것이 문제로다 | 나의 길은 컴퓨터, 너로 정했다! | 끝없는 과제 또 과제 | 미뤄진 꿈에 다시 도전하다 |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 2년간의 미국 생활 | 의지의 한국인 | 교수의 꿈, 드디어 이루다 | 네 가지 소중한 보물



세상을 바꾸는 여성으로 거듭나다

김은주 여성이란 무엇인가 **60**

'여성'인 자기에 대한 이해 | 사회를 처음 접하는 여성 | 사회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여성 | 사회를 리드하는 여성 | 일과 가정을 공존시키는 여성 | 스마트 사회와 여성의 성장

김신현 천천히 두벅두벅 **70**

질문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다 | 생각이 깊어지면 걸음이 느려진다 | 꿈 지도를 그려가다 | 일상의 흥얼거림이 되는 디자인 | 나의 인생 시즌2가 열린다 | 배려와 소통이라는 유전자 | 함께 가는 따뜻한 길 위의 안내 사인

박경희 두근두근 내 인생 **82**

아줌마의 재취업 도전기 |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 일, 일! |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하다

임미숙 나는 몇 번째 원숭이일까? **90**

100번째 원숭이 효과 | 여자는 채용하지 않는다던 회사 | 일하는 엄마는 미안한 엄마? | 우아하게 그만두기 | 명함이 필요 없는 삶

허수정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으로 **102**

경로 확인은 마흔 살부터? | 혼란스러운 젊음, 그저 살아남았을 뿐 | 실패를 딛고 꿈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 | 지난했던 과정이 열어준 감사한 기회들 |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의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 잠드는 시간이 아까울 만큼 재밌는 세상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신경선 아직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114**

1분기. 품 나게 시작하다 | 2분기.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 3분기. 정글 속에 던져지다 | 4분기. 빛을 따라서

이옥화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130**

인생의 첫 번째 선택 | 좋아하는 일에 미친다는 것 | 일과 가정의 방정식 | 전문가로 살아간다는 것 | 또 하나의 도전 | 힘들어도 경험하라 |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정재희 가슴 뛰는 삶을 살자 **144**

힘들게 찾은 나의 전공 |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 | 좌절 극복력, 문제 해결력을 키우자 | 추진력 있는 삶이 중요하다 | 희망이 삶을 짓는다 | 삶이란 무엇인가

조혜진 새로운 도전을 사랑하라 **156**

내 생애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다 | 드디어 교통공학도가 되다 | 한국에서 여자라는 장애를 극복하다 | 홀로서기 그리고 네트워크 만들기 |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다 |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 | 여자가 아닌 전문가로 거듭나기

과학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꾸다

김형하 **괜찮아, 잘될 거야!** **168**

전공에 대하여 | 쉽지 않은 않았던 어린 시절 | 다른 세상으로 뛰어들다 | 뜻밖의 축복 | 우리 집안 여자들 | 지원군을 얻으라 | 사회에 되돌려줄 수 있는 한 가지 |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 괜찮아, 잘될 거야!

윤혜은 **융합 과학에 꼭 빠지다** **186**

나는 아직도 변하고 있다 | 스스로 하면 즐거움도 만족도 두 배 | 게임을 위한 좋은 무기를 갖추다 | 지질학, 환경지구화학 분야에 다가서다 | 퀴리 부인 그리고 보통 학생이었던 나 | 후배들을 위한 조언

최수진 **진정한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사는 것** **198**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 3無로 시작된 인생, 세상에 알려지다 | 아픔을 통해 배운 것 | 여성 리더가 아니라 색깔 있는 리더가 되자 | 예쁜 공주가 아닌 우아한 무수리가 되자

전기공학
재료공학
환경공학

터널을 지나 빛을 향해 나아가다

이수복 **초보자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로** **214**

평범했던 초보 엔지니어 | 한 단계 더 나아가다 | 최고 엔지니어에 도전하다 | 그리고 또 다른 시작

정선영 **내 인생의 가장 훌륭한 조언자** **224**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 내 인생의 전환점 | 시련은 터널과 같다 | 열정과 신뢰 | 감사하는 마음으로 | 살아 움직이는 나무처럼 | 내 인생의 가장 훌륭한 조언자

정인경 **선택보다 선택 이후가 더 중요하다** **234**

환경공학이 나를 선택하다 | 사람이 자산이다 | 지금부터는 여성 공학인의 시대이다 | 선택보다 선택 이후가 더 중요하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다

컴퓨터

김민경
/
이제는
변해야 한다

1

김효정
/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현우석
/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다

이미정
/
열정,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열쇠

Kim Minkyong

김민경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시간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2년간 다트머스 대학교(Dartmouth College)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6년부터 IBM T.J. 왓슨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서른 편에 이르는 논문을 발표했고 열 건이 넘는 특허를 출원했으며, 여러 학회의 좌장과 운영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나의 이야기,

“저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하고 싶어요.”

우리의 이야기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그때 들은 대답은 나의 마음 한구석에 문신처럼 새겨졌다.

여자는 두뇌 구조가 남자와 달라서 공대에 진학해도 잘 해내기 힘들니까 공학이 아닌 다른 전공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하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고 계실거라 믿었던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엄마는 그날부터 ‘의과대학으로 딸 마음 돌리기 작전’에 돌입하셨다. 엄마 친구 분들 중 의사로 성공하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계속 생겼다. 그분들은 모두 의사가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를 내 머릿속에 밀어 넣으려고 최선을 다하셨다. 나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자라면서 아무 말썽도 부리지 않았던 착한 딸이었다. 하지만 그 착한 딸의 내면에는 고집불통인 또 하나의 자아가 있었다. 겉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부모님도 그런 나를 알고 계셨을 것이다. 결국 엄마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문제 없이 내가 원하던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였다.

이렇게 내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한 지도 20년이 넘었

다. 졸업 후 미국에서 살고 있는 나는 가끔씩 한국에 갈 때마다 한국의 빠른 변화 속도에 놀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변화길 바랐던 것들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에 우연히 들렀던 서울대 공대 여학생 인터넷 게시판에서 고3 여학생이 고민을 털어놓고 재학생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글을 보았다. 그 여학생은 반도체나 나노 연구를 하고 싶어서 공대에 진학하고자 하는데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면서 의대에 가라고 하신다고 했다. 어디서 참 많이 듣던 이야기이다. 내 이야기이기도 하고.

모든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신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대개 친구나 옆집 아주머니를 통해서 수집한, 출처가 애매한 정보일 때가 많다. 이런 풍문을 기반으로 삼아 나름의 결론에 도달하시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모님들만 탓할 수도 없다. 어떤 정보가 유용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여학생과 부모님 들께 나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여성의 뇌는 공학에 적합하지 않다? 내가 타파하고 싶은, 아직도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잘못된 상식은 여성의 두뇌는 공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여성의 뇌가 남성의 뇌와 다르다는 것이 여성의 뇌는 공학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까? 이 문제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서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의 지능 발달을 비교하여 살펴본 연구이다. 6세에서 18세의 아이들 385명을 대상으로 아이큐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연구 결과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에서는 개인차가 있을 뿐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전혀 없었다. 남자 아이들이 유일하게 앞선 테스트는 공간 지각 능력과 손 움직임 능력을 동시에 측정한 테스트였다. 직접 블록을 움직여서 주어진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는 과제였다.¹

다른 하나는 8세에서 22세 사이의 남성과 여성 949명을 대상으로 뇌반구의 연결을 연구한 것이다.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반구 내의 연결이 많고, 여성의 경우 두 개의 뇌반구 사이의 연결이 많다고 한다. 남성의 뇌처럼 반구 내의 연결이 많으면 공간 지각과 운동 협응 능력이 좋고, 여성의 뇌처럼 반구 사이의 연결이 많으면 기억력과 사회 인지(social cognition)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²

위의 결과들은 남녀의 두뇌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남성의 뇌의 강점은 공간 지각과 운동 협응 능력이라는 것이다. 공대의 모든 전공을 내가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컴퓨터 전공에 있어서 이 능력의 차이는 전공을 수행하는 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다른 공학 전공자들에게 물어도 이런 능력이 공대생의 성공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여성의 뇌 구조가 공학에 적합하지 않다는 대중의 잘못된 상식

이 여학생의 진로 선택을 가로막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 그렇다면 진로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자신이 여성임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개개인은 너무나 다르다.

한 예로, 대부분의 남자는 네 번째 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보다 길고 여성은 그 반대라고 한다. 그리고 검지에 비해 약지가 길수록 수학적 재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이 비율은 태아가 엄마의 배 속에 있을 때 받은 호르몬의 영향이다.³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와 달리, 나는 남자들처럼 네 번째 손가락이 두 번째 손가락보다 확연히 길다. 그리고 나의 딸아이도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아들은 그 반대이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네 번째 손가락이 긴 여학생만 공대에 가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나는 오로지 여자라는 이유로 공대에 가는 것을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개개인의 차이를 자세히, 신중하게 들여다본다면 해답은 바로 그곳에 있을 것이다.

**공대 나온 여자는
결혼하기 힘들다?**

여자가 공대에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주변에서 흔히 하던 또 다른 얘기가 있다. 바로 여자가 공대를 나오면 시집가기 어렵다는 말이다. 지금은 입에 담기에도 우스워진 말이다.

우리 동네에는 입심 좋기로 유명하신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한번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민경 씨는 키가 커서 모

텔 같아요. 우리 엄마는 언제나 내가 키가 너무 클까 봐 걱정하셨는데……. 시집 못 갈까 봐.” 내가 서울대에 지원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여자는 여대를 나와야 시집을 잘 가는데, 서울대 나와서 어떻게 시집가려고.” 게다가 나는 서울대에서도 여자들이 많이 가는 학과가 아닌, 공대를 택한 것이다. 소위 말하는 시집가기 힘든 조건은 다 갖췄다. 이 정도 악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내가 결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야 한다. 하지만 결국 난 학과 동기들 중에서 첫 번째로 결혼이라는 테이프를 끊었다. 내 나이 스물다섯에.

이것은 결코 내 개인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195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은 대학이나 남편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다. 실제로 당시 대학을 졸업한 55~59세의 여성 중 3분의 1이 평생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 반면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여성은 미혼율이 7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반세기가 지난 2008년 조사에 따르면, 55~59세의 대졸자 백인 여성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9퍼센트에 불과하고 이 수치는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에 비해 겨우 3퍼센트 높다. 더 이상 대학과 남편 중에 하나만을 골라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물론 나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혼을 못하게 될까 봐 공대에 가는 것을 포기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1학년 때는 서로 소개팅을 부탁하거나 주선하는 일이 대학 생활의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컴퓨터공학과 동기 중 여자가 두 명밖에 없어서 나는 무척 바쁘게 대학 생활을 했다. 1학년 내내 남자 동기들의 부탁으로 소개팅에 나가느라 정신이 없었다. 다행히 2학년 초에 지금

의 남편을 만나서 소개팅으로 바쁘던 생활은 1년 만에 청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전공이 같은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고 있다. 수많은 여자 공대생이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고, 공대 안에서 삶의 반려자를 만났다. 대학은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기에 좋은 곳이다. 나와 관심사가 비슷하고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을 비교적 쉽게 만날 수 있다. 물론 남은 인생을 좌우하는 큰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다**

대학에 지원할 때 의대를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의대를 졸업하면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의사라는 직종의 안정성은 단순히 면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쉽게 얻을 수 없는 특수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성’에서 기인한다. 직장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 지식은 상당히 중요한 무기이다. 그리고 공대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장소이다.

학부를 졸업한 뒤 박사 학위까지 취득하고 나면 어디에 가도 그 분야에서 전문가 대접을 받는다. 졸업 후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 점점 지식이 쌓여서 어느새 그 분야를 전문성으로 ‘제패’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로서 어떤 분야를 제패하는 일에는 상당한 쾌감이 있다. 이는 곧 직장의 안정성과도 연결된다. 어떤 분야에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다면 적어도 직장에서 내 자리가 없어질 걱정이

은 없이 일할 수 있다.

나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동생이 있다. 얼마 전에 경제학과와 수학과 학사 학위를 받고, 요즘 소위 가장 잘나가는 금융계에 취직해서 맨해튼에서 살고 있다. 동생의 집이 뉴욕에 있는 우리 집과 그리 멀지 않아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남동생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해서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제학 대신에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결국 전문성이 더 강한 공학을 공부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말이었다. 뉴욕에 살다 보니 남동생 말고도 금융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공대에서 학부를 졸업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 공학을 전공하고 다른 분야로 옮기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보기 드물다. 공대는 전문성이 강해서 전공을 하지 않고는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이다.

컴퓨터공학

전공자의 특권

다시 나의 고3 시절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고 집을 부러서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긴 했지만 사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면 평생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 그 당시 내게는 티끌만큼도 단서가 없었다. 그래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을 후배들을 위해 상당히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할지 모르는 나의 이야기를 해본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수학을 좋아했다. 오래 걸리더라도 혼자 생

각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재미있었다. 지금은 그 시절의 수학 문제보다 더 재미있는 문제를 풀고, 실제로 그 답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결과물을 보며 즐긴다. 지금의 문제들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문제는 존재하지만, 해답은 아직 없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경우, ‘정답’이 없다. ‘정답’인지 아닌지보다는 얼마나 빨리 ‘좋은 답’을 찾아내서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컴퓨터 전공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운을 떼놓고 모호하게 말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면, 나는 컴퓨터 분야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것이다. 구체적인 업무는 계속 변해가고, 우리는 변해가는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 이것이 이 분야 전공자들의 고충이기도 하고 동시에 활력소이기도 하다. 한 가지 비밀을 말하자면, 빠르게 변하는 와중에도 풀어야 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IBM 연구소 전시실의 왓슨 컴퓨터 앞에서.
IBMOI 개발한 슈퍼컴퓨터 왓슨은 2011년 퀴즈 쇼 <Jeopardy!>에서 인간을 제치고 우승했다.

로 비슷하고 해답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나고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하지만, 결국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업무 공간의 자유로움이다. 반드시 회사에 가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집이든 카페든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컴퓨터 전공자들이 누릴 수 있는 굉장한 특권이다.

남자밖에 없어도

얼마든지 재미있다

컴퓨터 분야는 여성도 흥미를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분야지만,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여전히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가 남성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에 학회에 참석했다가 찍은 단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었다. 나와 페이스북 친구인 옆집 아저씨께서 그 사진을 보시고, 출장이 참 재미 없었겠다고 말씀하셨다. 사진을 보니까 여자는 거의 없고 남자만 잔뜩 있더라고 하시면서.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나의 일상을 들여다본다면 남자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다. 하루 종일 미팅을 해도 여자 한 명 못 만나는 일이 흔하다. 내가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후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와 나누는 대화가 고작이다. 이러한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진 내게 학회 사진에 대한 옆집 아저씨의 반응은 신선하게 다가왔다. 나의 일상이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친숙하지 않은 모습임을 새삼 깨닫게 된 것이다.



2014년 6월, MobiSys'14 학회에서 등산을 다녀왔다.
이 사진이 바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다.

옆집 아저씨께 재미없는 출장이었을 것이라는 인상을 준 페이스북 사진은 실은 정반대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담고 있다. 내가 오랫동안 안 알고 지내온 같은 분야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등산을 하며 찍은 사진이다. 허물없이 친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를 푸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뭐가 있을까. 그들은 내게 이성이 아닌 동료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고 상의할 수 있는 말 통하는 벗이다.

2006년 서울대 공대가 개교 60년 만에 여자 졸업생 1,000명을 배출하고 기념 행사를 열었다. 2013년 한 해 서울대 공대 입학생이 78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00명을 졸업시키는 데 60년이나 걸렸다는 것이 안타깝다. 물론 1950~60년대에 비해 상황은 훨씬 좋아지고 있다.⁴ 하지만 여전히 공대의 여학생 비율은 매우 낮다. 여성의 의사



2013년 12월, 재미 한인 정보과학회(The Korean Computer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America) 심포지움에서 만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동문들과 함께.

와 상관없이 부모님과 주변의 영향으로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던 일들은 이제 끝나기를 바란다.

1 Waber DP et al. 「The NIH MRI Study of Normal Brain Development: Performance of a Population Based Sample of Healthy Children Aged 6 to 18 Years on a Neuropsychological Battery」,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uropsychological Society, 2007, Vol. 13, 1-18p.

2 MadhuraIngalhalikar, Alex Smith, Drew Parker, Theodore D. Satterthwaite, Mark A. Elliott, KoshaRuparel, HakonHakonarson, Raquel E. Gur, Ruben C. Gur, and RaginiVerma, 「Sex differences in the structural connectome of the human brai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December 2013.

3 ZhenguiZheng and Martin J. Cohn, 「Developmental basis of sexually dimorphic digit ratio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ptember 2011.

4 「"여자가 공대엔 왜 왔냐" 물으면 웃지요」, 조선일보, 2006. 04. 29.

Kim Hyojung

김효정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후 한국 IBM에 입사하여 서비스사업부, 신규 솔루션 기술 영업을 거쳐 유통산업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 아키텍트로 재직 중이다. 한국 IBM 소프트웨어 그룹 상무로 한국 IBM의 다섯 번째 IBM Academy of Technology 회원이며, 최근 뉴욕 주립대에서 기술 경영 부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IBM 내 아키텍트 전문가 커뮤니티의 필수 교육 과정인 'Architectural Thinking', 기술 영업 방법론과 관련된 'Team Solution Design', 'Technical Leadership University college 2'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The Open group Open Certification Review Board Chair, ISO/IEC JTC1 SC38 전문위원이며,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회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연합회에 참여하고 있다. The Open group Distinguished Architect, IBM Senior Certified Architect, Korea Certified Software Master Architect 인증을 받았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일신우일신 日新又日新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적응

나의 진로는 정말 우연히 결정되었다. 고등학교 2학년 어느 날, 반장으로부터 여름방학 때 덕수상고에서 하는 EDPS(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교육에 자기 대신 참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다. 당시 반장은 선약으로 인하여 해당 교육에 참석할 수 없었고, 나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에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2주 동안 접해본 베이직 언어는 대학 진학 시에 선택할 전공을 고민하고 있던 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었다. 당시 나의 진로 결정 기준은 단순했다. ‘한평생 직업으로 삼을 만큼 흥미진진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여야 한다’였다. 길게만 느껴졌던 학창 시절,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항상 새로운 것을 접하며 일신우일신하기를 바라던 나는 베이직 언어 교육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것이 막연한 수학과 지망에서 컴퓨터공학과 지망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 생활은 정말 평범했다. 또다시 공부와 시험의 반복이었다. 원하던 대로 컴퓨터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었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쳇바퀴 같은 일상이었다. 이에 비해 학과 동기들 중에

는 정말 특이한 대학 생활을 했던 동기들도 있었다.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검색 포털 서비스 회사, 게임 회사를 만들어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다. 수업은 뒷전인 채로 심심하다는 이유로 손바닥 모양의 마우스 포인터가 포함된 한글 에디터를 만든 아이, 세운상가에서 학우들이 학습용 PC를 구매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연결해주어 세운상가 PC 업체 사장으로부터 충애를 받았던 아이, 자동으로 남녀를 짝지어 주는 매칭 알고리즘으로 소개팅을 주선하던 아이 등 정말 독특한 아이들이 많았다. 그 가운데서 나는 수업에만 전념했던 모범생이었다.

4학년 겨울방학 때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내게 형부가 IBM은 연중 수시로 채용한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 말을 듣고 IBM 인사부를 찾아가 지원서를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25년째 IBM에 다니고 있다. IBM에 입사하고 처음 3년까지는 그전 나의 인생처럼 정말 평범했다. 그러나 1993년부터 IBM의 역사는 컴퓨터와 IT 기술 발달과 맞물려서 변화의 회오리에 휘말리게 되었고, 더 이상 '평범'이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전통적인 메인프레임(mainframe) 기반 방식에서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 e-비즈니스, 모바일,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시대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는 IT 변화의 한복판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스스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밤새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나는 항상 거대한 소용돌이 안에 있었고 지금도 변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거의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서 중심을 잡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 시대이다.

**전문가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과 발전**

이렇게 변화의 폭풍이 몰아치는 곳에서 밤잠을 줄여가며 새로운 개념을 익히고, 얻은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나의 사고방식이 크게 바뀐 계기가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내가 IBM 아키텍트 전문가 커뮤니티의 필수 교육인 ‘Architectural Thinking’ 강사로서 교육 봉사를 하게 된 것이다.

IBM의 경우 아키텍트 전문가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필수 교육인 ‘Architectural Thinking’을 수강해야 한다. 현재 이 교육은 IBM 전문 교육부 강사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키텍트 전문가 인증을 받은 사람 중 아키텍트 커뮤니티 리더가 인정하는 사람이 교육 봉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업무 외의 일이라 자원자가 그리 많지 않지만 아무에게나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마침 나는 2005년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조직으로 옮기면서 새롭게 담당하게 될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고, 그것이 강사 자원을 한 계기가 되었다.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룹에는 개발 및 인수 합병을 통하여 IBM의 자산이 된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있다. 나의 역할은 고객이 자신의 비즈니스 목표를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IT 기능들을 파악하고, IBM 내 수많은 소프트웨어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지를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표현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고객의 개별 소프트웨어 구매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기술 영업이



2008년 10월 14일, 팀 솔루션 디자인(Team Solution Design) 강의를 끝내고 강의 참석자들과 함께. 오른쪽 끝에 계신 분이 지금은 돌아가신 나의 멘토이다.

다. 즉, 비즈니스 요구 사항과 실제 구현 사이의 연결 고리인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고객의 시나리오와 사용할 소프트웨어들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역할이다.

보통은 공유되는 참조 아키텍처가 있어서 이를 요구 사항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사실 아키텍처 자산을 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특히 전 세계 최초의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아키텍처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아키텍처 자산을 구하기 힘들 때는 기존 지식을 기반으로 고객의 필요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창조해야 하며, 이 경우 'Architectural Thinking'에 대한 근본 이해가 필요하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진행되는 강의로 인하여 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반복 학습하는 효과를 얻었고, 이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나 자신의 아키텍트 자산을 만들고 재활용할 수 있어서 좀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신속하게 고객 지원을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강사 활동은 IBM 내에서 누구도 못 그리는 아키텍처라도 나만은 그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고 동료들에게도 인정받게 해주었다. 또한 나의 주 고객인 유통 고객을 지원하면서 각종 아키텍처 자산들을 만들어나가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아키텍트 전문가 커뮤니티 내부 교육 봉사 자원자를 찾는 메일에 응답한 것을 시작으로 나는 조직에서 요구하는 직무와 더불어 전문가 커뮤니티에서 요구하는 자원봉사 성격의 일을 동시에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정보를 전달받는 사람으로서 빠르게 습득하고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전달자로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과 영향력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해온 개인적인 활동을 확장하여 비슷한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커뮤니티 중심으로 사고하는 법을 터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연스럽게 아키텍트 전문가 인증을 준비하는 방법 등을 멘토링하면서 후배들에게 경력 및 진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주었고, 나 역시 다른 국내 혹은 글로벌 멘토로부터 비슷한 가이드를 받으면서 IBM 내 아키텍트 전문가 인증 기술 임원이 되는 것을 시도해볼 기회가 생겼다. 강사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 된 멘토의 적극적인 권유로 도전하게 되었고 한국 IBM에서 7년 만에 아키텍트 커뮤니티 내 전문가 상무(Senior Certification)를 획득할 수 있었다. 커뮤니티 내 자원봉사

활동은 나의 업무에도 동기 부여가 되어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지금도 회사 내에서 잘 모르는 직원들이 나에게 인사를 할 때는 강의를 들었던 학생인가 싶어서 좀 더 반갑고 고맙다.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후배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하고 싶은 것이 나의 바람이다.

한국 IBM에는 수많은 기술 전문가가 있고 특정 분야에서 나보다 훨씬 뛰어난 실적을 보이는 분도 많다. 사실 내가 인정받은 것은 이러한 분들보다 실적이 훨씬 뛰어나서라기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남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행운이라면 우연히도 IBM 내에 그러한 부분을 중요시하는 별도의 전문가 승진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동기 부여를 받은 것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피터의 원칙(직원은 가장 무능해지는 수준으로까지 승진한다)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가 인재 교육 혹은 별도의 기술 전문가 승진 제도라고 한다. 7년 만에 이루어진 고급 전문가 인증과 상무 승진은 한국 IBM 내 기술 커뮤니티에서 하나의 자극제가 되어 현재 더 많은 분이 도전하고 있다. 나는 나를 이끌어주었던 멘토와 마찬가지로 후배 혹은 동료,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라고 권유하고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그리고 외부 커뮤니티 2010년부터 한국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연합회 활동을 시작하여 한국형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인증 체계 개발 및 적용을 지원하는 등

다수의 국내 전문가 커뮤니티의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있다. 매년 자발적으로 외부 컨퍼런스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국내 전문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거꾸로 내가 많이 배운다는 것을 느낀다. 이런 활동들은 IT의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좀 더 명료하게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IBM의 전문가 그룹이 추구하는 기술적 명성(Technical Eminence)의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다. 한국과 산업계에 명성과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전문 역량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렵게 들리던 이 말이 이해되기 시작한 것은 내가 직무 외의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면서부터였다.

국내 활동과 더불어 글로벌 커뮤니티 활동도 병행했다. IBM 내 글로벌 기술 커뮤니티의 DE(Distinguished Engineer) 후보 양성 이니셔티브 겸 글로벌 협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중국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IBM 글로벌 성장 지역(Growth Market Unit)의 미래 전문가 인재 후보군 양성을 위한 'Technical Leadership University College 2' 강사로서 글로벌 강사들과의 교류를 시작했다.

이러한 기존 직무 외 자원봉사 성격의 국내 및 글로벌 전문가 커뮤니티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글로벌 IBM의 최고 기술 전문가 커뮤니티인 'IBM Academy of Technology'에서 한국 IBM 내 다섯 번째 회원 자격을 부여받았다.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와 선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기술 전문가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나 자신의 실력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제공함으로써 좀 더 확장된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었음을 인정받은 덕이다.



2011년 8월 13일 뉴욕에서 글로벌 멘토와 함께.
IBM Academy of Technology 멤버가 되기까지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2014년 6월 20일 Technical Leadership University College 2 강의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세상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 등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바야흐로 기술 융합, 산업 융합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빅데이터 처리 규모가 대량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 병렬 처리, 확률적 추론 등과 맞물려서 차세대 컴퓨팅인 인간과 같은 인지 능력을 가진 인지 컴퓨팅 분야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인간의 오랜 소망인 인간과 닮은 컴퓨터를 만들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발현되는 인지 컴퓨팅은 2005년 IBM의 블루 브레인 프로젝트, 2008년 미국방 과학 연구소의 후원으로 IBM이 진행한 시냅스 프로젝트 그리고 이어진 2013년 유럽연합(EU)이 시작한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 등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의도(good will)’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혁신이 경제, 사회적인 제도와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와 규범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인간성을 존중하는 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와 교류하면서 선한 경쟁을 통하여 전체 생태계를 더 풍부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 이런 다짐은 나에게도 좋은 동기 부여가 된다.

평생 젊은
공학인으로서
배우고 돌려주다

앞으로 나의 개인적인 계획은 기술 경영의 박사 학위를 따는 것, IBM 내 기술 전문가 분야의 최고 영예인 전무(Distinguished Engineer)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정책에 기여하고, 미래 청년 세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테크놀로지, 경쟁하는 산업 생태계에서 평생 학습의 필요성을 요즘처럼 절실하게 느낀 적이 없다.

특히 젊은 IT 세대와의 교감을 위해서도 신기술과 이러한 기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다행히 최근 뉴욕 주립대에서 기술 경영 석사과정을 통해 신규 지식과 사고 방식을 학습할 기회가 있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병행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요즘 전 세계에서 화두인 온라인 대학 중 하나 코세라(Coursera)가 내게 대안을 제시해주었다. 나는 현재 코세라를 통하여 다양한 강좌를 틈틈이 들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즐거움에 푹 빠져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베이직 언어를 접하고 느꼈던 경이로움이 30년이 지난 지금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다.

나의 대학 생활과 초창기 IBM 생활이 평범하게 느껴지고 별로 기억에 남지 않은 것은 그동안 주변을 돌아볼 여유 없이 개인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전념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처음 나에게 주어진 목표를 뻑뻑하게 해내는 일에만 매진했을 때 만족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아쉬움도 느꼈다. 그러나 직접적인 비즈

니스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관심사를 지닌 내외부 커뮤니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타인의 가치, 즉 나를 둘러싼 외부 커뮤니티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서부터는 더욱 동기 부여가 되고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가치보다 가족, 동료들이나 미래 세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나태에 빠지지 않고 새롭게 발전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얻는다.

아직도 현장에서 일할 수 있어서 좋다. 대학교 2학년인 딸,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아들과 함께 IT에 대해 토론할 수 있어서 좋다. 우리 아이들 같은 청년 세대가 자라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나도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세상에 돌려주고 싶다. 그것이 내가 할 일이자 진정한 행복 아닐까.

Lee Meejeong

이 미 정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전자계산학 학사,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캠퍼스(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에서 컴퓨터과학 석사,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Raleigh)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연구 분야는 인터넷 구조 및 프로토콜이다. 현재 주요 관심사는 차량 간(V2V) 통신, 에드훅 네트워크, 모바일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이며 IEEE(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JSAC 등을 비롯한 국내외 학술지 및 학술 대회에서 지금까지 약 200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다. 한국통신학회와 한국정보과학회의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ICT 분야 여성 리더쉽 교육과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현재 개방형통신연구회와 한국통신학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열정,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열쇠

어느 때보다도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후 폐허가 된 물리적
인 삶의 터전을 복구하느라 고군분투한 세대
였다면, 소위 7080 세대라 불리는 우리는 그
분들의 노고 덕분에 복구된 삶의 터전에서

비교적 단순하고 고정적인 생활의 틀에 맞는 직업을 구해 열심히 일
하는 세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독자에 해당할 젊
은 세대는 이미 많은 것이 갖추어진 풍요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자신
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듯하다. 그래
서 이들에게는 자신의 능력과 사회의 필요 사이의 접점을 찾아 새로
운 일을 만들어내거나 찾아낼 수 있는 창의성이 이전의 그 어느 세대
보다 요구된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80년대 초반, 당시 컴퓨터에 대한 인상을 회
고해보자면 매우 덩치가 크고 꽤 위협적으로 보이는 기계 같았다. 그
나마 다른 기계에 비해 똑똑하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기능을 활용하려면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까다로운 기계라는 느낌을
받았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컴퓨터를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까다
로운 컴퓨터와 친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런

내가 대학 입학 이후 지금까지 주옥 컴퓨터와 더불어 살고 있다.

대학에 갓 들어가 처음 접했던 컴퓨터가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몰라보게 변모했다. 외모와 기능이 세련되었고 친밀해졌을 뿐 아니라, 그저 책상 위에 앉아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손안에 들어와 있거나 무릎 위에 올라와 있는가 하면 집안 곳곳에 숨어 있거나 심지어 몸의 일부처럼 우리의 동선을 좇아 따라다니기도 한다. 이렇게 컴퓨터는 전문 영역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다.

컴퓨터의 이러한 변모에 대해 비전을 가질 정도로 30여 년 전에 직관과 예지력을 지녔더라면 아마 좀 더 열정을 불태웠을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이 분야의 가능성을 가장 확실히 보고 느끼는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소녀 인재들이 자신의 재능을 꽃 피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풍요 속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일 물리적인 삶의 터전이 갖추어지고, 기본적인 삶의 틀이 세워진 세상에서 사는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기성 세대가 보기에 축복받은 세대인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없는 게 없는 풍요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야 하는 더 큰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젊은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경쟁하며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창의성’이다.

우리가 애용하고 있는 위키피디아를 인용해보면 “창의성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것과 연관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다. 창조성(創造性)이라고도 하며 이에 관한 능력을 창의력(創意力), 창조력(創造力)이라고 한다. 창조력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통찰에 힘입어 발휘된다. 창조성에 대한 다른 개념은 ‘새로운 무엇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창의성을 정의하고 있다. 이 세대는 이미 확립되어 있는 사회와 개인의 삶의 틀을 넘어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새로운 가치는 보편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을 고양함으로써 삶을 더욱 풍성하고 행복하게 이끌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어야 한다. 즉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도덕적이고 분별력 있으며 진정으로 창의적인 인재이다.

**삶과 밀접한 기술,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창의성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1985년 설립된 미국 MIT 대학의 미디어랩은 주로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연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연구에서 업적을 쌓아온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이다. 미디어랩을 소개하는 『디지털 시대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에서는 “혁신의 기본이 되는 진정한 창의성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들의 환경, 열정에서 나온다. 그

것이 사람을 움직이고 고민하고 꿈꾸게 만드는 것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일례로 미디어랩의 생체공학 연구팀에서는 인간의 발목 움직임을 모방한 인공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들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일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또한 스마트 시티 연구팀에서는 “우리는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가. 그곳에 적합한 차는 무엇일까”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해 기존 주차 공간의 3분의 1만을 차지하는 접을 수 있는 차를 개발하였고, 더 나아가 도로 교통 시스템까지 디자인하고 있다고 한다. 기술이 삶과 밀접할수록 우리는 열정이 솟는다. 그리고 열정이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하게 만드는 창의성의 열쇠이다.

모든 과학과 기술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오늘날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는 그 어느 분야 못지않게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분야라고 생각한다. MIT 대학 미디어랩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의 삶 전반에 걸친 모든 영역이 ICT의 관심 대상이다. ICT는 더 많은 사람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기기들이 등장하고 보편화되었으며, 이 스마트 기기는 인터넷과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이르지 못하는 장소나 정보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서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창의성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기술 혁신을 요하는 삶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학생들이 ICT 분야에서 일하고자 할 때 핵심 기술에만 관심을 두기보다

는 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응용 분야나 활용이 가능한 여러 분야를 새롭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연구하려는 태도를 가지기 바란다. 이러한 자세로 연구한다면 교육, 의료 등 인간의 삶에 기본이 되는 영역들부터 마케팅, 서비스 등 각종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ICT 관점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고, 진정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융합을 통한
혁신을 꾀하려면**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로서의 ICT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융합이라고 생각한다. 16세기 이후부터 학문 각 영역에 고유한 탐구 대상과 원리가 있다고 보고 학문의 구분

이 생기게 되었다. 20세기 전반까지 학문의 세분화와 전문화 경향은 계속되었으며 이런 경향은 엄청난 양의 지식 발굴에 기여했다. 그러다가 20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학문의 통합 개념이 대두하였다. 이제 융합은 시대의 화두가 되었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융합을 이루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융합을 위해서는 다학제적인 마인드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복수의 분야를 각각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가능한 것 같지는 않다. 말하자면, 분야 간 일종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한달까. 그렇기 때문에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이 천재적인 개인에게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도의 지식 전문화와 다변화가 이루어진 지금, 여러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위대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뛰어난 융합형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인들이 더불어 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학문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얼마 전 후배 교수 한 명이 음악 치료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자문하는 과정에서 음악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본인의 ICT 기술을 발견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여기에 필요한 새로운 ICT 기술 이슈까지 발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융합의 예이다.

융합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일해야 하는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협동하는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다. 자신의 분야에서는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융합을 제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서로의 목표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는 덕목을 가져야 한다. 또한 서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용어나 접근 방법이 다르더라도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융합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ICT 분야의 빛나는 여성들

끝으로 ICT 분야를 지망하는, 혹은 ICT 분야에서 공부 중이거나 연구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ICT 분야의 미래가 밝고 그들의 노력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람 있는 것임을 얘기해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빛나는 흔적을 남긴 대표적인 여성들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다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찍이 과학 분야에는 뛰어난 공헌을 남긴 여성들이 있어왔다. 노벨상 과학 부문만 살펴보다라도 마리 퀴리가 여성 최초로 물리학상(1903년)과 화학상(1911년)을 받은 데 이어 지금까지 9명의 여성 과학자가 10개의 노벨상을 받은 바 있다. 680여 명의 학자와 7개의 단체가 노벨상의 역사를 장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 이는 지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이지만 역사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본다면 이러한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컴퓨터 분야에도 뛰어난 공헌을 남긴 여성들이 있는데 특히 컴퓨터 등장 이전에 현대 컴퓨터의 출현을 예견하였을 뿐 아니라 최초의 프로그래머라 불리게 된 인물이 여성이었다는 점은 매우 놀랍다.

1800년대 인물인 러브레이스 백작부인 어거스타 에이다 킹(Augusta Ada King, Countess of Lovelace)은 영국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의 딸로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로 알려져 있다. 에이다는 찰스 배비지(Charles Babbage)가 고안한 해석기관(Analytical Engine)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알고리즘을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라 불리게 된 것이다. 그녀는 배비지의 해석기관을 단순한 계산기 또는 수치 처리 장치로만 생각하던 당대의 과학자들과는 달리 훨씬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현대 컴퓨터의 출현을 예측하였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인 루프, GOTO문(GO TO statement), IF문(IF statement)과 같은 제어문의 개념과 서브루틴(subroutine)에 관한 개념도 고안하였다.



최초의 여성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알려져 있는 에이다 러브레이스

1971년, 최초의 소프트웨어 특허를 낸 인물도 여성이었다. 에르나 슈나이더 후버(Erna Schneider Hoover)는 벨 연구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전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전화 오버로딩(overloading) 문제를 없앤 전화 스위칭 시스템(switching system)을 만들었는데 그녀의 시스템은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그 밖에도 정보 검색(Information Retrieval)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카렌 스파크 존스(Karen Spärck Jones), 인터넷의 어머니로 일컬어지는 여성 소프트웨어 디자이너이자 네트워크 엔지니어 라디아 펄먼(Radia Perlman) 등이 있다. 또한 킹스 퀘스트(King's Quest) 비디오 게

임 시리즈를 만든 로베르타 윌리엄스(Roberta Williams)는 1980~90년대 유행한 어드벤처형 게임 제작의 대부라 할 수 있고, 캐럴 쇼(Carol Shaw)는 최초의 여성 게임 디자이너였다.

많은 여성이 현재 ICT 분야에서 CTO, CEO, 그리고 기술과 학문을 선도하는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보길 권유한다. 그리고 여성뿐 아니라 ICT 분야를 이끄는 남성들의 활동과 생각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란다. 이들이 이룬 뛰어난 업적 뒤에는 그들만의 방식과 가치가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방식과 가치를 확립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행복한 변화를 일구어낼 수 있는 ICT 분야의 인재는 단지 일만 잘하는 인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기를!

Hyun Wooseok

현우석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컴퓨터교육 석사, 경상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외환은행 전산개발실에서 근무하였으며 경희대학교 전자정보학부 강의 전임강사를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성서대학교 정보과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학과 주임교수를 맡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초, 설계 패턴, 소프트웨어공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여성정보인협회 이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평가위원, 조달청 기술평가위원, 강남구청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다

문과나 이과나 이것이 문제로다

고등학교 1학년 말, 계열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다. 나는 신청서에 문과라고 적어 담임선생님께 제출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짹짹했다. 사회 과목에 흥미를 못 느껴 공부하기 힘들었던 나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다 이과로 가야겠다는 늦은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이과반이 두 개라 학생 수가 많지 않아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쉽지 않을 테니 문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셨다. 하지만 이과 반에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진로를 최종 변경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 나는 내성적이어서 친구 두어 명과 친밀하게 지내며 조용히 공부에 집중하는 편이었다. 이과 반에는 성적이 상위권이었던 학생들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했다. 문과를 포기하고 이과로 온 나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나의 길은 컴퓨터,
너로 정했다!**

학력고사 성적이 가채점한 성적보다 낮아서 많이 힘들어하던 나에게 어느 날 남동생이 컴퓨터를 전공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해 주었다. 남동생은 숭실대학교에서 개설한 고등학생 대상의 여름방학 컴퓨터 강좌에 학교 대표로 참석하여 수강했었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껴 본 일이 없다면서 스스로 책도 사서 공부하며 프로그래밍에 푹 빠져 있었다. 평상시 두루뭉술한 것보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도 컴퓨터 전공이 잘 맞을 것 같으면서 남동생은 적극 추천하였다. 나는 장고 끝에 컴퓨터를 전공하기로 결정했고,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하였다.

**끝없는 과제
또 과제**

지금처럼 PC가 대중화되기 전인 나의 대학 시절, 실습실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아야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였다. 이른 아침에 실습실 문 앞에 붙어 있는 시간 표에 이름을 적어야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

모든 전공 과목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끊임없이 과제를 하면서 지냈다. 심지어 축제 기간에도 실습실에서 과제를 해야 했다. 2학년 1학기 어셈블리(assembly) 수업은 너무 어려워서 전공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내가 선택한 전공을 포기하지 않고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꾸

준히 공부하였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학부 시절 수행했던 많고 많은 과제들이 쌓이고 쌓여 내 실력의 밑거름이 되었다.

미뤄진 꿈에 다시 도전하다

교사이셨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평소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던 나는 교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대학 3학년 때부터 유학을 가기 위해 토플, GRE(Graduate Record Examination) 공부와 전공 공부를 병행했다. 방학 중에도 대학 도서관에 나와서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지냈다. 그런데 유학 지원을 하려던 대학 4학년 때, 아버지께서 결혼할 사람이 있다면 함께 유학을 보내 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학을 보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셨다. 당시 남자 친구가 없었던 나는 일단 아버지 말씀에 따라 유학 가는 시점을 연기했다.

그래서 취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외환은행 전산직에 지원하였고,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그 당시 외환은행은 신전산시스템 개발이라는 5개년 프로젝트를 막 시작하려는 시기였다. 나는 신전산시스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별과 달을 보며 퇴근하면서 신전산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었다.

그렇게 은행에 다니면서 인생의 반려자도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함께 유학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못다 이룬 꿈에 대한 열망이 피어올랐고 결국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교육 석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낮에는 은행

업무로 야간에는 석사과정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꿈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곤 했다.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나는 다시 한 번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일하면서 석사과정을 밟느라 학문에 목말라 있던 나는 박사과정부터는 공부에 전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무렵 남편이 진주의 경상대학교로 발령 났고 은행에 근무하느라 6개월 동안 서울에 남아 있던 나는 가족이 떨어져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걸 느끼고 큰 결단을 내렸다. 은행을 그만두고 진주로 내려가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진주로 내려와보니 경상대학교에는 박사과정이 아직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1년 동안 시간강사를 하면서 기다렸다. 그리고 경상대학교에 박사과정이 개설되던 첫해에 입학하게 되었다. 박사과정 합격 소식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박사과정 1학기를 마치고 8월 11일에 둘째를 출산한 후 쉬 없이 2학기를 시작하였다.

2년간의 미국 생활

남편이 연구년 동안 미국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어 박사과정 3학기를 마친 후 휴학을 하고 온 가

족이 함께 미국으로 갔다. 2년 동안 네 살과 한 살인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전공 관련 자원봉사를 하는 등 변화가 많은 전공 분야의 끈을 놓지 않았다.

또한 한창 엄마가 필요한 시기의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미국식 교육을 접하게 되었는데, 한국과 달리 아이들 개개인의 발달 차이를 인정해주는 교육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 시간은 내가 육아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한 소중한 시간이었고 귀국해서도 나만의 육아관으로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의지의

남편의 연구년을 마치고 다시 진주로 돌아와서 박사과정 4학기로 복학하였다. 동기들은 박사과정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진주 근처의 대학 등에 교수가 되어 있었다.

한국인

지도 교수님께서서는 프로젝트 주제가 변경되었으니 휴학 전 주제로 해도 좋고 아니면 변경된 주제로 학위 논문을 써도 좋다고 하셨다. 나는 지도 교수님께 도움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변경된 주제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프로젝트 주제로 연구를 시작해야 했기에 논문을 마무리하기까지 생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 논문을 작성하는 동안 동기들은 다 교수인데 나만 뒤처져 있다는 생각에 조금할 때도 있었지만, 교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다잡곤 하였다. 그런 내게 학부 친구들은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힘든 공부를 안 해도 될 텐데 계속하는 게

대단하다며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말해주곤 하였다.

**교수의 꿈,
드디어 이루다**

박사 학위를 받을 무렵, 진주 근처 대학들은 이미 교수 채용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공채 계획이 없었다.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에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박사 논문을 마무리하는 바쁜 와중에도 경희대학교 전자정보학부 강의 전임강사 공채에 지원하여 비행기를 타고 서울과 진주를 오가면서 공개 강의와 총장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다. 그렇게 경희대학교에 임용되면서 남편은 진주에 남겨두고 초등학교 5학년과 1학년인 두 아이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경희대학교에 근무하면서 한국성서대학교 정보과학부 교수 공채에 다시 지원했고 최종 합격하여 지금까지도 교수의 길을 걷고 있다. 남편은 진주에서, 아이들과 나는 서울에서 4년을 떨어져 지내다가 남편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이직하게 되어 지금은 온 가족이 함께 지내고 있다.

**네 가지
소중한 보물**

나에게는 소중한 보물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나의 가족이다. 석사과정을 밟는 동안 첫째를 잘 돌보아주신 시부모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동안 두 손녀를 헌신적으로 키워주신 친정어머니, 공부하느라 바쁜 아내를 위해 외조를 해준 남편, 이제



학생들과 함께 tvN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는 대학생이 되어 누구보다 엄마를 잘 이해해주는 친구 같은 두 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둘째는 나의 학생들이다.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학교에 먼저 들러 인사하고 가는 학생, 시험 잘 보았다고 초코파이를 선물로 주었는데 교수님이 주셨다고 아까워서 먹지 못하고 책상 위에 보관해두는 학생, 어려운 전공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 여러 회사의 인턴십에 동시에 합격하여 행복한 고민을 하는 학생, 여러 대학원에 동시에 합격하여 함께 진로를 고민해주었던 학생, 졸업해서도 꾸준히 연락하며 근황을 전해주는 졸업생, 스승의 날 잊지 않고 연락해주는 졸업생, 힘들 때 학교로 찾아와 교수님 얼굴 보고 힘을 얻고 돌아간다는 졸업생, 결혼한다며 여자 친구를 인사시키



4학년 학생들의 졸업 작품 전시회를 마치면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

러 학교로 찾아온 졸업생 등 이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셋째는 같은 학과 세 명의 교수들이다. 10년 넘게 함께 일해오면서 어찌 보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어주고 있다. 참 고마울 따름이다. 마지막은 나의 전공인 컴퓨터공학이다. 한때는 나에게 실망과 좌절도 안겨주었지만 도전할 수 있는 끈기와 용기도 주었으며, 빠른 변화로 인하여 나태하지 않고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지탱하는 힘을 주었다.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니, 나의 힘만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베풀기를, 함께 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세상을 바꾸는 여성으로 거듭나다

정보통신
경험디자인

김은주
/
여성이란
무엇인가

2

김신현
/
천천히
뚜벅뚜벅

박경희
/
두근두근 내 인생

임미숙
/
나는 몇 번째
원숭이일까?

허수정
/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으로

Kim Eunju

김은주



연세대학교 전산과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제표준화기구 오아시스(OASIS) 웹서비스 품질 모델 기술위원회(WSQM TC) 의장,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 및 정보화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정보화자문위원, 정보통신기술협회 공공서비스 PG 의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비스기반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전자정부, 클라우드, 정보화 표준 등 IT 정책 수립과 사업 기획 관리 등을 전문으로 수행 중이다.

여성이란 무엇인가

‘여성’인 자기에 대한 이해

우리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여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성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혹은 누구를 떠올리나요? 소녀시대나 백설공주의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여성스럽다’는 것을 혹시 ‘연약하다’, ‘소극적이다’, ‘얌전하고 우아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성스럽다는 것을 예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나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피앤지(P&G)의 생리대 브랜드 올웨이즈(Always)가 만든 캠페인 동영상을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감독은 여러 사람을 카메라 앞에 세우곤 여자애처럼(Like a girl) 달리거나 싸우거나 공을 던지는 행동을 해보라고 요청합니다. 실험에 응한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힘없이 달리고 수줍어하며 싸우고 아무 열정 없이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뒤이어 감독은 실제 십 대 여자아이들에게 같은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온 힘을 다해 달리고 싸우고 열정적으로 공을 던집니다. 감독이 그들에게 ‘여자애처럼’ 달리라는 것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냐고 묻자 그들은 “최선을 다해

빨리 달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감독은 이 여자아이들의 영상을 성인 여성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다시 한 번 여자애처럼 달리거나 싸우거나 던지도록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간혹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며, 전력 질주하거나 최선을 다해 멋지게 공을 던집니다. 이 동영상은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단어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를 직관적으로 보여준 충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여성성에 대한 인식이 여성 자신의 행동을 역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인 ‘여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가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복잡다단한 상황과 만났을 때 판단과 결정,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같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저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성’이라는 단어에서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 역시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으면 합니다. 제게 어머니란 용감하고 투지가 강하며 끈기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는 어머니들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셨고, 매우 적극적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아프면 둘러업고 먼 길을 씌 없이 달려가는 분이시며,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수많은 일을 거침없이 처리하는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낯선 길에서는 가장 먼저 앞장섰고, 위험한 길에서는 가장 바깥에서 견기를 자처하시면서도 불평 없던 분이 어머니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동시에 어머니는 따뜻하고 자상하며 사랑을 주는 분이셨습니다.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고, 번뇌와 슬픔을 함께하시고 늘 관심과 애정을 주는 분이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어

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주하면 가장 먼저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저를 탓하지 않고 마냥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던 분이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강하면서도 따뜻한 인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존경하며 동시에 한없이 좋아합니다. 강요나 가르침을 통해 그리워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어머니가 보여준 놀라운 양면성, ‘강함’과 ‘따뜻함’의 조화가 저절로 우리를 그리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는 굳이 꾸미거나 멋진 옷을 입고 있지 않아도 항상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의 ‘약한 여자’가 사회가 만들어낸 여성의 이미지라면 후자의 ‘강한 어머니’는 여성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일 것입니다. 교육에 의해, 사회에 의해 여성은 태초에 가진 본성을 잊고 ‘약한 여자’가 되도록 길 들여지고 만들어지지만,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순간 그 모든 틀에서 벗어나 여성의 본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사회가 부여한 여성의 이미지를 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성, 즉 ‘강하면서도 따뜻한’ 여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여성으로 거듭나는 가장 강력한 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처음 접하는 여성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를 떠올려보면 참으로 경험도 없고 마음먹은 바도 없이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 기관에서 첫 직

장 생활을 하게 된 저는 특별한 멘토 없이 곧바로 중요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나의 미숙함에 대한 자각과 낮은 환경은 모든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그저 관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보여준 모습,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헤쳐 나가는 강한 여성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지한 바와 같이, 내가 나를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가는 우리의 행동과 의사 결정 등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초년생일수록 도전적이고 강인한 여성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 앞에 선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처음 보거나 미처 알지 못했던 상황을 맞닥뜨려도 무척 용감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상황을 살피고, 필요하다면 서둘러 배워서 그 경험을 자녀에게 전수합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당당함과 거침없는 자세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여성이 자각해야 할 내 안의 자아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간직하고 거친 항해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사회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여성

어머니는 남겨진 열두 척 배만 가지고 전쟁에 뛰어드는 ‘불멸의 이순신’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포기할 줄을 모르셨지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자녀들의 교육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자녀들의 건강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자녀들의 인성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고집스럽게도, 일이 년도 아니고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원하는 것을 포

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자식만을 가르친 우리 어머니들의 부단한 희생이 1950년 6·25 전쟁 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한다는 한국 어머니들의 교육열은 자녀의 성공을 본인의 성공과 동일시하여 그 성공을 위해 장기간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진정한 몰입의 결정체입니다.

원하는 것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은 모든 여성 안에 내재된 또 하나의 여성상입니다. 우리에게 투지가 있으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에서 성과를 내면서 성공으로 나아가야 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여성으로서의 두 번째 자각입니다.

직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도 경험할 것이며 기회를 상실하기도 합니다. 성공하려면 이러한 순간에도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끈기 있게 추구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는 바로 우리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능력입니다. 없는 능력을 새로 개발해내거나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인 우리가 원래부터 보유한 그 능력을 끄집어내고 자각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여성들을 훌륭한 직업인, 사회인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사회를 리드하는
여성

이제 세상은 산업화 시대를 지나 지식 사회로 변모하였습니다. 세계적 석학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는 지식 근로자는 그 자체로서 성과가 될 만한 어떤 것을 그저 생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산물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이 활용하였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저서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지식 근로자는 육체 노동자와는 달리, 자신의 성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공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지식 근로자에 게 필요한 능력은 전달하고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또한 20세기 소유의 종말을 예고한 또 한 명의 석학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최근 저서 『공감의 시대』에서 인류는 이제 지구 전체를 감싸는 하나의 생명권을 인식하고 전 인류적인 공감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공감 능력이야말로 기후 변화와 대량 살상 무기 증식이라는 부정적 엔트로피의 증가로부터 지구를 구해낼 수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제러미 리프킨이 강조하는 공감 능력은 사실 자신 이외의 타인이나 사물에 관심을 갖고 살피며,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피터 드러커가 설명하는 설득 능력과 제러미 리프킨이 강조한 공감 능력은 낯설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기본적으로 주변과 주변인에 관심을 갖고 살피며, 남의 이야기를 듣고 쉽게 동화되곤 합니다.

예전에 모 방송 채널의 다큐멘터리에서 여아와 남아의 차이를 보여준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공감 능력에 관한 실험이었는데

데, 남자는 엄마가 다쳐서 아프다고 소리치는데도 잠시 응시하다가 곧 하던 놀이를 계속하는 반면, 여자는 엄마와 함께 우는 아이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여성에게는 근원적으로 풍부한 공감 능력이 있음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세계적 명배우 메릴 스트립은 “인간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공감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힘의 세계를 지나 지식 세계로 접어든 바로 이 시대야말로, 이 위대한 능력을 본능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성이 역량을 발휘할 시기입니다.

어머니의 가장 눈부신 장점은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가족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줍니다. 남성인 아버지에게 다소 부족한 특별한 능력입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 공감한다는 것,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리더입니다. 조직원들의 개별적 상황과 능력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하며 그들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주는 이른바 이상적인 리더 상을 우리 어머니들은 이미 가정이라는 조직에서 보여주고 발휘해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여성들이 공감의 역량을 사회적으로 발현하기를 기대합니다. 제러미 리프킨이 지적하고 우려한 파괴적 엔트로피가 충만한 시대에 이 지구를 구할 그 능력을 우리 여성이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일과 가정을
공존시키는 여성**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여성의 모습은 아이들의 실질적 어머니로서의 여성입니다. 일반적

으로 남성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성향, 수렵 시대 사냥에 적합한 단일 목표 지향적 성향이 강하지만 여성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고려하고 관찰하면서 실행하거나 제어하는 다중 업무 처리 (multiprocessing)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요리를 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동시에 집안을 정리하곤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역량이 바로 다중 업무 처리 능력입니다.

여성은 심지어 공간을 뛰어넘어 밖에서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도 함께 처리하거나 제어합니다. 일하는 여성의 위대함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놀라운 정신적 다중 업무 처리 능력은 일과 가정을 공존시키는 역량으로 연결됩니다.

가끔 저도 일과 가정 사이에서 혼돈을 겪곤 합니다. 지금도 이미 일거리가 넘치는데 끝없이 더 몰려드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 일과를 꼼꼼히 챙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넘치는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줄어드는 법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 애뜻하고 각별해지곤 합니다.

성공한 인생이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반쪽짜리 성공일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일과 가정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이끌어가는 우리 여성의 자질은 반쪽짜리가 아닌 완전한 성공으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스마트 사회와
여성의 성장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환경과 기술의 변화입니다. 현대 사회는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으며, 실시간적인 대응 역량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발전시켜야 하는 현대 여성에게 이러한 빠른 변화와 복잡성은 참으로 무거운 숙제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뛰어난 다중 업무 처리 역량을 지닌 여성을 도와줄 스마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마트 기술과 기기의 발달로 인해 일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지시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일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여성들이 질적, 양적으로 눈부신 성과를 거두는 데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아직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디부터가 성공이고 어디부터는 성공이 아닌지 누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가 판단해야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성으로서의 내가 스스로의 역량을 자각하고, 꿈을 위해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했다면 훗날 후회가 없노라고 자부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Kim Shinheon

김신현

상명여자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학을 전공하고 LG산전(현 LS산전) 디자인연구소에서 디자인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부족한 지식을 더하기 위해 디자인 석사 학위를 받았다. ICT 분야와 영상 분야에서 활동하던 중 한남대학교 정보통신멀티미디어학부 연구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했고 이후 서울시청 문화 전문에 응시하여 공직자가 되었다. ICT와 비즈니스 융합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 박사과정에 입문한다. 그 후 새로운 분야인 헬스케어 분야에 도전하여 SK텔레콤 의료사업 총괄부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스토리힘과 (주)허밍비 대표이다.

천천히 뚜벅뚜벅

질문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다

초등학교 4학년 어느 수업 시간, 옆 친구와 서로 다리를 잡아주며 윗몸일으키기를 한 적이 있었다. 평소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반 친구지만 그 아이를 마주하여 다리를 받쳐 붙 잡아주며 그 아이가 윗몸일으키기를 하도록 도왔다.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었던 이 아이의 반듯하지 못한 옷차림과 매무새, 불쾌한 냄새가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아니 어쩌면 문화적 충격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아이가 불편하거나 부끄러울까 봐 조심스럽게 윗몸일으키기를 마쳤고 시간이 흘러 새학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졌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모두 그 아이 옆에 가까이 가길 꺼렸고 윗몸일으키기 파트너가 될까 봐 피했다는 것이었다.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다. 색종이책 세 묶음을 선물받아 가지고 있던 나는 A친구에게 주기로 한 걸 깜빡 잊어버리고 무심코 다른 친구에게 주게 되었다. 학교 앞 도로에서 이 모습을 본 A친구는 울면서 내게 화를 냈고 다른 친구 손에 들려 있던 색종이를 뺏다가 다툼이 일어났다.

“야! 너 나한테 준다던 색종이를 애한테 주면 어떻게 해? 왜 거짓말해? 이거 내 거야!”

나는 너무 놀라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고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나는 한동안 어색하게 그 친구들을 봐야 했다. ‘색종이’라는 것이 누구나 쉽게 사거나 가질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선물처럼 특별한 것이라는 그들 세상의 불편한 진실이 아프게 아른거린다.

아마도 이 무렵인 것 같다. 주변에 별로 관심 없고 가까운 친구들과 하고만 어울리던 나의 눈에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일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먹고 입고 자고 배우고 놀던, 형제들과 사소한 일로 아웅다웅하다가도 금세 깔깔 웃던 어린 나에게 ‘왜?’라는 질문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고 그 씨앗은 내 안의 생명체가 되어 자라나기 시작했다.

생각이 깊어지면

걸음이 느려진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과정을 사춘기 진통 하나 없이 무난히 마쳤다. 작가 밀란 쿤데라의 장편소설 『느림』 중에 “느림과 기억 사이, 빠름과 망각 사이에는 어떤 내밀한 관계가 있다. (중략) 느림의 정도는 기억의 강도에 정비례하고, 빠름의 정도는 망각의 강도에 정비례한다”는 글이 있다. 당시 LG산전 디자인연구소 연구원이었던 나는 1995년 5월 26일에 이 책을 만났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치 주문처럼 되뇌이고 있는 “생각이 깊어지면 걸음이 느려진다”라는 ‘논리 방정식’에 감탄한다.

내 성장기는 주어진 생의 과정들을 저항감 없이 소화해내느라 정신없이 지나갔다. 그 사이 어린 시절 마음에 새겼던 기억과 다짐들이 세월에 흐려지고 잊힌 듯이 침묵했다. 어쩌면 나는 어린 시절 ‘몸일으키기의 충격과 색종이 다툼’에서 얻은 인생의 깨달음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은 듯했다. 그러나 ‘눈에 띄게 혁신적이거나 파격적이지 않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 나의 지나온 흔적을 돌아보며 알게 되었다. 울림이 커지고 번져가는 과정에는 응집력이 필요하다.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움직임이 적은 것이다. 생각이 깊어져 걸음이 느려진 것이리라.

성장기에 해당하는 나의 청소년기는 어린 시절 자극이 울림으로 번져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시기였던 모양이다. 마치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파내어 움푹 들어간 곳으로 물길을 내어주듯.

꿈 지도를 그려가다

여섯 살이 되던 봄, 옆집 화가 선생님께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게 된 나는 고작 일곱 살이 되던 해에 당시 생소했던 시각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단 한번도 꿈을 바꿔본 적도 포기해본 적도 없었다. 부모님은 피아노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셨지만 내 꿈은 변하지 않았다. ‘시각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한 환상이 있었나 보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다.

조형과 색채, 로고 마크와 심볼, 정보, 책과 편집, 제품, 서비스 등

모든 디자인 분야는 함축적인 가치로 경험되어야 하고 동시에 심미적 기능을 지녀야 한다. 특히 인간은 감각 기관 중 시각에 80퍼센트 이상 의존한다. 그래서 시각디자인은 세상에 꼭 필요한 귀한 일이라고 믿었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업,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업무 외 사용자들이 산업 전자제품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설계(Information Architecture)와 GUID(Graphic User Interface Design) 업무를 맡았고 자연스럽게 기기와 기술 분야와 친숙해졌다. 호기심 많던 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인터넷 기술이 신기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찾아다녔다.

어느덧 나는 IT 기술과 콘텐츠를 다룰 수 있는 1세대 시각디자이너로서 사람의 생각과 행동 가치를 디자인하는 경험디자이너가 되어 있었다.

일상의 흥얼거림이 되는 디자인 사고방식, 습관, 사회문화적 관습, 학습 능력, 개인의 여건, 기술, 정책 등에 영향을 받는 제품과 서비스는 무수히 많은 기획, 설계, 디자인 방법, 적용 기술을 검토하고 발표된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등의 다원적 관계 속에서 디자인과 기술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가치는 ‘놀라움’ 그 이상이다. 일상이 행복해지고 편리해지는 데 당당히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제품, 서비스, 콘텐츠 등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사람은 주인공이

며 핵심이다. 주인공 행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다. 때로는 통계와 분석을 통해 주인공 이용 패턴이나 생활 습관이 달라져야 삶이 나아진다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습관적 행위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강제성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에게에는 '생애 주기'라는 시간 여행 프로그램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흐름에 따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즉 하늘의 순리를 인정하면서 신체 노화를 수용해야 덜 외롭고 더욱 편리해지지 않겠는가.

누구나 약간이라도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면 당황하게 되고 외부의 강제적인 힘을 두려워한다.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유쾌하게, 부담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완충제가 되는 것이 '디자인의 흥얼거림'이다. 다시 새로운 물길을 내야 한다.

나의 인생 시즌2가 열리다

1994년 한 잡지는 인터뷰 기사에서 나를 산업 제품에 색을 입히는 감각이 뛰어난 차세대 디자이너로 소개했다. 다음 해인 1995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싶다며 헬스케어 분야의 뜻을 밝혔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6년에 잡지 인터뷰를 했을 때는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사용성 테스트(Usability Test)를 통해 대상자의 요구와 이용 패턴을 바탕으로 하는 콘텐츠를 설계하고 웹사이트를 제작한 새로운 도전이 소개되어 격려를 받았다. 2년 뒤 상하이 엑스포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서울이 관광객 1,200만 명을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근 정부 보고의 원격 의료 서비스 가능성 발표는 나의 인터뷰를 대신한다. 나의 관심과 활동의 흐름은 대략 이렇다. 디자인연구소 연구원, 정보통신 멀티미디어학부 연구교수, 공직자, 기업의 구성원, CEO로 변모와 변화를 거듭해왔다.

학습과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20년이 넘게 걸렸다. 학문적 토양, 기술 역량, 다양한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 융합과 네트워크 능력, 사회적 가치와 혁신 요소 등을 갖추는데 걸린 시간이기도 하지만, 따뜻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익어가는 시간이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문제 제기를 하거나 격려해주는 동료들이 있었고 의논하고 믿어주는 멘토와 리더들이 있었다.

민관 협력이란 단어가 생소했을 당시, 외국인이 자국에서부터 서울의 정보를 인지하고 입국하여 관광한 뒤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모델이 없었다.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이 절실했다. 이 새롭고 위험한 도전이 정책이 되어 시행되기까지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서울시와 나 사이에 신뢰가 있었기에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

서울시라는 조직은 낯설고 어려웠다. 당시 민간 기업은 공공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었다. 민관 협력은 그야말로 혁신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5년간 주말 없이 밤낮 없이 근무했다. 일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정책적인 제약 또는 장애 요소가 무엇인지 찾아가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나만의 숙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민간 이력의 전문가가 공적 영역에서 정책을 병행하며 ICT 기술을 도입하고 서비스디자

인을 하는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매력이기도 하다. 나는 이곳에서 두려운 장애물을 이겨내는 훈련을 했다.

또한 원격 의료에 대한 제도와 정책 기반이 없어 그 방법과 가능성을 고민했던 시절, SK텔레콤 입사는 나의 인생 시즌2를 준비하는데 가장 많은 영감을 준 직장이다. 식이 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관리 등의 문제로 생기는 만성 질환을 의료 기관과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관리하는 ‘개원의 중심의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 사업’의 책임자로 SK텔레콤에서 근무하며 신체적 노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문제가 결국 사회, 국가 문제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의 계속된 도전은 인생 시즌2를 구체화했다. 배려의 관점으로 디자인된 사회 완충제 설계, 솔루션 개발, 실행을 위한 회사를 창립했다. 급속하게 증가 중인 1인 가구와 초고령 사회 진입 현상은 내 문제이기도 하기에 나 자신이 실험 대상이 되었다. 모든 사람, 사물과 서비스와의 관계 속에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가 ‘힘’이 된다는 의미의 ‘스토리힘(STORYHYM)’은 실험실이 되어준 첫 회사이다. 또한 일상에서 새처럼 노래하며 경쾌한 흥얼거림을 제공하자는 의미의 ‘허밍비’라는 법인과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제 스토리힘과 (주)허밍비는 ‘라이프케어 서비스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현을 위해 시나리오 설계, 특허 출원을 마치고 솔루션 개발 중이며 음식, 건강, 정보, 정신적 지지를 통한 자존감 회복 등을 위해 자원 봉사, 헬퍼, 상담사 등 운영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것을 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첫발을 내디디면

그 다음 걸음은 쉽게 뻗 수 있습니다.

- 사야도 우 조티카의 『마음의 지도』 중에서 -

**배려와 소통이라는
유전자**

시즌2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는 두 가지 유전자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것은 관심과 이해의 기본인 ‘배려’와 사회 네트워크를 아우를 수 있는 ‘소통’이었다. 이는 여성에게 더 뚜렷이 내재된 특성이기도 하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것이 여성의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한다.

박웅현 작가의 『여덟 단어』라는 책에서는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 인생’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인생에서 정답을 찾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저마다 삶의 방식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여덟 단어 중 견(見)에 대해 읽으며 내게는 일상적인 것이 특별한 것이었구나 하고 미소 지었다. 내용은 이랬다. 오후 4시, 회의에 임하는 남성과 여성 직원의 태도가 다르다. 커피를 준비하자는 의견이 있을 때 여성 직원들은 머핀 등 어울리는 요깃거리를 생각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자연스러운 이러한 발상과 행동이 남성과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관심과 배려의 관점에서 시작되고 그 결과는 정겨운 소통을 통한 성공적인 관계로 이어진다. 이러한 특성은 남성과의 차이점이자 긍정적 요소이다. 이런 섬세함은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어찌 미소 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과 사람, 사물 간의 관계를 통해 균형 잡힌 삶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내안의 DNA가 본능적으로 나의 시즌2를 준비하게 하고 스스로 활동중이라니, 놀랍고 감사하다.

함께 가는

따뜻한 길 위의

안내 사인

어린 시절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던 순간, 멈춘 듯 제자리에 머물며 주어진 과정을 통해 물길을 만들던 시간, 다양한 분야에서 마치 훈련소를 거치듯 지나온 과정, 어느 하나 흠어지거나 잊히지 않았다. 결국 나의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놓인 길 위의 안내 사인이자 가로등이었다.

나는 초를 켜는 것을 좋아한다. 은은한 불빛과 더불어 편안한 향기가 몸과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 같기 때문이다. 초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심지 외에도 파라핀이나 오일 왁스로 구성된 불빛을 밝힐 수 있는 열 저장고가 필요하다. 지나온 과정은 세상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온기와 불빛을 제공해줄 수 있는 오일을 만든 시간이었다고 믿는다. 많은 사람이 아름답고 즐거웠던 인생의 전성기를 그리워한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천천히 뚜벅뚜벅 남은 길을 가는 것이 더 즐겁다. 먼 길이겠지만 흥얼거리며 콧노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라는 따뜻함이 우리에게 있다.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당신에게 있는데 포기하시겠습니까?

Park Kyeonghee

박경희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와 카이스트 MBA를 졸업하였고 현재 한국 오라클 고객지원 부서에서 우리나라 IT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며,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새로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으로 항상 깨어서 오늘을 준비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삶을 살고 있다. 오라클에서 OWL(Oracle Women Leadership)의 리더를 맡아 여직원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성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두근두근 내 인생

아줌마의

재취업 도전기

남편의 박사 후 과정을 위해 미국에서 2년 정도 지낸 후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나의 일과 중 하나는 신문의 구인란을 뒤적이는 것이었다.

삼십 대 초반이었던 당시, 2년의 공백에 두 아이까지 있는 아줌마를 뽑아줄 회사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불안했다. 아이들이 만 한 살과 세 살로 너무 어렸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 맞은 예방주사 부작용으로 큰아이가 이따금씩 경기를 하는 상태라 아이를 돌보아주시는 아주머니에게만 아이를 맡기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했다. 큰아이는 열감을 앓을 때마다 경기를 했다. 이 증상은 아직 신경이 발달하지 않은 어린 아이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일단 발생하면 습관성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신경의 발달이 완성되는 다섯 살 이후에는 호전되지만 그 이전에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다 보니 차마 일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일하고 싶은 욕구와 현실과의 갈등 속에서 그저 끊임없이 신문을 뒤적이며 각종 회사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또 채용 시험에 응시해

보면서 아직 입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만으로 혼자 만족했던 시절이었다. 그렇다. 나도 당시엔 흔한 여성 경력 단절자였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나의 사회적인 경력을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삼십 대 초반의 아줌마였다.

나도 한때는 대학에서 푸른 꿈을 꾸는 눈이 총명한 명문대생이었다. 하지만 보통 여학생들이 그러하듯이 남자 친구를 만나면서 많은 꿈을 스스로 포기해갔다. 남자 친구는 우리 부모님이 사윗감으로 꿈꾸시는 속칭 ‘사’자 직업 종사자가 아닌 생물학도였다. 나는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러워 더 이상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비를 마련하겠다는 야무진 꿈을 안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다. 학교 안에 남학생 수가 월등히 많았으니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따져볼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항상 밤새워 실험하는 남자 친구가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했다. 내 공부는 포기했지만, 남편은 공부를 계속했으면 했다. 그런 내 의지를 강조한 덕에 남편은 카이스트 박사과정에 들어가 공부를 계속하였고,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였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갖게 되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잠시 쉬면서 새로운 문화도 접할 겸 남편의 NIH 박사 후 과정 생활을 함께하며 2년간 미국에서 지내다 돌아왔다.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근무하였던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제품 소개를 하러 온 영업 사원을 통해 오라클이라는 회사에 대해 알게 되었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오

픈 시스템에서 실행된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서 당시 여의도에 위치한 오라클 회사를 찾아가보기도 했다. 첫눈에도 얼마나 멋진 회사인지. 그때 나는 다음에 꼭 이 회사에 입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한국 오라클이 한국에서 고속 성장을 막 시작하던 해인 1995년, 공채 1호 신입, 경력 사원을 모집한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더 이상 내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사 원서를 내고 서울로 집을 옮겼다.

당시 난 미국에서 돌아와 생명공학 연구소에 자리 잡은 남편을 따라 대전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동안 다른 회사에 지원해서 1, 2차에 통과했을 때도 아이들을 두고 회사에 간다는 용기를 못내 무수히 고민하다 최종 면접을 포기했었는데, 오라클은 전부터 눈여겨본 회사여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 하늘의 도움이었는지 당시 큰아이의 경기 증세도 잠잠해지고 있었다. 남편도 나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 대전의 연구소 생활을 접고 서울에서 통근이 가능한 천안에 위치한 선문대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결혼 전 나를 하늘의 새처럼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지킨 것이었다. 이런 남편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남편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지원자였다.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 일, 일!**

오라클에 경력 사원(대리)으로 입사하여 데이터베이스 기술 지원을 맡게 되었는데, 그동안 일하고 싶어서 몸에 병이 날 정도였던 터라 나는 미친 듯이 공부했다. 일주일에 사

나홀을 새벽 3시에 일어나 공부를 시작하였다. 내가 한 가지를 더 깨우치면 더 나은 지식을 고객사에 전달할 수 있다는 사명감으로 가득한 시기였고 국가의 IT 산업에 이바지하겠다는 애국심 또한 충만하던 때였다.

2년간의 경력 공백기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IBM 시스템만 다루어왔다는 점 때문에 입사 초기에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제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으나, 나중에는 엔지니어 700여 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여섯 명으로 구성된 COE(Center of Expertise) 팀에서 일할 정도로 성장했다. 보통 엔지니어들은 한 과목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Internal Architecture(DSI) 여덟 과목을 스스로 공부하여 당시 내부 엔지니어들과 주요 고객 대상으로 강의도 진행하였다. 고객들로부터 받는 기술 평가나 만족도 점수는 대부분 만점에 가까웠다.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하다

오라클에서 기술 엔지니어로 9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 후, 당시 베리타스(현 시만텍)의 컨설팅 부서 이사로 일을 하다 2007년 한국 오라클에 상무로 재입사하였다. 베리타스는 당시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 중 4~6위를 오르내리는 큰 규모의 회사였다.

베리타스에 근무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큰아이를 미국의 기숙 학교에 보내게 되었다. 준비해주어야 할 게 너무 많았다. 미국의 기숙 학교에 보내기 위한 복잡한 지원 과정을 소화하려면

우선 미국의 학교 시스템을 이해해야 했다. 이때 내 일을 하느라 아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할 것 같아 회사에 사표를 내고 유학 준비에 올인해서 3주 만에 지원 준비를 마쳤고, 결국 원하는 고등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다. 지금은 두 아이 모두 미국 명문대에서 아빠의 뒤를 이어 생물학과와 의예과에서 공부하고 있다.

내 일을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보살피는 것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두 가지가 양립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한 부분을 위해 다른 부분은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시기에는 과감하게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한쪽에 신경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있어 든든하다.

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아이를 위해 직장을 완전히 포기한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부단히 나 자신과 싸웠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두 아이로부터 인정받는 떳떳한 엄마가 되었다.

오라클에 상무로 재입사하고 나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에서 다시 마음껏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잠도 오지 않았다. 항상 부지런히 걸어다니고 밥도 빨리 먹고, 대부분의 여직원이 그러하듯 남들보다 서너 배로 일하면서 꿈을 키워나갔다. 이 시점엔 남편도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더 이상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고 묻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책을 보고 동료들과 일하는 시간이 마냥 즐거울 따름이다.

오라클에 재입사할 때는 기술지원 서비스 본부에서 Presales Director(기술지원과 영업의 중간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항상 남을 배려하는 자세가 좋은 평가를 받아서 100명이 넘는 엔지니어들을 이끄는 오라클 기술지원 부서에서 5년 동안 엔지니어들의 수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 후 이제는 한국 오라클 고객지원 서비스 전체를 관할하는 부사장으로서는 우리나라 IT의 발전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력 강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

나의 인생 상반기에는 오라클에서 젊음을 모두 바쳐 일하였으니 하반기에는 또 다른 무언가를 하기 위해 방향을 찾고자 현재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대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예술과 문화 공부도



요즘 내 삶의 기쁨인 우리 집 강아지들

하고 역사 공부도 한다. 그리고 더 나이 들었을 때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동물에 관한 공부도 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가족의 구성원에는 강아지 두 마리도 포함되어 있다. 강아지는 골든 리트리버와 코카 스파니엘인데 이들은 내 삶의 또 다른 기쁨의 원천이다. 새벽에 두 강아지와 서울숲을 산책하면서 하루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의 하루가 시작된다.

밤새 앉아 책을 읽고 아침에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태양을 바라본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회사에 가기 위해 영동대교 위를 지날 때 비치는 햇살에 얼마나 큰 행복을 느끼는지. 일터로 향하는 나의 가슴은 여전히 벅차오른다.

Lim Misook

임미숙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전산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주)한국데이터통신을 거쳐 (주)휴먼컴퓨터에서 근무하다가 KT에서 현재 현장컨설팅센터장을 맡고 있다. 현장에서 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키우는 방면으로 경험이 풍부하다. 한국통신학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여성 R&D 고용포럼 간사,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나는 몇 번째 원숭이일까?

100번째 원숭이 효과

100번째 원숭이 효과에 대해 아는가? 우리 회사는 최근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문화 혁신의 필요성을 임원들에게 교육하면서 ‘100번째 원숭이 효과’에 대해 소개하였다.

일본 고지마 지역에 사는 야생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어떻게 먹는지 관찰한 연구가 있다. 원숭이들은 흙이 묻은 고구마를 그냥 먹거나 손으로 흙을 털어내고 먹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리 중에서 어린 암컷 원숭이가 고구마를 강물에 씻어 먹는 모습을 보고 그 또래와 어미 원숭이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다. 나이 든 원숭이와 대부분의 수컷들은 고구마를 씻지 않은 채 그대로 먹었지만 어린 원숭이와 암컷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그 수는 점점 늘어났다. 그러다가 고구마를 씻어 먹는 원숭이 수가 ‘100마리’가 넘어가자 어느 순간 갑자기 고지마 지역의 모든 원숭이가 고구마를 씻어 먹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지마에서 떨어진 이웃 섬에 사는 원숭이들까지도 고구마를 씻어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이얼 왓슨(Lyall Watson)이라는 생물학자는 아무런 접촉도 없던 원숭이들 사이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 행동을 ‘100번째 원숭이

효과'라고 불렀고, 이후부터 이 용어는 어떤 행위를 하는 개체의 수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중 전체에 순식간에 전파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다.

‘나이 든 수컷 원숭이’로 대변되는 기득권 세력, 즉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와 혁신은 힘 있게 추진될 수는 있지만 조직의 문화로 정착하지 못하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버린다. 그러나 아래에서부터 소통과 공유를 통해 전파되고 오랜 시간을 거쳐 발전하고 형성되는 조직 문화는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혁신을 일으킨다. 따라서 조직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어린 암컷 원숭이가 누구인지를 빨리 파악하고 이들을 통해 빠르게 변화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 내용의 핵심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하필 어린 암컷 원숭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례에서는 일본 학자들이 원숭이를 구분하기 위해 이름을 붙였고, 변화의 시발점이 된 원숭이는 ‘이모’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그렇다면 다른 경우에도 변화를 처음 시도한 혁신가가 기억되거나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왜 변화의 시작은 힘 없고 존재감 없던 어린 암컷이었던 것일까? 왜 기득권층은 그 변화를 무시했고 힘 없던 또래와 암컷 들만 따라했던 걸까?

원숭이들에게는 고구마를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성과 지표였을 것이다. ‘어떻게 더 위생적으로, 더 맛있게 먹는가’보다는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먹느냐’가 중요했을 것이다. 그때 어린 암컷 원숭이는 고구마 하나를 어렵게 차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고구마를 깨끗하게 씻어서 먹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즉 제한된 자원의

귀중함으로 인해 그 자원에 더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고 점점 사회가 그 가치를 인식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본다.

21세기가 되어 세상이 달라지면서 여러 게임의 규칙들이 변하고 있다는데 여성이 일하는 조직의 변화 속도는 여전히 더디게 느껴진다. 그러나 많은 여성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내가 27년 전 처음 취업 준비를 할 때나 22년 전 KT로 이직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많이 진전했다고 느낀다.

조만간 ‘100번째 원숭이’가 나타날 것 같다고 예상해본다.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묻는다. 난 몇 번째 원숭이일까? 난 무엇을 바꾸며 살아왔고 어떤 가치를 더하기 위해 일하고 있는가?

**여자는 채용하지
않는다던 회사**

1987년 겨울,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할 때였다. 그때 카이스트 국비 장학생들은 석사 졸업과 동시에 학교에서 추천하는 회사로 취업하여 2~3년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 많은 기업이 우수한 학생을 배정받기 위해 학교에 인사팀을 보내 설명회를 진행하곤 했는데 그해 모 기업 설명회에서 조그마한 소동이 발생했다. 그 기업은 연봉이 높고 복지도 좋다고 소문이 나서 많은 학생이 가고 싶어했고,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은 여학생과 남학생을 한 명씩 추천한 상태였다. 그러나 담당자가 카이스트 졸업생 중에 여자가 있는 줄 몰랐으며, 그 회사는 여성은 안 뽑으니 남학생으로만 두 명을 추천해달라고 한 것이다.

학교에서 추천받았던 여학생은 무척 당황하였고 교수님들은 이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셨다. 학교는 남녀를 구분하여 수업하지 않으며 똑같은 과정을 똑같이 평가하며 교육해서 졸업시키는데, 그 회사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거절한다면 학교는 그 회사로 아무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셨다. 결국 그해부터 해당 기업은 카이스트 전산학과 졸업생을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때 그 학생들은 다른 기업에 취업하였다.

이제는 법적으로 성별이나 연령으로 취업을 제한할 수 없다. 많은 기업에 여성들이 우수한 입사 성적으로 취업하고 있어 남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역차별론까지 대두하는 실정이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학교와 교수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 사회는 원래 그런 거라며 타협하지 않고 우리 여학생들을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재로서 인정하고 육성해주셨기에 그 이후에 사회에 나와 눈에 안 보이는 편견과 맞서 싸울 때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믿으며 전진해올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스로 '여자'라는 것을 부인하려고 했던 것 같다. "재는 여자가 아냐"라는 말이 최고의 칭찬이었던 그 시절, 남자들과 같이 활동하고 그들처럼 생각하며 성과는 1.5배 이상 내야 인정받던 그 시절, 남자들의 잘못은 개인의 실수로 치부되지만 여직원의 잘못은 언제나 여성 전체에 그 영향이 미쳤다. '네가 잘못하면 네 후배들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다'라는 협박을 받기 일쑤였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반짝반짝 빛나는 예쁘고 젊은 후배들이 해가 다르게 많이 승진하고 있다. 여자임을 포기하지 않고도 아니 그

여성성을 더 잘 발휘해서 한 걸음씩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본다.
예쁘다.

일하는 엄마는

졸업하고 2년 동안 대기업에 다니다가 학교

미안한 엄마?

선배의 권유로 벤처 기업으로 이직하였다.

카이스트 선후배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로 한

국 최초 DTP(Desk Top Publishing) 문방사우를

만든 (주)휴먼컴퓨터였다. 아래한글이나 워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휴먼
고딕, 휴먼옛체 등을 만든 회사이다.

휴먼컴퓨터에서 일하다가 KT 연구소에 다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첫아이까지 낳았는데 남편의 연구소가 대전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1990년대 초반은 국가정책으로 연구기관
의 지방 이전을 장려하여 많은 국공립 및 회사 연구소 들이 대전으로



2012년 KT 여성 리더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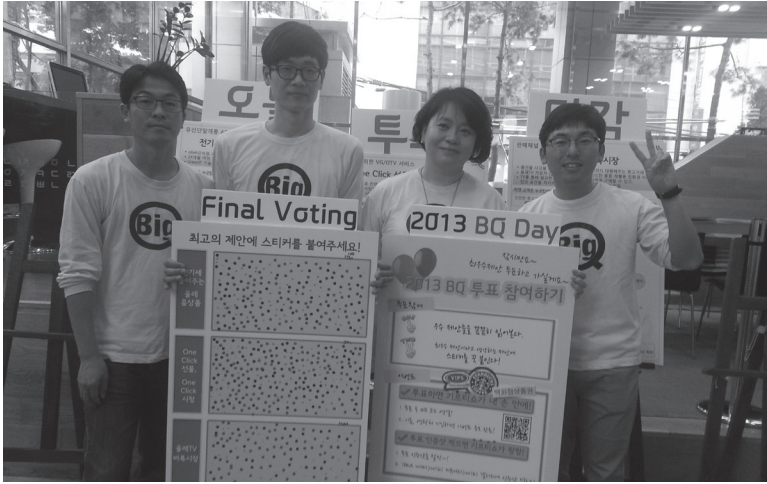
이전하던 시기였다.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내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주말 부부로 사는 것을 반대하셨고 나 또한 정년퇴직할 때까지 회사를 다니겠다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다행히 KT에서 연구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면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요즘은 이직을 통한 경력 관리가 보편적이지만 22년 전 KT로 이직을 할 때는 자주 회사를 옮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다. 더구나 5년 동안 두 번이나 이직을 했으니 면접관들에게는 별로 보기 좋지 않았나 보다. 면접관들은 모두 남자였는데 면접 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물었다.

“임미숙 씨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왜 직장을 계속 다니려고 하나요? 제 주변에 아이 두고 회사 다녔던 사람들은 지금 다 후회합니다. 아이 키우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었는데 돈 몇 푼 번다고 나왔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돌도 안 되어서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할 텐데 남의 손에 맡기고 직장 나오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자기 계발이라는 명분으로 아이를 두고 나가려는 비정한 엄마로 보였을까?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기에 세 번씩이나 직장을 옮기려는 건지 궁금했을까? 면접관들이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 나는 대답했다.

“저는 나라의 돈으로 석사 과정을 마쳤고 남자들과 동등하게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여자는 애 낳으면 집에서 애 봐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 전공을 좋아하고 우리나라



KT 아이디어 경진대회 행사에서

는 컴퓨터 분야에서 많은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나라와 사회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소중하고 아이에게 누구보다도 제일 좋은 사람은 엄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아이 때문에 회사를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한다면 아이를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저 아이 때문에 내 사회생활을 접었다고 원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두고 제가 회사를 다닌다면 전 아이를 볼 때마다 늘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에 더 잘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려서 물어볼 수는 없지만 아이는 어떤 엄마가 더 좋을까요? 자기 때문에 꿈을 접었다고 원망하는 엄마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엄마 중 누가 더 좋을까요?”

요즘은 해마다 받는 성차별·성희롱 예방 교육으로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이전의 나와 같은 질문을 입사 면접 때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아이들의 육아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엄마에게 더 크다 보니 일하는 엄마는 미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우아하게 그만두기

요즘 여성 과학계뿐만 아니라 고용업계의 화두는 고용 단절이다. 많은 여성이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워한다.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면 3년차쯤 슬럼프에 빠지거나 조직 생활과 직장 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될 수 있다. 그럴 때 진학이나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직 관점에서는 승진 제도를 통해 중단기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그런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도록 한다. 보통 그런 주기는 3~4년마다 오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에서 승진 시기를 3~4년 간격으로 두고 있다.

회사 내 직급 체제는 피라미드형이고 학교같이 모든 사람이 동시에 진급하거나 승진할 수는 없는 구조이기에 경쟁을 통해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 중견 관리자인 과장급까지는 본인 실력과 업무 능력이 승진의 제일 큰 조건이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리더십과 조직 관리라는 척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많은 여성의 갈등이 시작된다.

여성들이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시기가 예전에는 출산 직후가 많았는데 요즘은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과 중학교 입학 즈음에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직장 생활에서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과장급이나 부장급으로 승진하는 시기와 비슷할 때가 많아 퇴직에 대한 갈등은 더 커진다. 그 시기를 잘 보내고 나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엄마의 손이 필요한 학교 진학 시기에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하는 유리 천장이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내 업무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스스로도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육아나 아이 교육이 본인의 능력이 아닌 대외적인 사유로 그 만들 수 있는 좋은 핑계가 되든지도 모른다.

나도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다. 매일 회사에 나가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앞으로 가기 위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고



여성정보인 협회 시상식에서

마는 자전거처럼 무작정 달려야 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만둔다고 말해야 할지 적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나의 퇴직을 정당화시켜줄 이유가 필요했다. 우아하게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사유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능해서 이 사회에서 도망치는 것으로 비칠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명함인

필요 없는 삶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린다 그래튼(Linda Gratton) 교수는 최근 저작 『일의 미래』에서 미래는 80년 노동 시대로 이제 평생 직업은 없다고 말한다. 2000년 초부터 IT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로 일자리가 줄기 시작했고 한 직장, 한 직업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여러 직업, 여러 직장을 동시에 갖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인은 마치 사업하는 것처럼 개인의 커리어를 관리해야 한다.

더구나 IT 발달로 조직원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해져 지시를 전달하는 중간 관리직이 사라지고 전략과 노하우가 필요한 직군과 청소 등 단순직만 남아 양극화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제너럴리스트보다 스페셜리스트가 유리해지며 기술인들도 한 번 습득한 기술에 안주하지 않고 새 기술을 습득해 계속 발전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공간적 제약은 줄어드는 반면 변화를 미리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 사이의 격차는 더욱 커지며 준비를 하지 못한 자는 언젠가 노동 시장에서 소외 계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한다. 이제

우아하게 일을 그만두려는 꿈은 접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할 일을 찾아야만 하는 시기인 것이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존경하는 선배님은 ‘명함이 필요 없는 삶’을 실험해보고 있다고 하셨다. 조직과 직책을 나타내는 명함이 없어도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쉽게 알리고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셨다. 우스갯소리로 피겨 퀸 김연아같이 유명인이 되면 명함이 없어도 알아보니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이제 보니 그분은 이미 미래를 보시고 스스로 준비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 이야기한 ‘100번째 원숭이 현상’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어떤 행위를 하는 개체의 수가 일정 정도에 달하면 그 종 전체에 특정 행동이 순식간에 전파되는 불가사의한 현상. 과학자들은 원숭이 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고구마를 씻어 먹는 것이 분명히 혁신적이고 가치 있는 방법이었지만 이것이 모두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단순히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인정하는 개체들의 동참이 필요했던 것이다. 100번째 원숭이가 나타나는 순간처럼.

사회에서 여성이 일하는 방식, 그리고 일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방식은 계속해서 달라질 것이다. 그 변화는 지금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삶과 일의 균형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성들로 인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런 변화에 동참하는 한 사람이고 싶다. 곧 나타날 100번째 원숭이를 기다리는 90번째 원숭이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Huh Suejung

허수정



서강대학교 졸업 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전산학 석사 학위, 동 대학에서 물리학에 기반한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러트거스 뉴저지 주립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심장 시뮬레이션을 연구했다.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캐릭터 특수 효과 기술 감독으로 일했고,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연구소에서 물리학에 기반한 헤어 연구를 진행했으며, 코지마(Kojima) LA 스튜디오에서 물리학 게임 엔진을 개발했다. 현재 게임회사 'Ohhh!'를 창업 중이며, 재미 한국 여성 과학자 협회(kWiSE) 회원이다.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으로

경로 할인은

마흔 살부터?

마흔 살 정도 되는 아는 분이 어떤 카페에 들어갔다가 계산대에서 경로 우대 안내문을 발견하고 호기심이 발동했다고 한다. 그래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앳된 점원에게 물어봤다. 도대체 몇 살이 되면 경로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냐고. 전혀 감이 없어 보이는 점원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마 마흔 살이요? 하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처럼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경험치가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인식의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경험을 나눠야 가장 효과적일까 고민을 해보았다. 그러다 누군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라고 한 게 떠올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수와 모자람이라도,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혼란스러운 젊음,

그저 살아남았을 뿐

여학생들만 다니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을 때 남학생들과 같이 공부한

다는 설렘을 느끼기도 전에 나를 놀라게 한 것이 있었다.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충격적 진실이었다. 신문이나 방송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증언들을 접하면서, 그동안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도 들을 수 없었는지 이해할 만했다. 그렇게 퐁퐁 숨겨야 했을 만큼, 너무나 처참하고 놀라운 사실들이었다.

그렇게 충격 속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팝송을 외워 따라 부르고 나이트클럽에 다니고 남자 친구한테서 학보가 배달되었는지 따위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도 시위가 열릴 때면 구호를 외치곤 했다. 그들의 취지에 공감했지만 운동권이라고 부르기엔 미진했던 그때의 나는 뭐랄까, 뒤죽박죽 그 자체였다. 모든 젊음은 혼란스러워야 한다지만 젊음의 그 마땅한 혼란 이상으로 혼돈의 상황이었다. 데모하다 끌려가는 사람들이 어떤 수모를 겪는지, 데모하는 사람 중 누가 정부에서 꽃아놓은 프락치인지 등의 흉악하고 서글픈 이야기가 떠돌았다. 창문을 깨고 빌딩에서 투신하거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도서관에 앉아 공부나 하는 것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느껴졌다. 당시 젊은이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공부나 해도 되는지 갈등했다.

전두환 정권의 강압적 정치는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젊은이들이 지적으로 성숙할 기회 또한 말살시키는 이차 피해를 일으켰다. 전두환은 그 후로도 오래도록 내 생각의 화두가 되었다. 전두환 정권 이전에는 박정희 정권이였다. 박정희 정권 당시 대중은 헌법을 바꿔가며 독재를 이어가는 박정희 대통령에 지친 터였다. 전두환은 아마 그런 대중의 마음을 읽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는

그의 야욕을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버렸다.

그는 한 사람의 잘못된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행복을 앗아가고 역사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제 얼마나 더 오랜 세월을 거쳐야 그 트라우마를 거둘 수 있을까.

**실패를 딛고
꿈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

암흑의 시기를 보내는 동안 어느새 졸업이 닥쳐왔다. 나는 카이스트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에 다녔다. 새벽녘에 집을 나서다가 같은 동네에 살던 이모와 마주

친 적이 있다.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에베레스트를 등산해도 될 정도로 중무장한 채 도서관으로 향하던 나에게 이모는 예쁘게 꾸며도 모자랄 나이에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셨다. 나중에 후회할까 봐 그런다고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가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그렇게 공부할 여건이 되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하러 다녔지만, 사실 우습게도 카이스트 대학원 시험을 위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었다. 그 당시 카이스트 대학원 입시는 과목 이름만 알려졌을 뿐 전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이었다. 그래서 무작정 원서를 쌓아 놓고 정신없이 공부했던 기억이 난다. 족보도 없이 준비해서였는지 진학은 좌절되었다.

그 후 유학을 준비하면서 많은 학생이 그러하듯 『Vocabulary 33000』이라는 책으로 영어 단어 공부를 시작했다. 한 페이지에 백 개 이상 뺄뺄하게 나열된 단어들을 외워도 다음 날 확인해보면 몇 개밖에 기억나지 않는 일이 허다했다. 그래도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고 또 외우기를 열 번 정도 반복하고 나니 어느 정도 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영어 문장을 이해하는 속도도 빨라졌다. 분위기 파악만 해보자는 생각으로 처음 GRE 시험을 보던 날, 첫 교시를 마치고 중간 휴식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 한숨을 쉬었다. 하나같이 어려웠다는 푸념이었다.

그렇게 어렵기만 했던 시험도 꾸준히 준비하다 보니 안정권의 점수가 나왔다. GRE는 미국 학생들이 대학원에 가기 위해 학력을 측정하는 시험인데, 미국에 한 발도 디더본 적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언어 능력 측정에서 좋은 점수가 나왔으니 세상에 불가능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위를 받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는 소위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이다. 처음에 입학 허가를 받았을 때는 거기 가서 과연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웠다. 하지만 카이스트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며 읽어왔던 원서들 덕분인지, 공부는 어렵다기보다 오히려 재밌었다. 그래서였는지 석사과정을 한 학기 마치고 여러 과목의 교수님들로부터 박사과정 학생으로 뽑고 싶다는 러브콜을 받았다. 그중에 처음으로 나를 알아봐주신 선생님 밑에서 석사과정 8개월 만에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지원받는 박사과정 학생이 되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이런 경우인지. 예전에 차곡차곡 쌓았던 것들이 미처 생각하지

도 못한 곳에서 쓰이면서 억울했던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동안의 모든 상처가 위로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주 충분한 위로였다.

**지난했던 과정이
열어준 감사한
기회들** 공부할 수 있는 처지라는 것에 항상 감사함을 느꼈다. 낯선 사회, 어리숙한 언어 등의 이유로 주눅이 들 때도 있었지만, 다행히 공부하는 재미가 더 컸다.

졸업 후 연구교수로 있던 중 9·11 테러 사건이 터지고, 국방 보안 분야 이외의 연구비가 축소되면서 뜻하지 않게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그 후 디즈니에서 새롭게 만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취직하게 되었으니, 학교에만 10년 가까이 있었던 나로서는 참으로 가슴 떨리는 변화였다.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실제 영화에 쓰일 만한 실용적 연구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다. 스튜디오에서 직접 일해보기 전, 상상과 이론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었다.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스튜디오 환경에서 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연구소에서 헤어 애니메이션 기술을 개발한 뒤에는 메탈 기어 솔리드라는 게임을 만드는 코지마라는 회사에서 엔진 기술을 개발하였다.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연구소 당시 수학과 교수와 협력하여 연구하던 기술이 있었는데, 코지마 측에서 고용 조건으로 허락해준 덕분에 회사를 옮긴 후에도 계속 협력 개발을 할 수 있었다. 자기 분야에서 쟁쟁한 분들과 협력하며 새로운 기술을 만

들어내는 과정은 정말 신비롭고 즐거웠다. 그동안 협력 연구는 많이 해봤지만 연구 자체의 즐거움은 이때 가장 많이 느꼈다. 그때까지의 지난했던 과정이 또다시 모두 보답받는 듯한 기분이었다. 당시 코지마에 출근하는 상황이었기에 연구는 퇴근 후에 진행되었고, 연구를 위해 모든 휴가와 휴일을 반납해야 했다. 피곤하기는 했지만 일하는 것이 재밌어서 잠들기 싫을 만큼 들떠 있었다.

최근 나는 창업을 위해 독립한 상태이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두근대는 가슴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쿵푸팬더 캐릭터와 함께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캠퍼스에서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의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는 각자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경험했다. 많은 사람이 아이 잃은 부모 마음에 빙의되어 가슴

을 찼다.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공개된 녹음된 대화를 들어보면, 침몰 이후의 긴박했던 상황에서 오갔던 책임자들의 대화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감도 느낄 수 없다. 자기들 손끝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너무나 태연하게 엉뚱한 지시와 보고를 주고받고 있었다. 우리가 바짝바짝 타는 입술로 구조되길 간절히 기도하던 그 시간, 실제 구조 권한과 행정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깨닫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 냉철한 판단력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의 중요성을, 그것이 어찌면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은 늦게야 깨달았다.

살다 보니 ‘세상 모든 아이가 좀 더 살 만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임했다라면 더 잘 풀렸을 것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다. 여성들이 발전소를 만들고 다리를 만들고 배를 만든다면 웬지 더 믿음이 갈 것 같다. 그래서 여성들이 좀 더 용기를 내서 세상에 나서줬으면 하는 욕심이 있다. 오로지 남자들에게만 세상을 맡겨 놓기엔 어딘지 불안하다. 함께 조화를 이루어 좀 덜 이기적이고, 더 살만하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를 꿈꾼다.

잠드는 시간이
아까울 만큼
재밌는 세상

돌아보니 그동안 나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온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력이 쌓였다. 하지만 꼭 원하던 대로만 살아온 것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밀려 만들어진 길도 있었으나 가보면 거기에 또 새로운 길이 있었고, 그 길이 내가 원했던 길보다 오히려 더 나은 길이었던 적도 있었다. 실패 후에는 새로운 문이 열렸고 사회의 부조리, 갈등, 나 자신의 한계는 오히려 나를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힘을 내서 다행이다.

잠드는 시간이 아까울 만큼 재밌는 것들이 가득 찬 세상에 태어났으니 나는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가. 열심히 열어보고 두드려보며 살아가고 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하겠지만, 가는 그 순간 “와, 정말 끝내주게 재밌었어!”하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건축
교통

신경선
/
아직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3

이옥화
/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정재희
/
가슴 뛰는 삶을
살자

조혜진
/
새로운 도전을
사랑하라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Shin Kyungsun, a woman with short dark hair and glasses, wearing a dark blazer over a light-colored button-down shirt. She is standing in a library or office with bookshelves filled with books and binders in the background. Her arms are crossed, and she has a slight smile.

Shin Kyungsun

신경선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을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 중이다. 1997년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7년 건축사무소 SND.I ARCHITECTS 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와 동아시아언스가 공동 주관하는 2014 희망멘토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선정되었다.

건설교통부 중앙건설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 기술혁신평가단,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서울여성가족재단 시설인증사업단,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법원감정인 등 폭넓은 대외 활동을 해왔으며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여성 건축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아직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1분기.

폼 나게 시작하다

건축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24년이나 되었다. 24년……. 거꾸로 세어보다 픽 웃음이 나온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 건축학과를 선택한 것은 여자가 건축을 한다고 하면 남들이 멋지게 볼 것 같아서였다. 당시만 해도 공대에서 여학생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결혼 후에는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미덕이었던 때라 지금의 내 모습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그 우연한 선택이 내 인생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까지 거처온 과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 정글 같은 세상에 던져진 지 벌써 24년. 시간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다. 생각해보니 나의 건축 인생은 대체로 4분기로 나뉘는 것 같다.

건축의 길로 들어선 계기는 아주 단순했다. 대학 입시 원서를 쓸 즈음, 같은 반 친구가 건축학과에 지원한다고 하기에 “재밌겠다!” 하며 따라 지원하게 되었다. 이공계 전공 중에서 건축학과는 타 학과보다 여성에게 적합해 보였고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았다. 막연하게 건축가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니 화통을 어깨에 메고 다니며 도면을 쓱쓱 그리면서 멋진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

를 쓰고 씩씩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상상되었다. 그렇게 막연한 로망을 가슴에 담고 나의 건축 인생을 폼 나게 시작하였다.

내가 입학하기 전 나의 모교는 건축학과 재학생 240명 중 여학생은 단 세 명이었기에, 신입생 80명 중 여학생이 일곱 명이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센세이션이었다.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입학해서 실제로 건축에 대해 배우다 보니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었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고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대학에서 학문의 즐거움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다른 학생들이 설계 과제로 한 장을 해올 때 나는 10장을 제출했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 우연히 선택했던 전공은 운명처럼 나의 인생이 되었다.

이십 대에는 가슴속에 알 수 없는 열정이 가득했다. 스스로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체를 알 수 없었고 그 열정을 어떻게 분출해야 할지 잘 몰라서 힘들었다. 어떻게든 가슴속에 있는 무언가를 다 끄집어내고 싶은 마음에 각종 공모전에 참가했다. 설계 스튜디오에서 같은 과 친구들과 며칠씩 밤을 지새우면서 과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새벽길은 늘 꿈결처럼 달콤했고 한 치 앞을 가로막던 새벽안개 냄새는 황홀했다. 어디에서나 환영받는 학창 시절을 보내며 핑크빛 미래를 꿈꿨다.

2분기.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학부 3학년
단지 여자라는 때부터 방학마다 이름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이유로 실습도 했고 나름대로 마당발이라고 생각했

기에 취직하기 힘들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당시 건축학과 학생들은 실습이 끝난 뒤에 실습했던 사무실로 대부분 취직했다. 하지만 나는 실습했던 설계사무실에서 이유도 모른 채 불합격 통보를 받아야 했다. 나중에 들어보니 사무실에 남자밖에 없는 데다 거의 매일 같이 철야 작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여자는 버틸 수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게 불합격의 이유였다. 업무 특성상 철야 근무가 많아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축사사무소가 당시에는 허다했다.

답답한 마음에 취업 소개를 부탁하러 찾아간 학교 선배의 말이 나를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다. “너도 생각을 해봐라. 지방 출장을 가도 여직원이 있으면 방을 두 개 빌려야 하고 허구한 날 야근에 다들 줄담배를 피우는데 어떤 설계사무소가 불편하게 여자를 뽑겠냐? 일찌감치 시집이나 가라.” 사람들은 여자와 한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거부했던 거였다. 그때부터 나는 페미니스트의 일선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았다. 예상보다 사회의 장벽은 높았고 졸업 후의 현실은 차갑기만 했다.

졸업하고도 몇 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첫 직장의 대표는 외국에서 공부를 마친 뒤 막 귀국한 분으로 다행히 여직원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 여러 번의 좌절을 겪은 후에 얻은 귀한 일자리이다 보니 여성에 대한 타인의 편견을 깨기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그건 건축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십 대 후반에 결혼을 하면서 새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다. 설계실 직원만 250명 남짓 되는, 당시 국내에서 최고로 알아주던 대형 설

계사무소였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이 많아서였을까? 일 자체보다는 사람들의 무관심이 견디기 힘들었다. 처음 두 달간은 매일 혼자 밥을 먹어야 했다. 아무도 같이 밥 먹자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전용 식당이 있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같은 부서의 팀장조차도, 나중에 누군가는 “당연하지. 누가 아줌마한테 관심이 있겠어?”라고 했다. 그때만 해도 흔치 않았던 유부녀 직원에게 관심을 둘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 생각해 보면 너무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개인주의적 집단이었다. 결국 무관심에 사무처서 그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건축에 대한 나의 지치지 않는 짝사랑이 날 그만두게 놔주지 않았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회식 자리나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꼭 받는 질문이 있었다. “애는 누가 보나요? 남편이 괜찮대요? 애 엄마가 빨리 집에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약간은 죄지은 기분으로 이리이러하다 답해주곤 했다. 이런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여자들이라면 그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살림하라, 아이 기르라, 일하라. 한때는 진저리가 나서 다 때려치우고 살림이나 할까, 좀 더 편한 직업으로 바꿀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애는 애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나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끊임없이 외쳐댔다. 하지만 난 지고 싶지 않았다.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던 해에 IMF가 터지면서 근무하던 건축사 사무소가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남편 역시 회사에 붙어닥친 한차례 구조조정 이후 제주도로 발령이 났다.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도 없는 상황이었던 데다 아이가 한창 자라는 시기이다 보니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가기로 결정했다. 3년간의 제주도 생활은 우리 가족에게 풍요로운 시간이었다. 그동안 엄마가 누군지 늘 헛갈려하던 아이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고 가족을 위해 매일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그러는 동안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낮 시간에는 스쿠버다이빙을 배우면서 그동안의 정신없던 삶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다. 편안한 일상에 익숙해지면서 건축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졌다. 거의 매일 야근하고 집에 와서는 쉴 틈도 없이 집안일을 하면서 아기도 돌봐야 하고, 월급도 적었던 시간을 되돌아보니 전공을 바꾸고만 싶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이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3년간의 제주도 생활을 마친 뒤 아이 손을 잡아끌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

3분기.

정글 속에 던져지다

고난의 연속이었던 삼십 대 시절이었다. 몇 년 전 우여곡절 끝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독립을 결심했다. 국내 건축 경기가 악화된 지 꽤 된 상황에서 고질적인 건축계의 운영 구조 문제로 많은 건축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나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활로를 찾았다.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배들이 여전히 나에게 던지는 말이 있었다. “여자가 되겠어? 어려울걸.” “좋겠다. 년 안 되면 살림이나

하면 되잖아!” 하지만 나는 이렇게 답한다. “모르시는 말씀! 너나 잘 하세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 내 후배들은 나와 같은 가시밭길을 걷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또 다른 시도와 도전을 감행하고 있다. 여전히 사회에는 편견이 존재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이 엄마라는 이유로 배척당하지 않는다. 나는 최전선에 서 있었기에 큰 물결을 넘어야 했지만, 그 역시 나름대로의 스틸과 쾌감이 있었다. 얼마나 많은 프로페셔널 아줌마들이 당당히 제 몫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이제는 시대에 뒤쳐진 사람들이나 그런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일전에 한 선배를 만나 60년대에 건축을 전공했던 대선배님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듣게 되었다. 그 선배님은 건축을 열렬히 사랑했지만 우리 사회가 세워둔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매일 동네 공사 현장에 혼자 아이를 업고 나가 자체 감리를 하며 마음을 달래야 했다면서 마루 밑에 빼곡히 챙겨둔 도면과 스케치 들을 보여주시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다. 얼마나 일하고 싶었을까? 지금은 여든 살에 가까운 대선배님이시니 당시의 시대 상황은 더 열악했을 것이다. 거친 건축계에 여성이, 그것도 애 엄마가 진출하려면 얼마나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했는지 충분히 짐작되었다. 그때에 비하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세상을 바꾸며 앞서간 선배들에게 감사할 뿐이다.

먹고 먹히는 이 정글 같은 세상이 아름다운 건 도전할 가치와 정복할 수 있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란단다. 그렇다. 나 역시 힘들었다. 포

기하고 싶을 때도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울림은 바로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훌쩍 반해서 헤어날 수 없는 건축을 향한 열정이었다. 그게 짝사랑이든 이를 수 없는 사랑이든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남들이 수도 없이 안될 거라고 기를 죽였지만 나는 입을 앙다물고 할 수 있다고 스스로 격려했다.

밤늦은 퇴근길, 그새 부쩍 자라 초등학생이 된 아들 녀석이 내게 말했다. “엄마는 너무 멋있어! 엄마 일에 성공했잖아. 아니, 성공하려고 있고 있잖아.” 열 살짜리 녀석이 뭘 알까마는 그런들 어떻겠는가? 아들이 멋있다면 된 거지.

4분기.

빛을 따라서

두려움을 가슴에 안고 개업한 지 벌써 8년이 지났다. 개업을 결심할 무렵에는 그동안 받기만 하던 월급을 이제는 내가 줘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개업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보다 많은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요즘의 나는 삼십 대 시절보다 훨씬 바쁜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과거 건축사의 고유 업무는 건축설계, 감리였지만 지금은 건축사의 업무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나의 업무 분야 역시 건축설계뿐 아니라 감리, 인테리어, 건축물 감정, 관공서 위촉 업무 등이다.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여러 건축 관련 단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어딘가에선 학

생으로서 어딘가에선 교수로서 중횡무진하고 있다.

건축사사무소 에스앤디아이는 2007년도에 문을 열었으며 설계 주력 분야는 고급 주거, 일반 건축물 설계로 그중 주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인테리어, 가구, 조명, 조경, 광고판, 오브제 등 토탈 아트의 개념을 가지고 모든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단순히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디자인 접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연의 형태와 경험에서 오는 스토리, 이미지를 추구한다.



백운 파출소 현장설계를 진행하였다.

건축사에게 폭넓고 다양한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아이를 기르면서 필수적으로 접하게 되었던 유치원, 체육관, 전시장, 병원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한 경험이 지금은 나에게 소중한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제주에서의 휴식기는 건축사로서의 역량을 오히려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물을 좋아해서 스쿠버다이빙을 배웠는데 그때 바닷속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건축 작업에 영감을 주고 있다. 우리는 평소 지상에서만 살기 때문에 공간을 2차원으로 인식하는 데 익숙하다. 하지만 바닷속에서는 3차원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스쿠버다이빙은 대자연과 가슴 깊이 조우하는 매우 색다르고 매력적인 경험이었고 공간에 대한 사고 방식이 달라질 만큼 강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



제주 서귀포 문섬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했던 경험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건축은 공간, 문화, 장소를 다루는 섬세하고도 책임감 있는 작업이어야 하고 그것은 건축사로서의 직업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건축물에 다정한 마음을 담고자 한다. 공간을 섬세하게 배려해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와 편안함을 제공하려 하고 오래 머물고 싶은 친근한 건물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석사 논문 주제였던 ‘건축과 조경이 융합된 건축물’이다. 그동안 건축물 주변부에 머무르던 조경을 본격적인 건축물 외장재로서 제안하고 건축물 내부의 단순한 식재나 차경 역할에서 벗어나 기능적으로, 공간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시도할 기회가 없었지만 현재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 조경과 건축물의 조화를 통해 향후 친환경 건축으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국내에서 활성화되도록 공간 디자인, 기술적 도입 방안 등을 제안해서 그 분야 건축 전문가가 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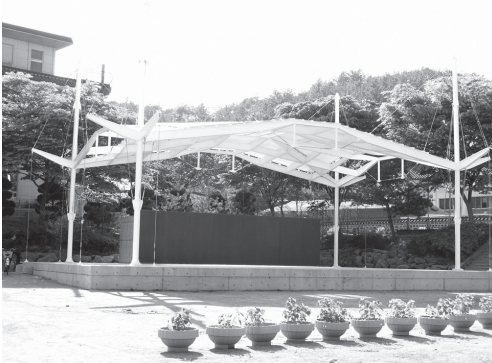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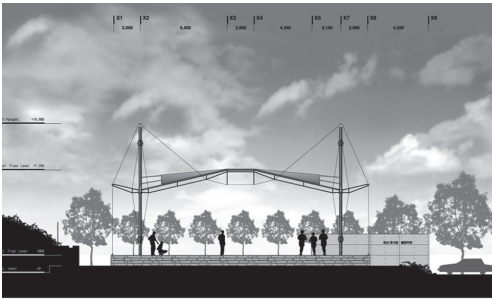
사실 아직까지도 대표작을 내세우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부끄럽다. 현재는 꾸준한 도전과 시도를 통해 여전히 성장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대구 동아백화점 반월당점 리모델링, 서천군 한산모시관 야외무대 설계, 김포 상공회의소 계획을 소개할 수는 있겠다. (이 프로젝트들은 에스앤디아이 건축사사무소와의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동아백화점 리모델링은 기존 쇼핑센터의 외관을 개선하는 공사로 리모델링의 특성상 구조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벼운 점토질 건식 판넬 공법으로 설계하였다. 6개월의 공사 기간 내내 매주 KTX



대구 동아백화점 반월당점 리모델링

를 타고 대구로 출장을 다니면서 나뭇대로 공을 들인 만족스러운 작업이었다. 서천군 한산모시관 야외무대는 서천군청의 의뢰로 투명하고 가벼운 한산모시의 특성을 콘셉트로 잡고 설계하였다. 날렵하고 슬림한 스틸 프레임(steel frame) 기둥에 백색 막구조 지붕을 케이블로 연결하여 한산모시의 이미지를 잘 나타냈다. 준공 이후 평가가 제법 좋았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 김포상공회의소는 계약에서 납품까지 3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렸는데 경



서천군 한산모시관 야외무대



김포 상공회의소(2008)

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주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결국은 착공하지 못한 채 계획안으로 남게 되어 여러모로 아쉬움이 크다.

이처럼 건축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미수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작업의 70~80퍼센트가 프로모션이다 보니 사무실을 유지하고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애로 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 설계라는 작업은 오랜 고통의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 수없이 설계를 변경하고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공을 들여야만 내실을 갖출 수 있다. 마침내 상상 속의 설계안이 현실로 구체화되고 디자인에 대한 확신

이 만족스러운 결과로 입증되었을 때, 그 희열과 성취감은 해갈로 다가오곤 한다.

학창 시절, 건축에 입문하던 첫해에 들었던 건축학 개론 수업이 기억난다. 교수님께서 건축가로서 갖추어야 하는 여러 가지 자질에 대해 설명하실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끈기 있게 설득하고 고집을 굽히지 않으며 일을 완성해나가는 능력’이 으뜸이라고 하셔서 다들 웃었다. 틀린 말씀이 아닌 것이 몇 해 전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직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문직 중 가장 많이 공부해야 하고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가장 연봉이 적고 가장 수명이 짧은 직업 1위로 건축사가 뽑혔다. 참으로 공감 가는 부분이다.

나 역시 건축사로서의 성장기에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 다른 여성 건축사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나만 이렇게 고생스러운지 항상 궁금했고 의지할 동료가 필요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성 건축가를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게 됐고 이제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많다. 건축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힘든 고비가 닥쳐와 산 넘어 산일지라도 피해 가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이 풍부할수록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넓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꿈은 크게 품어야 80퍼센트라도 달성한다. 철없던 어린 시절에는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상징적인 건축물을 설계하는 내 모습을 꿈꾸었다. 사십 대 중반을 넘어선 지금은 현실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앞으로 나 자신이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스스로 되묻는다.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은 것이 문제다. 이제는 무엇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고생을 감내할 자신이 없을 만큼 지치고 의욕을 상실했을 때, 어느 사진작가의 작품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사진은 어둠 속에 던져진 한 줄기 빛에게 묻고 있었다. “여기가 끝이냐?” 빛이 대답했다. “여기가 시작이다!” 빛은 아직 더 갈 곳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으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나는 달려간다.

Lee Okhwa

이애화



인천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주)에이치오엠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과 에이치오엠 도시환경디자인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시 재정비위원, 도시건축위원, 건축위원 등으로 활동했고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자문위원,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종로구 건축위원, 대한여성건축사회 수석부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주거복지위원장, UIA 2017 SEOUL 조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의

첫 번째 선택

살다 보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수없이 서게 된다. 넓게는 진로, 배우자, 직장 등을 선택해야 하고 좁게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인지 누구와 점심을 먹을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곁에는 크고 작은 선택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 그 선택 중에는 오로지 나 스스로 선택한 것도 있지만 나와는 상관없이 부모님, 친구, 직장 상사 등 다른 이들의 영향으로 선택한 것도 있다. 물론 다른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도 내가 선택해야 할 몫이다.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마다 어려워한다.

나는 어렸을 때 참으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다. 장손 집안에서 딸부자 집의 맏딸로 태어나 유달리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나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교직자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으로 청소년기를 보냈다. 항상 내 생활기록부의 장래희망란에는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다 고3 올라갈 무렵 아버지의 사업이 힘들어져서 아버지께서 외국에 나가게 되셨고 어머니, 나와 동생들은 아버지와 떨어져 있어야 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며 오히려 나는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방황하고 있던 어느 날 친한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건설 쪽 일을 하고 계시는 친구의 아버님을 뵙게 되었다. 그런데 친구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여자들이 전문직으로 평생 일하기에 건축사가 참으로 매력 있는 직업일 것 같다며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셨다. 본인이 직접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내가 그런 집이 실제로 만들어진다니. 그 순간 나는 그림 그릴 때가 가장 행복하고 수학 과목을 제일 좋아하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건축은 나한테 꼭 맞는 일이라는 느낌이 왔다. 나는 주저 없이 '건축'을 꼭 하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좋아하는 일에 미친다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그 하고 싶은 일에 미칠 수 있다는 것 또한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가. 건축을 하겠다고 마음을 정한 이후 나는 자신 있게 원하는 대학의 건축학과에 지원했다. 그러나 결과는 낙방이었다. 원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다. 첫 번째 입시에서 떨어진 후 나는 건축이 더욱 하고 싶어졌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건축학과에는 꼭 가야 한다는

마음이었고 결국 후기대학으로 건축학과에 들어갔다.

나중에 아버지께서 해외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후 내가 아버지 몰래 건축학과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건축을 정말 하고 싶어서 선택했으니 아버지께서도 나의 선택을 믿어달라고 당당히 말씀드렸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건축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려 무던히 애썼다. 그래서인지 아버지께서는 묵묵히 나를 지켜보시다가 결국에는 내가 건축을 계속하는 데 가장 큰 지원자가 되어주셨다. 그러나 지금도 가끔 술 한잔 드시면 네가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움을 내비치신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의 바람은 비슷한 것 같다.

지금 돌이켜봐도 대학 4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다. 설계한다고 밤이고 낮이고 학교에서 살았고, 방학이면 설계공모전 때문에 작업실에서 살았다. 좋아하는 일에 미쳐 있는 한 명의 젊은이였다. 내 선택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고 그것에 빠져 있는 내가 좋았다. 내성적이었던 나는 공대에 다니면서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건축을 통해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공간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행복했다.

졸업 후 교수님의 추천으로 건축사사무소에 취직한 나는 실제로 건물을 설계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부풀었다. 그리고 3년은 실무를 익혀야 한다는 선배들의 말을 기억하며 열심히 일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건축에 대해 배워야 할 것은 모두 이때 배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과연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몇 명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또 그것에 빠져 있을까. 공부든 사랑이든 아무런 조건 없이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미칠 수 있는 시기는 인생에서 잠깐뿐이다. 그 사실을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간 후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일과 가정의 방정식

요즘 대중 매체를 통해서 결혼 적령기가 점점 늦어지며 결혼을 안 하려는 젊은이들이 늘어간다는 소식을 종종 접한다. 결혼과 육아가 일에 방해된다는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특히 일하는 여자들에게 결혼, 가정, 육아 문제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전문직 여성으로서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안 가져본 사람은 없으리라.

일에 미쳐 있던 젊은 시절, 나 또한 결혼은 생각할 수 없었다. 건축을 하면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오로지 이 일을 평생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일하는 여성에게 과도한 사치처럼 생각되었다. 일과 결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면 당연히 일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내가 평생 건축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지금도 남편은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가장 큰 후원자이다.

결혼을 생각지 않았던 나는 오히려 결혼을 하면서 결혼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누군가 옆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심리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될 줄이야. 한없이 완벽할 것 같았던 내가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일만 하는 며느리와 딸을 자랑스러워해주시고 본인의 시간을 거의 다 쏟아부으시며 손주들을 돌봐 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하고 부끄럽기만 하다. 공대 나온 여자가, 그것도 남자가 대부분인 건축이란 세계에서 지금까지 손에서 일을 놓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소중한 가족 덕이다. 그들이 없었더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오랫동안 항상 가정보다 일을 우선시했던 나는 요즘에야 이 고마움을 새삼 느끼며 가정을 돌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미 아이들은 훌쩍 커 있고 부모님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힘들어하신다. 그런데 나는 아주 이기적이게도 가끔 내가 일을 안 하고 집에 있었더라면 아이들이 더 잘 컸을까,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있었더라면 유학도 가고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의 나는 우리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이 주는 따뜻함과 편안함이 나를 더욱 행복하게 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일과 가정이 각각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었을 때, 일도 가정도 빛나는 게 아닐까.

전문가로
살아간다는 것

이십 대의 나는 설계하는 것을 좋아하기만 했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지는 않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무모할 정도로 대책이 없었던 게 아니었나 싶어 부끄럽기까지 하다. 그러다 보니 건축 자격증을 따는 것이나 사무실을 내는 것 등에 대해 어느 하나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IMF 때문에 다니던 사무실이 힘들어져 공부할 시간이 생기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까지 건축사 시험 한 번 못 봤을 것이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5년 동안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하면 건축사 시험을 볼 자격이 생겼다. 다행히 공부를 열심히 한 덕인지 운이 좋았는지 한 번에 건축사 시험에 붙을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어느 날 입사해서 처음으로 현상설계가 당선되었던 건물이 지어진 곳에 갈 기회가 있었다. 5년도 더 된 프로젝트였는데 그동안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지어진 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참으로 설레는 맘으로 갔는데 결과는 대 실망이었다. 내가 설계했을 때 상상한 모습은 이것이 아니었다. 공간의 비례나 건물의 디테일 등이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충격이었다. 물론 건축 초년생의 경험 부족 탓도 있었겠지만 당시 나는 큰 혼란에 빠졌다.

나는 과연 무슨 건축을 기대하며 작업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 순간 너무도 자신만만했던 나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그렇게 좋아하던 건축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 과연 내가 건축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생겼다. 개인적인 만족감만으로 평생 일하기에 건축은 많은 사람에게 공간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다. 주

변과 어울리는지 살피고 불편한 것은 없을까,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물로 남을 수 있을까 예측해야 한다. 설계, 시공, 관리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야 내가 원하던 건축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건축을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집을 그리고 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작업이었던 것이다.

그렇게도 자신감이 있었건만 하루아침에 나는 자신감을 잃고 자신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지금 건축 전문가로서 자격이 있는가. 스물아홉 살의 방황하는 나는 영락없는 사춘기 아이와도 같았다. 이때 다짐했다. 앞으로 내가 설계한 건물은 시공할 때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가 되리라 .



일진에너지 홍보관 준공 시 점검하는 모습

또 하나의
도전

건축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빠져리게 느낀 나는 그때부터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느껴야 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실감했으니 말이다.

때마침 뉴욕에서 일하던 선배의 권유로 미국에 갈 기회가 생겼다. 더 넓은 세상에 가서 보고 느끼고 싶다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뉴욕 맨해튼의 구겐하임 미술관 앞에서

남편의 고마운 배려로 나는 하던 일을 정리하고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아들을 시부모님께 맡겨두고 무작정 떠나 오로지 나를 위해 시간을 보냈다는 게 너무도 미안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게 한 밑거름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정말 감사하고 미안할 따름이다.

그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기에 때로는 삶에 대해서 때로는 건축에 대해서 생각하고, 새로운 것들을 보고 느끼며 미래를 구상할 수 있었다. 계속 미국에 머물면서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도 하였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한국에서 진행될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주저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빨리 건축을 하고 싶었다. 더 이상의 고민과



싱가포르로 도시 견학을 갔을 때 마리나 베이 샌즈 앞에서

방황은 없으리라 다짐하고 좀 더 성숙한 전문가가 될 내 모습을 꿈꾸었다. 그 이후 나는 다양한 경험을 쌓은 뒤 나의 사무실을 차렸다.

물론 모든 준비를 완벽히 끝낸 CEO는 아니었지만, 마음먹은 순간 망설임 없이 사무실을 열었다. 그 덕분에 지금 나는 12년째 건축사사무소 대표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힘들어도 경험하라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다. 생로병사에 울고 웃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사실 요즘 세상에 어느 누가 고생을 사서 하려 하겠는가. 예전에야 다들 먹고살기 힘든 시절이었으니 고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거의 해결되고 있으니 가급적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돈 주고 사서 고생을 하라고 했을 만큼 젊었을 때의 경험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힘들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다. 힘들수록 원칙과 기본을 잊지 말고 지키라는 말이다. 이 또한 참으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다.

나도 아직 긴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나의 이삼십 대를 돌아보면서 선조들이 하신 이 말씀들의 의미를 피부로 느낀다. 그때는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다시 원칙과 기본을 따지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여유 없이 항상 맘이 급하기만 했다. 지금 당장이 중요한 이 시국에 어찌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경험

이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한 힘들어도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100년 이상 지탱해온 건축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을 설계하고 공사하는 데 길어야 2~3년 걸린다. 우리나라가 LTE급 초스피드 국가여서 그런지 선진국보다 급하게 건물을 완성시키는 것 같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 이상 작업한 설계를 가지고 몇십 년은 서 있어야 할 건축물을 만든다. 이렇게 건축물을 설계하려니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간에 쫓기느라 바쁘고 힘들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머무를 곳이기 때



멕시코시티에 있는 리카르도 레고레타가 설계한 카미노 레알 호텔 앞에서

문에 그럴수록 더 신중하게 원칙을 지키며 기본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나도 이러한 생각을 처음부터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물론 책이나 선생님들께 배워서 머리로 알고는 있었지만 와 닿지는 않았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지금 내가 이렇게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일하며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일을 하다 보면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건축주를 만날 수도 있고 설계하기 어려운 대지를 만날 수도 있다. 내가 알 수 없는 요소가 항상 주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작업이 건축이다.

내가 자주 쓰는 말이 있다. “일단 해보자.” 힘들 것 같더라도 일단 해보고 나서 어려운지 쉬운지 판단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일들은 괜히 했다고 후회한 적도 있지만 그조차 나에게서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느낄 수 있었다. 전문가에게 경험이란 값진 보석과도 같다.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요즘은 정보가 정말 많다. 그런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쉬운 길로만 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선택을 더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젊은 시절의 도전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받은 일이다. 우리는 좀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필요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헤쳐 나가겠다고 결심할 필

요도 있다.

나는 나의 젊은 시절을 사랑한다. 그때의 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을 것이고 지금의 내가 없다면 미래의 나를 꿈꿀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일에 도전하여 혹 실패한다고 해도 몇 번이고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에 젊음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전을 선택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두려워해야 한다. 젊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Chung Jaehee

정재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후 건원국제건축, 해안종합건축에서 건축설계 실무를 하였고 미국 UC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건축학 석사과정(Master of Architecture)을 마쳤다. 세계적인 설계사무소인 SOM을 비롯한 굴지의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설계 및 도시설계 실무를 하였고 미국 건축사 및 미국 친환경건축사(LEED AP)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조교수로서 강의뿐 아니라 공모전 참여 등 설계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서울시 재정비위원, 건축위원, 세종시 건축위원, 국토교통부 친환경인증운영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가슴 뛰는 삶을 살자

힘들게 찾은 나의 전공

어떻게 보면 나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운 좋은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 ‘세상을 바꾸는 여성 엔지니어’라는 거창한 타이틀에 어울리는 롤모델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나의 경험을 진솔하게 전하면 그 진심이 통할 것이라 믿고 글을 시작하겠다.

나의 유년 시절을 생각하면 형제가 많아 북적북적하던 분위기가 떠오른다. 나는 1남 6녀 중 여섯째로 태어나 그리 주목받지 못하며 자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내 의사를 뚜렷이 밝혀야 했다. 그래서 매사에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이 형성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면서도 언니, 오빠 들이 아래 동생들을 거의 키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진로 등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형제들 의견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환경의 영향으로 내가 고등학교 때 미대로 진학하겠다고 했을 때 온 가족이 반대하여 포기하였다. 미술학도의 꿈은 접었지만 대신 다른 꿈이 생겼다. 서점에서 책을 보다가 우연히 건축학과에 대해 알게 된 것이다. 그 순간 “그래 바로 이거야!” 하고



2011년 한국건축설계교수회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 앞에서

가슴이 뛰었다. 곧바로 친구들에게 달려가 건축학과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길 또한 쉽진 않았다. 일단 가족들이 원하는 의대와 거리가 멀었다. 게다가 건축학과는 공대 소속이었기 때문에 여자의 전공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가족들 의견이 주류를 이뤄 결국 서울대 의대에 지원하였다. 우리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자 공대생인 오빠마저 여자가 공대 가서 버티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학 입시에 실패하여 재수를 하였고 그 와중에 건축학과에 대한 꿈은 커져만 갔다. 다음 해에도 입시 성적이 기대만큼 안 나와서 결국 2지망인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다.

식품영양학과에 다니면서도 검은 도면통을 들고 캠퍼스를 활보하는 건축학과 학생들이 너무 부러웠고, 결국 식품영양학과 졸업 후 서울대 건축학과로 편입하였다. 아버지는 졸업 후 여자가 시집가면 되지 무슨 편입이나 하셨고 다른 가족들도 반대했지만 그나마 어머니가 꾀꾀이 지원해주셨다. 어머니의 그러한 지원에 대해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힘들게 찾은 전공이라서 그런지 난 여전히 '건축'이 너무 좋다. 설계하면서 야근도 철야도 많이 하였지만 그래도 난 건축의 이런 치열함이 좋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

내 학교생활 신조는 '공부도 열심히, 다른 활동도 열심히,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였다. 중고등학교와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서울대 건축학과에서 매년 우등으로 졸업하였고 대학 생활 동안 꾸준히 장학금을 받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부만 한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이나 축제 때면 반 대표로 무대에 올라가 장기자랑에 참여했고 친구들과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과 대표와 서울대 여행 동아리인 '괴나리'의 간부로 활동하였다. 여행과 각종 행사들을 계획하고 이끌면서 멤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며 리더십과 책임감을 키웠다.

또한 시간 날 때마다 건축 답사, 전시회, 음악회, 영화제 등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여 견문을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건축을 한다는 것은 단지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 담기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사회를 이해하지 않고는 좋은 건축이 나올 수 없다는 신념이 있었다.

**좌절 극복력,
문제 해결력을
키우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머리가 좋다거나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 좌절 극복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똑똑한 사람보다 현명한 사람이 필요

하다고 많이들 얘기한다. 물론 내가 백 퍼센트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대학 재수, 편입, 유학, 미국 설계사무소 생활 등을 거치면서 자존감 상실이나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소외감 등을 수도 없이 겪었고, 그로 인해 오투기 같은 좌절 극복력이 생겼다고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미국 유학 시절, 매일같이 집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전화가 걸려왔지만 나는 결국 가족들을 설득해서 설계사무소에 취직하였다. 미국에서 직장을 옮길 때는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여러 문제를 겪느라 고생했지만 그냥 주저앉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찾으며 노력하였다. 그러한 훈련이 쌓여 미국 건축사 시험이나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등에 임했을 때, 승리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며 노력하는 자세가 습관처럼 됐다. 지금도 학생들이 “교수님 어떡하죠?” 하고 문제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스스로 솔루션을 가



열심히 건축설계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저오라고 돌려보내면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도록 유도하고 있다.

**추진력 있는 삶이
중요하다**

생각해보면 나는 서울대 건축학과 편입, 미국 유학, 미국 영주권 취득, 미국 건축사 시험 합격, 홍익대 교수 임용 등 내 인생에 있어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서 항상 추진력을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다.

서울대 건축학과에 편입할 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 뜻을 밀고나가 합격했고, 건원국제건축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후 사

법연수원 툃키를 할 때 지인의 소개를 받아 사법연수원 책임판사님을 찾아가 평면구성에 대한 자문을 받아옴으로써 사법연수원 기숙사 부분 설계를 신입사원인 내가 맡는 기회를 얻었다. 또한 내가 참여한 합천박물관 현상설계 공모전에 당선되었을 때는 며칠간 고민하다가 회사 대표를 찾아가 꼭 실시설계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인지 운 좋게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는 내 실무 경험에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

미국 UC 버클리에서 건축학 석사과정을 마친 후 미국 설계사무소들과 인터뷰를 하였고 여러 곳에서 입사 제안을 받았다. 그런데 세계적인 SOM(Skidmore, Owings&Merrill LLP)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와 인터뷰하고 난 뒤 그 회사의 열정적인 분위기와 사무실 내부를 가득 채운 모델들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꼭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해졌다. 그래서 나를 인터뷰했던 SOM 상사에게 계속 메일을 보내 나의 지대한 열정과 관심을 알렸다. 그런 영향인지 마침내 꿈만 같던 일이 벌어져 나의 열렬한 바람대로 SOM에 근무하게 되었다. 첫 출근을 앞둔 날 얼마나 설레는지 잠도 오지 않았다. 처음 내가 근무한 팀은 회사에서 가장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같이 야근도 하고 소풍도 다니면서 즐겁게 팀 생활을 하였다.

그렇게 1년쯤 지난 후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알아보는데, SOM 회사 규정상 3년을 일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처음엔 포기하려다가 밀져야 본전이니 한번 부딪쳐보는 용기가 생겼다. 그래서 회사 대표에게 나의 각오와 가치를 설명하였고 마침내 회사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사실 나

와 같은 경우는 SOM이라는 기업체에서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다. 돌아보면 이렇게 추진력 있게 밀어붙였던 내 자신이 신기하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던 경험들이다.

무엇보다도 나는 혈혈단신 미국으로 갔을 때 세웠던 목표는 이루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학업을 마치고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세계적 디자이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제적인 프로젝트들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뉴욕건축가협회가 수여하는 AIA 건축상



AIA 프로젝트 부문 대상 수상작인 Treasure Island Masterplan 작품 전시회에서

에서 프로젝트 부문 대상(Honor Award)을 받는 등 명실공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아홉 개나 받았다.

희망이 삶을 짓는다

나는 건축이 ‘희망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의 상태에서 건축이 들어서고 그 건축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때 나는 가장 보람을 느낀다. 내가 설계한 건물이 실제로 지어지고 사람들이 그 건물에 찾아오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뭐라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건축이 주는 매력이 아닐까?

또한 지금 교육자의 입장에서 불모지와 마찬가지로였던 학생들이 건축가로 거듭나는 것을 보면서 희망에 부풀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항상 꿈을 놓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나의 과거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생각하면서 학생들의 다양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더욱 복돋아주려 한다.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각과 균형 있는 감각을 갖춘 건축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나 역시 항상 열려 있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모 건설회사 광고 슬로건 중에 “진심이 짓는다”라는 말이 있다. 참 멋진 말이다. 나는 단지 건축뿐 아니라 내 인생에서 언제나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싶다. 진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진심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건축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런 나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가끔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



2010년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작품전시회에서 스튜디오 학생들과 함께

기도 하지만, 그림에도 이런 초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삶이란

무엇인가

이 글의 주제라 할 수 있는 ‘세상을 바꾸는 여성 엔지니어’라는 말이 다소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가 이 글을 쓰면서 강조했던 소통, 좌절 극복력, 문제 해결력, 추진력 그리고 희망을 가슴에 품고 나아간다면 정말 ‘세상을 바꾸는 여성 엔지니어’가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본다.

물론 여성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한국은 남성 위주의 사회이다 보니, 남성들끼리는 같이 운동하고 술 마시면서 친해지기 쉽고 학교나 군대 선후배 관계 등으로 여여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여성에 대해서는 속을 내보일 수 있는 막역한 사이가 되려 하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들은 학생 때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사회생활을 계속할수록 와 닿게 된다. 그래서 여성들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에 돌아와서 진로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설계사무소로 갈 것인가, 아니면 교수의 자리로 갈 것인가. 그런데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프로젝트를 계속 따올 자신이, 실적이 안 좋으면, 미국 건축사와 SOM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화려하게 회사에 들어갔어도 초라하게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교수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것은 현실이다. 여성들은 이러한 점들을 인지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틈새를 찾아가야 할 것이다. 여성으로서 장점이 되는 부분은 적극 활용하고 단점은 최대한 극복하면서.

우리가 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낯선 것,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과 자신의 틀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용기는 정말 필요하다. 홀로 독불장군처럼 있는 게 아니라 주변과 소통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저앉지 않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다 싶은 일을 만나면 포기하지 않고 진득하게 추진하는 능력, 아니다 싶은 일이 있으면 과감히 뜯어 고치는 결단력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이것은

이 글을 읽는 독자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각인시키고 싶은 말이다.

내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사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정신없이 일에만 매달려오다 보니 요즘은 인생의 동반자와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부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건조하기 그지없는 내 삶을 돌아보게 된다. 하지만 나에게도 앞으로 남은 날들이 많으니 괜찮다고 다시 한 번 다잡는다. 그리고 내가 꿈꾸던,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던 건축을 통해 이 사회에 기여한다면 정말 보람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내가 매 학기 수업 첫 시간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꿈을 가지라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뛰는 삶을 살라고!

Cho Hyejin

조혜진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교통계획으로 석사 학위를, 영국 리즈 대학교(University of Leeds)에서 교통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정부의 장학금을 받았고, 졸업 후 같은 대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2000년 귀국해서 현재까지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와 과학기술연합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국회 토목분과 자문위원,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교통안전공학」, 「SP 조사설계분석방법론」, 「생태공학-토목과 생태학의 만남」, 「길과 환경」 등이 있다.

새로운 도전을 사랑하라

내 생애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다

나는 교통공학 전문가이다. 어떻게 교통공학이란 새로운 분야를 선택하게 된 것일까? 고려대에서 지리학을 전공하며 유학을 준비하던 중 나는 전공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지리학은 과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는 사회를 선도하는 분야였지만 이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새로운 분야를 찾아보기로 했다.

지하철도 없던 시절이라 매일 아침 명일동에서 안암동까지 통학하느라 고생하는 게 떠올랐다. 어떻게 하면 빨리 학교에 갈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생각이 확장되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겪는 교통 혼잡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겠다는 비전을 품게 된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외국에서 최근에 각광받는 분야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교통 혼잡’이라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교통공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1960년대 이후 생겼으며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국내에서는 생소한 분야였으나 나는 이 분야를 연구하고자 석사 유학을 바로 포기

하고 당시 유일하게 교통공학 관련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었던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진학하였다. 당시 결혼 전 유학을 못마땅해하셨던 부모님은 나의 새로운 선택을 대환영하셨다.

드디어

교통공학도가 되다

문과생이던 내가 대학원에서 컴퓨터 언어, 공학 개론을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새로운 도전이었다. 언어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에 익숙한 내게 수식으로 정리된 전공서는 처음에는 공포 그 자체였다. 하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전공 내용이 재미있었고 열심히 한 덕에 장학금까지 받았다. 공부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썼던 논문은 도로공사에서 주최하는 전국 대학원생 논문현상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고 했던가. 함께 논문을 썼던 선배와 결혼을 하고 같이 영국 리즈 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당시 리즈 대학교는 유럽 전체의 대학 평가에서 교통공학 분야의 최고로 인정받는 대학이었다. 교통공학 분야 최고 전문가들에게 교육받고 전 세계로부터 모여든 학생, 교수 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참 가슴 벅차는 일이다. 그곳에서 교통 혼잡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운전자의 운전 경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하는 모델링을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교육부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했고 만 스물여덟 살에 학과에서 최연소로, 최단기간에 박사 학위를 취득



리즈 대학교에서 남편과 함께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했다는 영예도 얻었다. 학위를 받고 난 후에는 바로 학교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한국에서 여자라는
장애를 극복하다**

나는 개방적인 부모님 아래에서 큰딸로서 온갖 기대를 받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여자라는 것이 이 사회에서 전문가로서는 데 장애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시

련은 처음 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유럽 최고의 대학에서 최연소로, 최단기간에 박사 학위를 땀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 정부의 장학금까지 받았기에 나는 충분히 실력을 갖추었다고 잘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종 면접에서 받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연구원 입사 후 아이를 가질 것인가로부터 시작하여 남자들만 가득한 이 연구원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입사한 후에도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한 정보는 남자들만의 공유물이었다. 정보 공유 역시 술자리나 사석에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사 내 주요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휴가를 쓰게 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자 직원들로부터 ‘휴직을 해야 한다’, ‘남들은 일하는데 3개월이나 쉬는 것은 불공평하다’ 등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연구 과제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삼십 대 초반의 여자 박사가 사오십 대의 남자 박사들을 대표하는 연구 총괄 책임을 맡는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우려를 내비쳤다. 하지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면서 여자에 대한 편견을 깨나갔다. 이제는 ‘조 박사님이 맡으면 오케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흐뭇하다.

**홀로서기 그리고
네트워크 만들기**

이 정도의 신뢰를 얻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취

한 전략은 오히려 적극적인 홀로서기였다.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지금까지의 동호회가 친분이 있는 몇몇 사람의 모임이었다면 나는 동호회다운 동호회를 만들기로 했다. 평소 관심이 있던 봉사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 동호회를 만들고 회장으로 활동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연구원 내 동호회 인원은 원장님, 부원장님을 비롯해 80명에 이르게 되었다. 정기적인 모임과 활동을 통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연구원 내 다양한 사람과 친분도 쌓으며 내 위치를 다지기 시작했다.

연구원 내 20주년 행사의 PD를 맡아 전체 행사를 주관한 적도 있었다. 여자에게 배타적인 연구원 분위기를 안타까워하시던 연구원 선배들이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다. 당시 나는 한 살, 세 살짜리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많아 아주 바쁜 상황이었지만 여성 특유의 꼼꼼함과 성실함으로 천여 명의 연구원이 즐길 수 있는 멋진 행사를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한 말은 과제도 성실히 수행하면서 노력한 결과, 입사 4년 만에 초고속으로 승진하여 최연소 연구위원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다**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서 나의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나를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도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전문가로서 나의 위치를 정립하기 위해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 미흡한 분야,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찾기 시작하는 데서 나의 도전은 시작되었다.

나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 분야는 친환경 도로 설계와 시공으로 환경, 생태공학과 교통공학을 융합한 분야이다. 국내에서 도로 분야는 토목 위주였고 아무도 환경과의 연계를 생각하지 않았기에 더욱 필요하다. 이는 도로 공사나 교통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저감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친환경 도로 연구를 위해서는 토목과 더불어 생태, 환경 영향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도전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은 스스로 정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토목, 환경 분야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었다.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

많은 분들이 일에서 성공한 여자는 미혼일 거라고 짐작하곤 한다. 하지만 그것은 편견이며 오해다. 나는 사춘기 중학생 두 명과 초등학교까지 세 딸을 둔 행복한 가정의 아내이며 엄마이다. 직장과 가정을 놓고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이 사회에서 나는 같은 가중치를 두고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이루려 노력하고 있다.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외조와 격려 덕분이었다.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건축가 김진애 선생님의 『나의 테마는 사람 나의 프로젝트는 세계』라는 책을 사 와서 말했다. “꼭 김진애 선생님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울게.” 나는 그날 저녁 남편의 음성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때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나도 정말 열심히 살게. 그리고 좋은 아내가 될게.’

나는 정말 바쁜 엄마였지만 아이들에게 소홀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오로지 엄마 역할에 충실했고 아이들을 재운 뒤에야 조용히 나의 일에 매진했다. 지금까지 일하느라 정말 치열하게 살았지만 어느 한 순간도 남편과 가정에 소홀했던 적이 없었다고 자부한다.

물론 매일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런데 『시간을 정복한 남자 류비셰프』란 책을 읽게 되었다. 러시아 과학자인 그는 에너지 연구로 방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치밀한 시간 관리로 자신의 여가 생활과 가족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멋진 아빠였다. 류비셰프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만의 시간 관리 계획을 세웠다. 나는 하루를 삼등분해서 시간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먼저 근무 시간에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정시에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두어 시간 짧은 잠을 자고, 새벽 2시경에 일어나 다시 5시까지 일한 뒤 다시 한두 시간 눈을 붙이고 출근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새벽의 두어 시간은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주로 논문을 쓰거나 집중력이 필요한 일들을 했다. 체력이 요구되는 일이지만 이런 시간 관리 덕분에 업무와 책, 논문 집필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헤밍웨이의 단골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 나에게서 최고의 휴식이며 가장 소중한 추억이다.

여자가 아닌 전문가로 거듭나기

처음에 나는 이 분야에서 유일한 여성 전문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성별을 넘어 최고의 교통공학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돌아켜 보면 지금의 내가 있게 해준 빛나는 시간이었다.

남자가 많은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자처럼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남자들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 공학자들은 자신이 맡은 일은 성실하게 수행하지만 함께 일하는 것에는 서툰 경우가 많다. 연구

나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혼자 하기보다 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방식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나는 각종 연구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간사의 역할을 자칭해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했으며, 내 의사를 타진하고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발휘하고 관련 전문가와의 교류를 넓혀갔다.

이와 더불어서 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과 같은 추진력으로 일을 하면서 여성 특유의 꼼꼼함과 성실함을 겸비한다면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모두들 탐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꾸다

과학

4

김형하
/
괜찮아,
잘될 거야!

윤혜온
/
융합 과학에
폭 빠지다

최수진
/
진정한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사는 것

Kim Hyongha

김형하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물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 미국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식물분자생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며 바이오임상표준센터장을 거쳐 현재 국제협력실장을 맡고 있다. 국가 R&D 사업 예산심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자체평가위원과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8, 9대 총무이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는 EU R&D 사업평가전문위원 및 국가조정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평가전문위원, 미래창조과학부의 R&D 자체평가위원 및 국제화사업추진위원, KOICA 과학기술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대전시 과학기술유공자 표창,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대한민국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다.

괜찮아, 잘될 거야!

전공에
대하여

원고 청탁을 받고는 생각이 두 갈래로 뻗었다. ‘과연 내가 후배들에게 해줄 조언이 있을까? 그래도 되돌아보면 뭔가 해줄 말이 있지 않을까?’ 자신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못하겠다고 고사하는 말보다는 ‘그래요, 한번 써볼게요’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

그 당시에는 좋지 않게 받아들였던 일이 시간이 지나 과거가 되면 추억이라는 명분으로 미화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지나온 길을 평이하게 나열하여 독자를 지루하게 만드는 일, 혹은 우연을 가장한 운명 같은 행운과 성공만 있었던 것처럼 독자를 오해하게 만드는 일은 피해야겠다는 것과 솔직한 얘기를 써서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여러 주 동안 고심했다.

정부출연연구원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들어온 지 13년이 되었다. 이곳이 나의 직장이다. 연구 부서에서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그리고 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2년쯤 전에 국제협력실장을 맡게 되어 지금은 세계와 우리 연구원과의 연결고리 역할에 열중하고 있는 중이다. 처음에 공부를 계속하겠다고 결정했을 때에는 이런 길

을 견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전공을 결정할 때 그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을 너무 좁게 생각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싶다. 막상 사회에 진출하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그 범위가 넓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전공을 언제 결정했냐는 질문을 학생들로부터 종종 받는다. 내 대답을 바로미터로 삼을지도 모르니 되도록 솔직하게 얘기해주려고 노력한다. 이 전공을 택한 것이 언제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천생연분을 만난 듯 ‘이거다!’ 싶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저런 분석을 하고 나름 선호에 대한 무게를 저울질해보며 원하지 않는 전공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서서히 결정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에 이르는 것과 비슷하다. ‘첫눈에 반해서 결혼까지 갔다’는 다소 드라마틱한 경우가 실제로 없는 것은 아니니 그런 일이 자신에게도 찾아오기를 꿈꾸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드문 일이다. 그러니 첫눈에 바로 자신의 전공을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를, 그리고 첫눈에 반한 사랑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맞는 분야를 만나게 되어 있다고 믿기를. 그리고 전공을 선택하고 공부하며 그것을 진정 나의 길로 만드는 것은 많은 노력과 오랜 이해의 시간이 필요한 과정임을 받아들이라고 당부하고 싶다.

쉽지만은 않았던 어린 시절

더 먼 과거로 돌아가보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전형적인 모범생이었다. 어려서부터 무언가를 배워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재

미있었고 말 그대로 ‘공부가 취미’였다. 뭐든 알아서 하는 성격이라 부모님, 선생님께 잘 보이려고 억지로 공부한 적은 없었다. 친구들이 열광하던 만화책이나 드라마에 관심이 없었던 나는 좀 이상해 보일 만한 아이였다. 공부는 학생이 해야 할 일이며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는 공부하는 게 오히려 즐거웠다. 중학교를 졸업할 당시 치른 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받고 충남 수석이라고 신문에 나기도 했다. 그 후 장학금을 받으며 원하는 대학에 입학한 나는 모범생의 전형을 걸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깊이 되져보니 좋은 추억으로만 간직하기는 힘든, 매우 어린 나이에 겪은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다. 어른들 전언으로, 어린 시절에 말도 빨리 배우고 꽤나 명석했다던 나는 두 번의 큰 언어적,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두 아이가 딸린 가정의 가장이면서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던 아버지의 때늦은 유학 결심에, 만 두 살에 갑자기 외국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의사 표현이 자유롭던 어제까지의 나는, 낯선 외국에서 하루아침에 ‘들리지만 귀머거리, 말하지만 병어리’가 되었다. 차라리 더 어린 나이에 가서 처음부터 영어를 모국어로 배웠다면 덜 혼란스러웠을 수 있고, 나이가 더 많았다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어중간한 나이에 두 언어 사이에서 이유도 모른 채 혼란스러운 시절을 보내야 했다. 어른들은 ‘영어도 배우고 얼마나 좋아’라고 쉽게 치부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내던져진 아이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만큼 고된 시간이었다. 화장실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할 줄 몰라 난처했던 일, 보육센터 선생님의 말 중에 드디어 아는 단

어가 들렸다고 집에 와서 자랑하던 일(그 단어는 ‘피아노’였다) 등 많은 해프닝을 겪으며 갑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모자란’ 아이로 지내야 했던 시간은 내게는 정말 힘들었다.

그렇게 나름 적응하며 6년을 타국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유학 생활이 마무리되어 초등학교 3학년 때 다시 귀국하였다. 또 한 번의 문화적, 언어적 충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내 앞에 놓였다. 이미 나의 ‘국어’는 영어로 바뀌어 있었다. 타국 생활 중에 엄마에게 가르쳐달라고 졸라 겨우 문맹을 벗어난 수준의 한글 읽기 실력으로 바로 초등학교에 다니게 된 나는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가 얼마 동안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맘 좋은 친구들이 도와줘서 서서히 학교생활에 적응해나갔다. 그러면서 점차 공부에도 흥미를 붙여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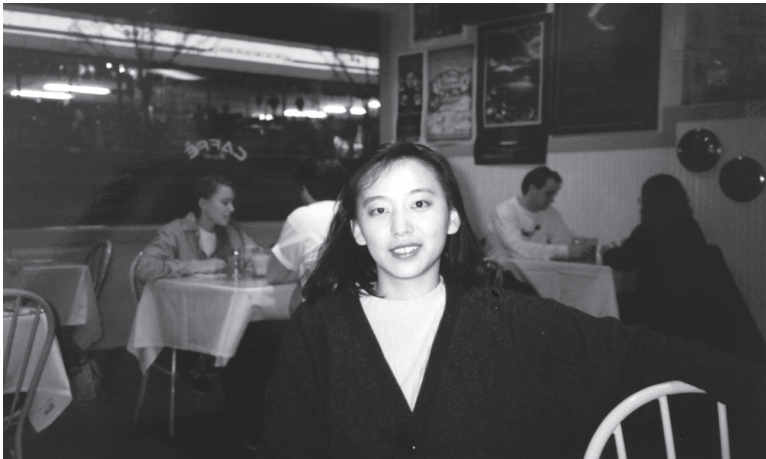
다른 세상으로 뛰어들다

다시 전공 얘기로 돌아가보자. 대학 4년, 석사과정 2년을 같은 학교에서 다닌 나는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서 유학을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마침 자비를 들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다른 세상을 접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나의 등을 떠밀었다. 여러분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넓은 세상에 나아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그 기회를 잡으라고. 고생도 많이 하겠지만 시야가 넓어지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당시 미국 대학에는 대학원생이 학부생을 교육하는 데 일조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고, 내 전공인 바이오 분야는 의과대학에 가려는 학부생들이 많아 교육에 참여할 대학원생 인력을 늘 필요로 했다. 연구실에서 조용히 실험만 하던 대부분의 학생과 달리, 나는 국내 국립대학교보다 더 저렴하게 등록금을 할인받고 의료보험과 매달 생활비까지 지원받는 조건으로 자의 반 타의 반 학교에 취직(?)을 하였다. 그러고는 유학 첫 학기만 제외하고는 매 학기 강의 조교를 하면서 유학 시절 내내 학부생들과 어울리며 지냈다.

학기에 따라 300명 정도 되는 수강생들의 강의 조교를 하기도 했고 20명 정도의 학생들과 매주 장시간 실험하고 그들이 제출한 실험 보고서를 채점하기도 했다. 그래서 실험만 하는 대학원생들에 비



유학 시절의 어느 하루

해 연구에 매진할 시간은 늘 모자랐고 쫓기듯 바쁘게 지내야 했다. 이렇게 유독 바쁜 나날을 보내니 주경야독이라는 말이 내 얘기 같았다. 그동안 부족한 것 없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살아온 나에게도 그 시절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게 방전되는 듯한 무척 힘든 시기였다.

가르치는 일을 하며 또 하나 무척 힘들었던 점은, 우리나라에 비할 수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커운 그곳 학생들의 태도였다. 수업 시간에 하는 질문들은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스펙트럼이 넓어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강의 조교는 별도의 시간에 교수가 강의한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강의를 해야 하는데 교수한테 차마 못 묻고 내게 던진 질문들은 정말 다채롭다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다. 강의 조교는 매 학기 끝에 강의 평가를 받아 좋은 평점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학기 지원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학생들은 만족시켜야 할 고객이었고 나는 이들을 위해 늘 노력하고 애를 썼다. 대학원 과정 중에 우수 강의상을 받은 것은 그 노력이 가져다 준 결실이었다.

뜻밖의 축복

그렇지만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 우수 강의 상 수상보다 더 귀한 자산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학위 과정 후반부에서였다. 첫 번째로, 아는 사람에게도 먼저 인사하지 못할 만큼 내성적인 성격이던 나는, 생각도 문화도 매우 다른 학생들과

지내면서 어느새 낯선 사람에게 말도 잘 붙이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외향적인 성격으로 변해 있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을 위해 강의를 준비하고 매주 발표를 꾸준히 한 결과 수백 명의 외국인들 앞에서 발표하고 그들의 질문에 대응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닐 정도로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어 있었다. 한 번은 학생에게는 좀처럼 주지 않는 기회인 학술대회 메인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발표와 질의응답을 잘 끝내서 걱정하던 지도 교수님도 놀라워했다. 그렇게 나는 어느새 대중 앞의 발표도 문제없이 해 낼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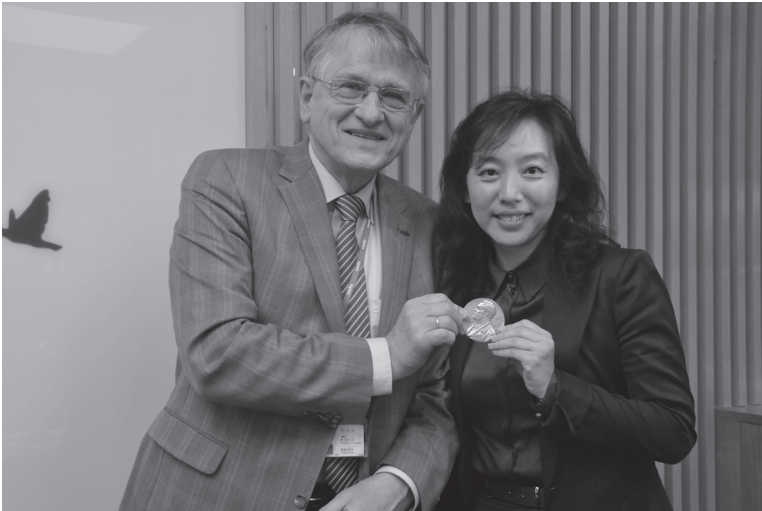
세 번째로, 가르치는 과목들은 주로 기초 생물학 분야였는데 수업 준비 때문에 역지로 넓은 영역을 공부하다 보니 생물학에 대한 내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이때 쌓은 지식은 지금도 과학 강연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네 번째로, 학생들의 밑도 끝도 없는 질문들에 답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요지를 파악하고 간략히 핵심을 전달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Blessing in disguise'라는 말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나에게는 정말 'Blessing in disguise'라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를 가르치며 내준 내 시간과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쉽게 얻기 힘든 무기가 되어 나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느낀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경험은 마냥 고생인 것 같았지만 실은 나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준 소중한 기회였다.

국제협력실에 와서 일하며 그런 생각이 더 자주 든다. 어렸을 때 겪은 언어적, 문화적 충격, 그리고 다소 힘들었던 학위 과정 중의 강

의 경험은 지금의 나를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었을까. 힘들었던 그 시기는 여러 능력을 내게 쥐어준 훈련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편히 구사하는 능력을 키워줬고, 좀 더 정제된 표현들을 배우고 그 사회와 문화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는 지금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 나에게 큰 자산이다.

여러분도 난관에 부딪쳐 힘들고 암담할 때가 있겠지만, 그 터널 끝의 희망을 생각하며 헤쳐 나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경험을 긍정적인 기회로 받아들이기를 당부하고 싶다. 어떤 일에도 지금은 미처 깨달을 수 없는 좋은 측면이 있다고 확신한다. 오랜 시간이 흘러 돌아 봐야만 비로소 보이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폰 클리칭 박사와 함께

우리 집안
여자들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었던 사회적 분위기와는 사뭇 달리, 내가 어렸을 적 우리 집안 여자들은 나를 포함한 아래 세대에게 관대했다. 그분들은 꽤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신 세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서는 제약은 적게, 기회는 더 많이 주고자 했던 우리 집안 여자들에게 요즘 들어 더 감사한 마음이 든다.

외할머니는 종종 ‘살림도 머리로 하는 거라 다치면 다 할 수 있다. 미리 배우려고 하지 마라. 지금 배울 일,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살림 배우는 건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하나 있는 딸이 막상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걱정할 법도 한데 어머니는 ‘결혼을 못 했다는 얘기를 듣지만 않는다면, 남자든 여자든 결혼 안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며 사는 것도 찬성이다’라고 종종 얘기하셨다. 옳고 그름을 떠나 그런 말들은 나에게 ‘여자라고 해서 못 할 일은 없다’는 용기를 주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정형화된 ‘여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강박증을 털어준 덕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나는 유학 떠나기 전에 결혼을 했다. 남편은 외조를 잘해주는 편이고 지금 중학생인 아들도 이해심 있고 잘 도와주는 편이라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원군을
얻으라

몇 년 전 미국에서 열린 여성 과학자, 공학자 모임에서 미국의 여성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겪은 고충과 경험담을 나누는 것을 볼 기회가 있었다. 우리와 생각과 문화가 다르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우리보다 높다고 생각한 미국의 여성 과학자들의 결론이 '남편을 잘 선택해야 한다'여서 놀랐던 기억이 있다. 미국처럼 육아 시설과 제도가 잘 갖춰지고 남녀 차별이 덜한 곳에서도 여성의 사회생활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가족 구성원들의 격려



나의 지원군 아들과 함께

와 지원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 나에게서는 실망과 위로가 얽힌 묘한 감정을 일으켰다. 또한 여성 과학자로 성공하려면 ‘좋은 남편을 고르는 현명한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후배들에게 숨김없이 조언해주는 솔직한 분위기에 놀랐다. 우리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때 그 선배들처럼 나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조언해주고 싶다.

격려와 지원은 누구에게나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해준다. 태어날 때 촌수가 정해지는 가족 구성원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도 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며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의 반려자를 찾을 때 나를 진정한 동반자로 봐주고 기꺼이 외조를 해줄 사람,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하면 좋겠다.

사회생활을 잘 해나가려면 가족의 도움만으로는 부족하다.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만난 ‘좋은 사람들’ 덕에 잘 풀렸다는 것이다. 그렇게 도움 주신 분들이 나에게도 많았기에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

나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지위 향상과 네트워킹을 위해 미력하나마 지난 4년 동안 8, 9대 총무이사를 맡아 활동했다. 연구원 일만 했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이 가장 좋았던 기억으로 남는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보며 많이 배웠다. 그런 조직이 아니라면 기회가 없었을 다양한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보람도 컸다. 여러분도 비

스한 기회가 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꼭 참여하여 폭넓은 경험을 쌓기를 권한다.

사회에 되돌려줄 수 있는 한 가지 나는 그다지 부지런하거나 재주가 많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누구나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하나는 있을 거라고 믿는다. 나는 잘 가르친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다. 친척들도, 과외를 하러 가던 집에서도 그랬으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 같다. 선생님, 교수 같은 가르치는 직업이 나한테 맞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미국 생활 10년으로 가르치는 일은 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직업으로 택하지는 않았다.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기는 싫었지만, 사회에 뭔가를 되돌려주는 재능으로 특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거절하지 않고 가서 과학 강연을 하며 아이들을 만나고자 노력해왔다. 타고난 재주에, 유학 시절 키워진 자산인 기초 생물학 지식과 일반인에게 쉽게 과학을 가르치는 요령, 그리고 다소 엉뚱한 질문에 답해야 했던 훈련의 결과가 더해져 ‘재능’이 만들어진 것 같다. 다른 분들의 강연은 어렵다며 매년 나에게 강연을 청하는 학교도 있고 전근을 가신 뒤 새 학교에서 또 연락을 주는 선생님들도 계셔서 지난 10여 년간 꽤 많은 학교에 과학 강연을 다녔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찾아보니 그간 내 과학 강연을 들은 학생이 약 1만 5,000명으로 집계되어 나도 깜짝 놀랐다.



과학자의 대중 강연, 그리고 학생들과의 만남

작더라도 사회에 뭔가를 되돌려주고 싶어 나의 재능을 활용해나가기 시작한 과학 강연을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재주를 한 가지씩은 키우라고 당부하고 싶다.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는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왕이면 사회에 유익함을 주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재능으로 발전시켜 이를 발휘하기 바란다. 이러한 작은 활동들이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며, 스스로에게도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유학 시절 연구실 후배 중 박사과정에 입학한 오십 대 아줌마가 있었다. 카운슬러로 일했던 분인데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싶은 꿈을 좇아 수십 년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그만 모았던 돈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한 분이였다. 밤늦게까지 같이 실험하며 나는 생물학 지식을, 그분은 인생의 지혜를 나눠주느라 서로 많은 얘기를 했다.

그때는 그분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학교로 돌아온 심정을 진심으로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르고 나도 비슷한 나이가 된 지금은 그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박사과정을 잘 마쳤고 그 뒤 연구원 생활을 잘하신 그분을 생각하면 오십 대 중반에라도 자신이 가고 싶은 길로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도 곧 그 나이가

될 텐데 아직은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안 든다. 더 어릴 때는 이 나이가 되면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무엇이든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에는 모범 답안이 없다. 가야 할 길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정했던 꿈이어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방향 선회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오십 대 중반에 꿈을 바꾸어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아직 모른다고 해도 큰일 나는 건 아니라는 것,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꿈을 바꾸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좀 더 길게 보고 느긋해도 된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괜찮아,

잘될 거야!

또 하나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
자이기 때문에 직장, 결혼 생활, 육아, 연구
등 모든 걸 완벽하게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
념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적어도 여러분 세
대는 이를 수 없는 ‘완벽’이라는 허상을 좇으며 자책하지 않기를 바란다. 모든 에너지를 방전하며 피곤하게 살지 않아도, 여러분의 능력을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만족할 수 있기를,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하는 현명함을 갖출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선택을 좀 더 편안히 받아들이고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고 어디선가 나타나 도와주는 ‘귀인’도 많지만, 반면에 꼭 그런 장밋빛 세상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도 해주고 싶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채로 미움을 받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잘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모함하면서도 부당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은 경험, 좋은 기억이 더 많겠지만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는 이렇듯 게임의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도 나타날



대전시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핸드프린팅 제막식에서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 하늘 아래 새것이 없다고 하듯, 자신만 겪는 일은 아니니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되 지나친 자책을 하지 말라고.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통과 의례라는 것을 기억하며 당당하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사회생활은 힘들다. 넘어야 할 산이 참 많다. 모든 사람이 '사람들 마음이 모두 내 맘 같지가 않다'고 느끼며 힘들어한다. 내가 벌여놓은 일도 많고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더라도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사회생활은 녹록지 않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자신뿐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그러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조금은 덜 외로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괜찮다.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결국은 괜찮아질 것이다. 학위 과정이든, 구직이든, 직장 생활이든, 결혼이든, 육아든. 지금은 어렵더라도 모든 일에는 터널 끝의 빛처럼 여러분을 기다리는 밝은 희망이 있다. 그리고 지금의 경험들은 훗날에 귀한 자산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기 바란다.

It's OK. Everything will be OK.

Yoon Hyeon

여류 에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교육학과 졸업 후 서울대학교와 뉴욕 주립대학교(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지질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서 'A Study of Metal Partitioning in Synthetic Calcite'라는 연구 제목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서울센터 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에너지·환경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전문위원, 그리고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KWSE)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융합 과학에 폭 빠지다

나는 아직도 변하고 있다

은사님이나 과학기술계 웃어른 들을 뵈면 그분들은 세상 일을 평온한 마음가짐으로 바라보는 것 같고, 사람을 대할 때나 일을 할 때도 여유와 너그러움이 넘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생일이 지나 올해 오십 대 중반이 된 나는 가끔 밖에서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할머니’라는 호칭으로 불릴 때가 있다. 나도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지긋한 중년 이상의 나이로 보이는 것 같아서 종종 부끄러워진다. 이전에 내가 어른들에게 느꼈던 안정감과 평정심, 관대함이 아직 내게 부족한 것 같아서다. 아마 세상을 대하는 마음이 아직도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혼자 웃음 짓기도 한다.

오십이 훌쩍 넘은 나이에든 나는 여전히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을 좋아한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서로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 나는 정부출연연구원에서 재직하며 여러 연구자의 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연구자들과 함께 새 분야를 개척하며 즐거움을 느낀다. 한국 기초과학지원연구원(Korea Basic Science Institute)은 이런 점에서 나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직장이다. 연구원에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첨단 분석 장비들을 관리하고 전문 분야인 토양, 지하수 오염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즐겁지만,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기업과 많은 연구자 특히 젊은 연구자인 학생들과 변화를 꿈꿀 수 있어서 무척 즐겁다. 아직은 여유와 너그러움이 부족하고 갖추어야 할 덕목이 많지만 젊은 학생들과 덕망 높으신 교수님들, 그리고 기업의 연구자들과 함께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아 있다는 사실이 매일 나에게 큰 감동을 준다.



X-선 형광분석기를 이용하여 환경 시료 분석을 하고 있다.

스스로 하면
즐거움도 만족도
두 배

진명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과학
교육학과에 들어가면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이 모두 다 끝난 것만 같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질학을 전공하고
싶었고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이화여대 과학교육학과에서 지구과학
교육을 전공하였지만 지질학을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 학교에 개설
되지 않은 과목을 배우러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까지 찾아다녔다.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지질학과 교수님들 연구실 문을 두
드리고 ‘교수님 과목을 청강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흔쾌히
허락해주셨다. 당시 그 대학에 다니던 가까운 친구들이 등록금을 어
디다 내고 남의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다니느냐며 농담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 동안 새로운 경험을 하고, 지식을 쌓고, 다
양한 친구와 여러 훌륭한 교수님 그리고 조연자 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학부 생활을 하며 생각지 못한 만큼 훌쩍 성장할 수 있었
던 것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닌 덕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이 든다. 어느 것 하나 미리 정해지지 않은 게 인생이다. 지나온 과정
에서 일상의 매 순간마다 소홀히 하지 않았던 나의 노력은 그 자체로
나에게 진정한 용기와 흥미를 북돋아주었고, 끝까지 이 분야에서 학업
을 지속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다.

또한 지금은 대부분 작고하신 교수님들의 너그러운 배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기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대학원 진학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도, 앞이 환하게 보이지 않

아 막막할 때에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준 것은 그분들의 지원과 격려였다.

오래 가려면 누군가와 같이 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내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를 하나 덧붙이자면, 결국 끝까지 가려면 혼자서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인생을 즐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택한 일을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결정한 일을 하다 보면 저절로 즐거워진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했을 땐 기쁨이 두 배가 된다.



제45회 과학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함께 수상한 동료 과학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었다.

**게임을 위한 좋은
무기를 갖추다**

어젯밤 고3인 늦둥이 딸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끝에 딸이 좋아하는 온라인 게임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딸아이는 오랜만에 공부가 아니라 자신이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인 게임 이야기에 몰입해서 즐거워 보였다. 게임에서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다양한 무기들을 갖춰놓아야 하고 또한 늘 새로운 무기를 획득해야 한다고 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 아마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게임의 궁극적 목표인 우승을 위해 매 단계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무기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인생에서도 항상 좋은 무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어쩌면 다들 좋은 무기를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 대학 저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거워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던 것 같다. 그때 나는 지식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경험하며 일에 대한 자신감을 키웠다.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면 가는 길목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느새 인생의 든든한 조언자가 되기도 한다. 대학을 졸업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같이 듣던 동기와 선배님들이,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같이 듣고 이후 대학원에서도 만난 동기와 선배들이 모두 나의 소중한 지인이 되었다. 정말 좋은 분들이다.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진학하였지만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님, 동료 연구진 들과 우정 어

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지질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지니는 융합적 특성 때문인 것 같다.

지질학,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고 나서 지질학
환경지구화학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광물학,
분야에 다가서다 결정학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광
물학은 광물의 생성과 관련된 자연환경 조건
을 연구하고, 자연에서 광물이 만들어지는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배경
으로 무기화학과 재료공학에서 다루는 일반 소재의 기본 물질인 광
물의 결정구조까지 연구하는 폭넓은 분야이다. 나는 이제는 은퇴하
신 지질학과 김수진 교수님의 광물학 연구실에서 수학하며 석사 논
문 연구로 산화망간 광물의 생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합성 물
질이 아닌 자연 산출 망간 광물에 대한 연구로, 강원도 장성 지역 망
간 광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결정학과 환경지구화학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 뉴욕 주립
대 대학원에서 유학할 때 지도 교수님이셨던 R.J. Reeder 교수님의 영
향을 받아 탄산염 광물의 성장과 이에 수반하는 금속 이온들과의 계
면 반응에 대한 연구로 본격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환경지질학 분야
연구가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점이었고, 특히 기본이 되는
물 상호반응과 관련한(mineral-water interface reaction) 광물에 대한 과학
적 관심이 커지던 때였다. 이때 수행한 지구화학적 연구 경험과 관심
이 지금까지 이어져 토양, 지하수와 관련된 화학물질 및 기타 중금속

등 오염 물질의 거동 연구로 계속되고 있다.

2011년 전 세계는 그동안 인간이 무분별하게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 사용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어마어마한 연구비가 한편으로는 이산화탄소를 적게 발생시키는 기술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에 투자되고 있다. 박사과정 논문 주제였던 탄산염 광물의 인공결정 성장과 이산화탄소의 농도, 유입 속도 등 여러 변수에 의한 조절에 대한 연구는 지금은 잠시 나의 연구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연구를 다시 시작할 때 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연구를 다시 해보려고 한다. 새로운 것도 좋지만 내가 경험한 연구 분야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은퇴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이다.

지구 환경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 지질학 중에서도 내가 가장 관심 있게 연구하는 분야는 토양, 지하수의 환경 중 거동에 관한 연구 분야이다. 이 분야는 다양한 요소를 하나로 엮어서 종합적인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진정한 융합 과학이다. 옛날에는 화학 분야의 전유물이었던 화학물질에 의한 오염 문제 등 가장 거대하고 실로 방대한 지구라는 반응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매우 직접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도와준다. 막연하게 환상을 가지고 전공으로 선택했던 지질학, 환경지구화학은 매우 여러 학문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융합 과학으로 늘 나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한다. 융합 과학이 대두되기 전에도 어쩌면 지구환경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융합 과학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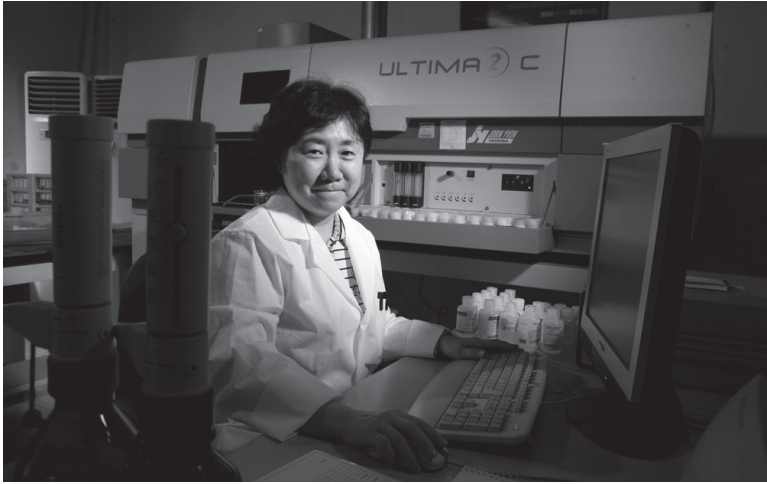
퀴리 부인 그리고

보통 학생이었던 나

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아이들에게 누가 위
대한 과학자냐고 물으면 대부분 남학생은 아
인슈타인을 여학생들은 퀴리 부인을 꼽았다.

그러한 막연한 동경과 선망은 70년대 말 대
학에 들어간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도 큰 영향을 주었다. 아마 내
또래의 많은 여학생은 퀴리 부인 덕분에 이과를 택해 지금까지도 자
연과학 분야에 종사하며 살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과학책이 아닌 국
어책에 나온 퀴리 부인 전기에 매료되어 일찍이 과학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중학교에 진학하며 성적과 관계없이 순전히 호기심으로
과학반에 지원했다. 70년대 중학교의 과학반은 요즘처럼 다양한 실
험을 하지는 못했다. 영재들을 위한 과학반도 아니었고 지원만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학반이었다.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 중
학교 과학반에서 나는 다양한 과학적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연구 기관과 대학에서 심도 있는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내가 재직하고 있는 한국기
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도 'XScience' 라는 청소년 과학 교육 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원이 보유한 첨단 분석 장비
들을 학생들이 체험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과학 수준을 알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의 전공인 환경지질학, 지구화학 분야는 학생들에게
환경 보호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다
양한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가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고 제공하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된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나의 지식을
보통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과학 교육 프로그램으로 더 많이 활용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방출 분광 분석기를 활용하여 환경 시료를 분석하고 있다.

해야 할 필요성도 실감하고 있다.

후배들을 위한 조언

내가 지질학을 배우던 1980년대에는 학부나 대학원에 여학생이 고작 한두 명 있거나 전혀 없던 때였으나 지금은 많은 여성 과학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환경지질학 관련 분야에서는 여성의 예리한 통찰력과 연구 역량이 급변하는 지구 환경과 이를 지키려는 노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현재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에서 여러 여성 과학기술인과



바쁜 일상에서도 때때로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있는 달콤한 시간을 보내곤 한다.

함께 뜻을 모아 여성 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과 권익 옹호, 사회적 공익에 일조하기 위해 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 더불어 과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현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에너지·환경 분야 전문위원을 맡아 정부의 연구 개발과 사업 평가 등에 관한 전문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와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여러 전문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오늘날 여러 전문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여성 과학기술인이 자신을 위해, 국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제까지 자신의 학문적 성취와 과학 발전에 대한 열망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

제부터는 그동안 등한시해왔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눈을 돌려 지구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조화롭게 보존하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비록 낮은 감이 있지만 궤도를 수정하며 달라지고 있는 이 시기에 여성의 전문성과 섬세함, 도전 정신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Choi Soojin

최수진



경희대학교 화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대응제약 연구소에 입사하였다. 그 후 경희대학교 박사과정과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을 마치고 11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하여 연구본부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PD(program director)를 맡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보건료 기술정책심의위원, 미래창조과학부의 기획전문위원,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운영위원 등 바이오 분야의 국가 정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장영실상, 보건산업 우수기술상, 대한화학회 기술진보상, 과기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였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사는 것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올해 초에 이공계 분야 학회에서 사회에 진출할 여대생을 위한 강의를 제안받은 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전문 지식에 근거한 발표는 수차례 해봤지만 여성을 대표해서 여성을 위해 강의해본 적은 없어서 낯설었다. 처음에는 여성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으나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결국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었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솔직한 얘기였다.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고 새로운 기회를 얻거나 역할을 맡을 때마다 나는 연구원으로서, 전문가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일해왔다. 내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진 것은 나의 성향이나 업적이 반영된 결과이지 여성이라는 점과는 상관없었다.

나는 2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길을 걸어온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채 시험을 봐서 연구소에 취직하고, 승진을 통해 팀장을 거쳐 연구본부장(상무)까지 줄기차게 달려왔다.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바이오 분야의 정부 투자 방향을 기획하는 바이오 PD를 맡고 있다. 나는 이 글을 통해 성공

스토리나 나의 일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보잘것없었던 내가 이 자리까지 오면서 겪었던 아픔과 역경을 얘기하려고 한다. 내 이야기가 불모지를 개척해가며 힘들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3無로 시작된 인생,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다는 말이 남 얘기
세상에 알려지다 가 아니었다. 나에게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바이오 PD로서 세계 최고 유전체 연구소와의 미팅을 통해 국가 R&D 전략을 수립하였다.

일어났다. 보수적인 제약회사에서 성공의 기본 조건(약사이면서 박사 학위를 가진 남자)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평범한 연구원이 세상에 알려진 거다. 내가 한 일이 세상에 알려질 만큼 잘한 일인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나를 변하게 만들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이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대략 이랬다.

“4년 전만 해도 사내에서 만년 꼴찌 팀으로 이른바 ‘찬밥’ 신세였던 대웅제약 원료개발팀(현 의약합성연구팀)이 지금은 연구소 내 네 개 팀 중 ‘가장 잘나가는 팀’으로 꼽히게 되었다. 세계 시장 규모 1조 원에 이르는 합성비타민 ‘코큐텐’을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회사의 가치는 열 배나 올라갔다. 30년 동안 그토록 알고 싶어 하던 비밀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1년 반 만에 캐낸 연구원이 있다. 대웅제약의 최수진 박사가 그 주인공이다. 대단한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외국 대학 석·박사 학위나 ‘빡’도 없었던 이십 대 여성 신입사원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제약회사에서 11년 만에 임원이 됐으니 업계가 깜짝 놀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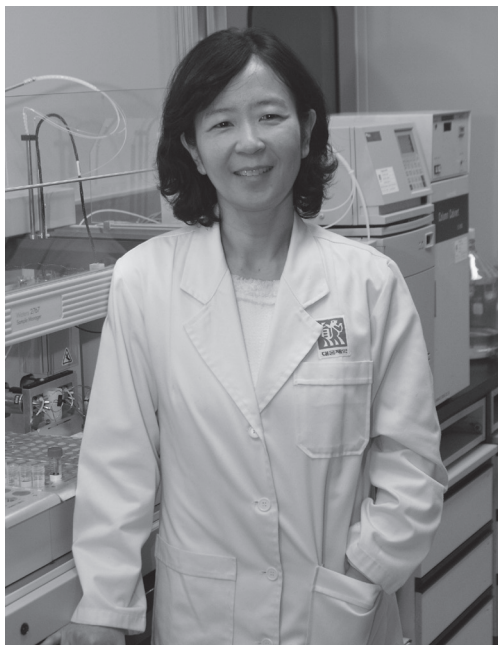
내가 한 일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주위에 나 같은 선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더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내가 아니어도 이 세상에서 누군가는 그 일을 했을 거고 나와 비슷한 길을 걸었을 거다. 항상 최선을 다하며 바쁘게 사는 성격이라 못해도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남을 신경 쓰기보다 내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다. 아마 주위에서 기대하고 간섭하며 관심을 많이 보였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거다. 무모한 도전이라며 비웃고 안



대한화학회 시상식에서 기술진보상 수상을 축하해준 동료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다.

도와주고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나와와의 싸움에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다.

나와 함께 일한 동료들 역시 팀 내 문제아거나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었다. 결국 성공은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집중력과 끈기에 달려 있다고 감히 말하는 이유도 그때의 경험 때문이다. 긍정과 부정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다.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다. 죽기 살기로 하고도 안 되면 포기하겠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그만두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럴 때면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조건이 좋은 남과 비교하며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과거에 내가 겪었던 아픔을 떠올리며 또 하루하루 극복해나갔다.



실험실에서 밤낮을 보냈던
연구원 시절

**아픔을 통해
배운 것**

나에게는 두 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다. 내가 삼수를 하고 있는 동안 내 동생은 나보다 먼저 회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장 생활에 적응하며 재미있게 지내고 있던 내 동생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큰 슬픔으로 1년 동안 외부와 차단한 채 세상을 원망하며 집 안에만 갇혀 살았다. 성격도 소심하고 삼수 생활에 적응도 잘 못했던 터라 더욱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그해 겨울, 입학 시험을 보러 시험장을 향해 걸어가면서 죽을 것처럼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을

잘 견뎌온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 죽을 것 같이 아파도 죽지 않았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 죽을 정도로 열심히 사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살아가며 겪는 모든 어려움은 결국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 난 도전이 두렵지 않았고 실패가 두렵지 않았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면 나와 의 싸움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온다. 이걸 잘 견디며 후회 없이 노력한 뒤에는 이제 내 손을 떠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울 거라고 위로하게 된다. 그러면서 한 걸음 물러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도 하는 것이다. 세상에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복권이냐 확률 게임으로 돈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일은 확률 게임이 아니다.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기회가 온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듯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야 한다. 성공은 결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성공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성공을 통해 세상을 열심히 사는 법을 배운다는 점에서 더 가치가 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은 자신을 바꾸고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도 알려준다.

여성 리더가 아니라 요즘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색깔 있는 리더가 성적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되자 사법고시나 외무고시 심지어 임용고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기준 국내 100대 그룹의 여성 임원 비율은 1.5퍼센트(114명)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이 28퍼센트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다. 아마도 100대 그룹 이하로 내려가면 임원뿐만 아니라 여성 직원의 비율도 더 낮을 것이다.

예전에는 일하는 여성 비율이 낮아서 여성 리더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향후에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기업에서 성장한 나는 여성 채용이 늘어난다고 이에 비례하여 여성 리더가 늘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의 특성이 남성의 문화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 조직의 성과는 학교 성적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다 해도 어느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육아일 것이다. 결혼해서 엄마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나 같은 경우는 늦게 아이를 가지느라 임신할 때부터 순탄치 않았다. 임신 6개월 차부터 양수가 흘렀고 의사는 8개월까지는 버티보라고 하였다. 병원과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며 일과 아이를 지켜내려고 매일 기도하며 안간힘을 썼다. 나의 건강과 아이에 대한 걱정 그리고 회사 업무에 대한 공백기 걱정으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그 당시 회사에 여자 팀장도 없고 육아 휴가 제도도 없던 터라 개인적인 어려움을 솔직히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결국 약착같이 버티며 아홉 달 만에 아이를 낳고 한 달 만에 복귀했다.

아이를 낳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이견 시작에 불과했다. 내가 일을 하려면 또 다른 여성의 희생이 있어야 했고 나

역시 예전처럼 날 새며 맘껏 일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내가 원하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행복이라는 것도 알았다. 집에서 아내가 밥 챙겨주고 아이도 돌봐주는 남자들이 부러웠다. 집안일은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왜 일에 집중을 안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또 남자들은 본인의 아내는 이해하더라도 같은 처지인 여자 동료들을 이해하는 쪽은 생각보다 좁았다. 나 역시 집과 아이 핑계를 대며 일하는 게 싫었다. 여자니까 좀 봐달라는 말 같아서 자존심도 상했고 여자라고 평가절하되는 것도 싫었다. 그러다 보니 일을 더 열심히 해야만 했고 남들보다 잘해야 했다. 그래서 그때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원칙이 생겼다.

먼저 업무를 분류한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할 일이 많아지므로 처리 속도는 더 빨라야 한다. 내가 일하는 순서는 남에게 전달하거나 지시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근무 시간에는 직원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가 할 일은 조용한 시간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나는 집에 가서 밤에 혼자 할 일을 했고 다음 날 다른 사람의 업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다음은 의사 결정을 빠르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난 ‘예스’ 혹은 ‘노’라고 확실하게 대답한다. 어중간하게 결정을 미루는 것은 일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결국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일은 없다. 많은 고민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난처할 때 결정을 미룬다. 분명한 ‘예스’는 새로

운 목표와 추진력을 준다. ‘노’일 경우는 의사 결정을 빠르게 할수록 좋다. 기회비용을 절감하고 인간관계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리더는 올라갈수록 더 분명해져야 한다.

누군가 가장 좋은 상사가 어떤 상사냐고 물은 적이 있다. 난 서슴지 않고 평소에는 일관성 있는 상사, 위기 상황에서는 잔 다르크 같은 상사라고 대답했다. 물론 역량이 뛰어나고 인간성도 좋은 상사를 만나면 좋겠지만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은 없다. 남의 맘은 내 맘과 같지 않고 서로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하 간 불만 요소는 늘 있게 마련이다. 상사가 싫다고 회사를 떠날 수도 없고 부하 직원으로서 어느 정도는 상사에 맞춰야 할 의무도 있다. 이때 상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신뢰성이다. 부하 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예측 가능한 상사이다. 기분에 따라 바뀌는 상사가 있으면 직원은 일을 잘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상사의 감정을 살피는데 에너지를 쏟는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더 주의해야 한다. 남성보다 섬세한 여성의 특성이 때로는 더 감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칼럼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여성 리더는 개인적 차원의 감정을 극복하고 조직 차원의 이성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동병상련의 연민이나 감성보다는 직원에 대한 인정과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공감이라는 말이다.

나는 같은 프로젝트 내에서 남녀를 떠나서 조직원 간에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일어나면 둘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화해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를 바꿔 분리해준다. 조직원 간 마음이 잘 맞아도 난관이 많은데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이다 보면 더 사이도 안 좋아지고 결국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지식보다 조직원의 화합이 중요하다. 직장은 인생의 터전이므로 출근이 즐거워야 한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는 안 되고 상사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된다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사회생활 철학이다.

이렇게 조직원이 힘을 합쳐 열심히 해도 가끔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위기 상황이 온다. 이때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이다. 이를 극복하고 나면 주위 사람을 얻고 스스로도 성숙해진다. 비겁한 사람은 모른 척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선다. 하지만 이걸 리더로서 할 일도 아니고 뒤로 물러선다 한들 모면할 수도 없다. 이럴 바에는 손 들고 나서서 씩씩하게 헤쳐나가는 편이 낫다. 실패하더라도 최소한 손가락질은 받지 않는다.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이걸 깨닫는 데도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다.

정형화된 좋은 리더상이란 없다. 내가 깨달은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은 오히려 그렇지 못한 상사의 모습에서 배웠다. 최소한 난 이런 비겁한 리더가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말이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나를 따르라는 잔 다르크의 무모한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에서 얻은 깨달음이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든 것 같다. 리더의 모습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의사는 환자의 아픔을 잘 치료해야 하듯이 리더는 부하 직원을 잘 이끌어서 성장시켜야 한다. 그 리더의 모습은 성별을 떠나 나만의 색깔로 그려나가야 한다.

**예쁜 공주가 아닌
우아한 무수리가
되자**

사람은 언제가 가장 아름다울까? 물론 이십대가 가장 예쁜 나이이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누구나 늙기 마련이다. 우리는 늙는 것이 두려워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살도 빼고 예쁜 옷도 차려입는다. 그러나 외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나만의 색깔을 지니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직장 생활에서의 남녀 차이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남자가 보기에 여자는 동료를 배려하기보다는 스스로 여자임을 내세우며 굶은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회사에서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남자 상사는 여자보다는 남자 부하 직원을 선호한다. 따지는 게 많아 일 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 나의 선배들은 굶은일 마다 안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더욱 남자처럼 살아왔다고 한다.

점점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양성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방향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다. 서로 다른 특성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여자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굶은일도 안 하고 조직의 일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예쁜 공주가 아닌 우아한 무수리가 되어야 한다. 팀의 일에 먼저 나서고 헌신하면 어느새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주인공이 되어 있다.

난 신입사원 때부터 모두 꺼리는 일에 손 들고 나서는 재주가 있었다. 서로 눈치 보는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내 성격 탓도 있겠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힘들거나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시간을 쪼개서 해야 하는 허드렛일이 대부분이라 이왕 하는 거 봉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인 지상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때로는 동료들에게 도움도 받게 된다. 먼저 양보하고 솔선수범하는 것이 조직에서 신뢰를 쌓는 방법이고 나중에 리더가 되었을 때 조직원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기도 하다. 가끔은 억울하기도 하고 장애물을 만나기도 한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다.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쌓고 또 쌓으면 어느 순간에 강해져 세파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외부 네트워크를 넓히는 방법도 이와 비슷하다. 출세하려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세상은 복잡해서 누구를 어떻게 다시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 남이 나를 잘 되게는 할 수 없어도 망치기는 쉽다는 말이 있다.

난 비교적 많은 사람과 알고 지낸다. 그렇다고 사람 만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 한 번을 만나도 열 번처럼 만나는 것이다. 사람을 만나기 전 잠시 고민을 한다. 오늘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람과 만나기에 좋은 장소는 어딘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지 등.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한다. 내가 배울 게 무엇인지,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되면 좋을지. 진실하게 얘기하고 집중해서 그 시간을 즐긴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 만남부터는 나이지위를 막론하고 훨씬 편해지며 금세 친구가 된다.

사람들은 나보고 붙임성이 좋다거나 친화력이 좋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원래 처음 보는

사람과 눈도 못 마주치며 먼저 얘기도 못하는 부끄러움 많고 소심한 성격이었다. 또 남 앞에 나서는 것도 싫어해서 발표를 앞두면 음식도 못 먹을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반복적인 노력과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했다. 십여 년을 노력하다 보니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여유 있고 편안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사람을 만날 때 줄 수 있는 걸 먼저 생각해야지, 받을 것부터 생각하면 결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줄 수 있는 것도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풍요로운 자가 주는 것이다.

나이가 들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마음의 여유가 있는 여자가 더욱 아름답다. 위로 올라갈수록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역할은 커져가지만, 신입사원 때부터 워낙 치열하게 남자들과 경쟁하며 살아온 덕분인지 이제는 나를 돌아보고 주위를 배려하는 여유가 커져간다. 아마 주위를 배려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여성이 가진 깊고 강한 모성애가 아닐까 싶다.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라는 불혹을 훌쩍 넘었다. 난 요즘 시간을 쪼개서 아이와 여행도 가고, 늙어가는 부모님도 챙기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노력한다. 시간이 많아 봉사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 기부하는 게 아니다. 모든 건 깨달음과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명예나 돈보다는 진실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성공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보다는 주위를 배려하고 포용하며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우아한 여자가 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터널을 지나 빛을 향해 나아가다

전기공학

재료공학

환경공학

5

이수복
/
초보자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로

정선영
/
내 인생의
가장 훌륭한
조언자

정인경
/
선택보다
선택 이후가
더 중요하다

Lee Soobok

이수복

한양대학교에서 전기공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송실대학교에서 전기공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에너지 분야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에 출강하고 있으며 전기기계 종합 설계 및 감리 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국토해양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방부 설계자문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설계자문위원회,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경기도 사전재난영향성 평가자문위원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초보자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로

평범했던 초보 엔지니어

지금 돌아보면 결코 순탄하지 않은 삶이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했던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아직 설레고 즐겁다.

1994년 대학을 졸업하기 전, 펌프를 수입하고 제조하는 회사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당시 내가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그 회사에 입사했다는 얘기를 인사팀에게 들었다. 같이 입사했던 입사 동기 20명 중 유일하게 나만 여자였다. 그렇게 들어간 회사였기에 더욱 자부심도 생기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입사 후 약 3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 이론 및 실무 수업을 받고 매일 테스트도 받았다.

그런데 그 수습 기간 동안에 사내에서 남직원과 여직원 간의 차별이 눈에 띄게 보였다. 남자 입사 동기는 별도의 잡무 없이 실무에 투입되기 위한 업무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반면 유일한 여직원인 나는 커피 심부름, 서류 전달 심부름, 파일 정리 등 잡무에 투입되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그리고 선배들을 보아도 여직원과 남직원 간의 차별로 인해 여직원이 승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중요 업무가 여직원에게 부여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또한 동일한 조

건임에도 불구하고 약 20퍼센트의 연봉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수습 기간 동안 이런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상사에게 이를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사내 규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 대답을 듣고 며칠을 고민했다. 힘들게 입사한 회사인 만큼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열정으로 가득했는데 막상 열심히 일해도 그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자 더 이상 이 회사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판단한 후 수습 기간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그 후 다른 회사를 알아보던 중 잠깐 아르바이트 삼아 일할 생각으로 들어갔던 회사가 있었다.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소규모 전기설비 설계 회사였다. 기계를 전공했던 터라 기계 설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바로 옆 회사인 전기설비 설계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체 근무 인원이 약 2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였다. 당시에는 설계실과 캐드실이 분리되어 있어서 설계실에서는 수작업으로 설계 업무를 수행했고 캐드실에서는 설계실에서 수작업으로 진행한 도면을 캐드를 이용해서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 나는 그 회사에 입사하여 설계실에서 전기설비 설계를 배우면서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소규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설계회사의 경우 처음에 입사했던 회사와 달리 남녀 차별을 느낄 수 없었다. 모두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받았고 일한 만큼 대우받았다. 그리고 무

엇보다 설계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다는 것과 도면에 작성한 내용이 실제 건축물에 시공된다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일 수 없었다.

결국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들어갔던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전기 엔지니어로서의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규모 전기설비 설계회사의 경우 대부분 복지가 열악하다. 또한 전기설비 설계 프로세스의 특성상 건축설계가 마무리되고 그에 따른 기계설비 설계까지 마무리된 시점에서 투입되므로 일하는 데 있어 항상 시간 제약에 시달리며 야근 및 철야를 밥 먹듯이 한다. 나 역시 어떤 달엔 월급보다 야근 및 철야 수당이 더 많았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일하는 게 재미있었다. 기계 전공자인 나로서는 전기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에 대해 공부해가며 알아가는 것이 즐거웠다. 모르는 부분을 회사 선배들에게 묻고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책을 찾아보며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중 1997년 12월 IMF 사태가 벌어지면서 많은 회사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내가 근무하던 회사도 정리하고 단계를 거치면서 내 바로 위 상사들이 줄줄이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 당시 나는 대리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나 상사들이 없는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끌고 나갈 사람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팀장 역할을 대행해야 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우성아파트 1,700세대 전기설비 설계 프로젝트는 내 밑으로 주임과 신입사원을 한 명씩 데리고 단 세 명이 약 보름 동안 철야를 하면서 끝낸, 내가 팀장으로서 처음으로 수행했던 프로젝트였다. 모르는 부분은 선배들에게 전화로 물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직접 찾아가 물어가면서 결국 해

냈다. 도면을 싸들고 납품 완료하고 나오면서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난다. 그 프로젝트로 인해 어떤 일도 안 될 것은 없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 후 1999년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점점 자신감이 쌓여갔다. 하지만 영세한 소규모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니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진정한 엔지니어로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가 어려웠다. 엔지니어링의 대가가 터무니없이 책정되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내가 목소리를 내려면 진정한 엔지니어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고의 엔지니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사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 단계 더 나아가다

건축전기기술사에 대해 알게 된 것은 2000년 이후였다. 안타깝게도 그전까진 그런 자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변에서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 내가 인생의 향로를 결정할 때 제대로 된 멘토가 있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종종 든다. 건축전기기술사에 도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았다. 기계 전공자였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기본 바탕이 약하다는 것이 항상 내 자신에게 아쉬운 점이였다. 이 기회에 석사과정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여 이론적인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2004년 한양대학교 전기공학

과에서 석사과정을 밟기 시작했고 학기 중에 결혼도 하였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다. 너무나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선물인 내 아이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맞긴 한 건지 순간순간 의문이 들었고 아이에게 한없이 미안했다. 2005년부터 시작한 건축전기기술사 공부 때문에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떼어 놓으며 울고불고하는 아이를 뒤로하고 나올 때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할 만큼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 마음이 약해지면 나중에 아이에게 더욱 부끄러운 엄마가 될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참았다.

2006년 말 건축전기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던 시기에 아이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시험을 바로 일주일 앞둔 시점이라 입원 수속 밟고 아이가 검사받던 날 하루를 제외하고는 공부에 매진했다. 분유와 기저귀 등 챙길 것도 많았고 아이가 많이 아파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엄마를 계속 찾았지만 나는 더 독하게 책을 파고들었다. 시댁 식구와 남편,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조차도 나에게 질타를 퍼부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우는 아이를 떼어놓으면서 버텼는데 아이에게 미안해서라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시험이 있었던 날 시험을 마치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아이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가서 그날 밤을 아이와 함께 지새웠고 다행히 며칠 후에 퇴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보았던 건축전기기술사 시험에서 합격했다. 너무나 힘든 시간을 버티며 치열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합격 사실을 알고도 마냥 기쁘기보다는 아이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더 들었다.



아이와 함께한 석사 졸업식

최고 엔지니어에 도전하다

건축전기기술사가 된 후 달라진 점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숲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그동안에도 심각한 클레임이 들어온 적 없었고 오히려 일 처리가 빨라 일 잘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하지만 기술사 자격을 따고 보니 내가 숲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일을 처리하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기술사라는 것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진정한 엔지니어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다. 그 의미를 기술사가 된 후에 어렵פות이 알게 된 것 같다.

기술사가 된 후에는 좀 더 영역을 넓혀 사내에서 프로젝트 기획, 설계 자문, 기술 교육 등의 업무를 하였고, 의정부시청 및 인천도시공사 설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다양한 R&D에도 참여하였다. 건축전기기술사란 수배전설비 및 방재설비, 통신설비 등 수용가 내의 모든 건축 관련 전기설비에 대해 다루는 기술사로 내가 여태 종사했던 건축전기설비 설계 분야를 포괄하는 자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설비 및 통신설비의 경우 건축전기기술사에서 비중이 작았기에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소방기술사 시험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았다. 하지만 업무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했고 2007년 숭실대학교 전기공학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서 또 다른 공부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짬짬이 공부하고 있었다. 그러다 2009년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본격적으로 소방기술사 시험을 준비했고 2011년 5월 최종 합격하였다.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실무가 무엇보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론이 바탕이 되지 않는 실무는 제대로 된 실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혹자는 실무가 겸비되지 않은 기술사가 진정한 기술사인지 의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술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부분의 바탕에는 이론이 있다. 설계업에 종사하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부분은 직원들이 설비 시스템에 대해 왜 그런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다. 기준에 의해 설계가 되면 그것으로 잘된 설계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왜 그렇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기준대로 했으니 제대로 설계한 것이 맞지 않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시간 제약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수여식에서 사회를 보았다.

빠른 일 처리를 위해 그렇게 반복해온 것일 테니 개인만을 탓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진정한 엔지니어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

기술사가 됐다고 해서 진정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더욱 노력해서 다른 이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수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진정한 엔지니어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2013년 8월 나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작은 이벤트가 있었다. 한국기술사회에서 주관한 기술사대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받은 것이다. 물론 나보다 훨씬 기술 발전에 공헌한 기술사 분들이 많

으시지만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라는 의미로 주신 것 같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리고

내 나이 이제 마흔두 살. 적지 않은 나이이지

또 다른 시작

만 그렇다고 많은 나이도 아니다. 이제는 내

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삶의 궤도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면서 더욱 정진

하고자 한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나는 도전을 좋아한다. 목표를 설정한 뒤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을 즐기는 편이다. 그 목표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매력 있다. 나에게 후회 없는 삶이란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는 삶이다. 그 목표가 공부일 수도 일일 수도 가정의 행복일 수도 있다.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매진하다 보면 반드시 보상은 뒤따른다고 본다.

지금 나는 또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 준비기간이 짧을지 길어질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해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살아 있음을 느낀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나는 오늘도 열심히 나아갈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내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것이다.

Jung Sunyoung

정선영

부경대학교 고분자공학과 학사, 재료공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일본 수도대학도쿄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에서 나노자기조립체 구조제어 및 분석으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효성기술원 전략기획팀에서 기술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내 인생의 가장 훌륭한 조언자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점점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줄 일이 많아진다. 나를 인생 선배로서 상사로서 생각하고 내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처음에는 참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어깨가 무겁기도 하였다. 과연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 만큼 성공한 걸까?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하기에 부족하진 않을까? 나는 내가 하는 말에 책임감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엄격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경직된 생각의 틀에 박힌 채로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를 과연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었을지, 거기서 힘을 얻어 갈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요즘은 주로 솔직한 경험담과 느낀 점을 편하게, 오히려 다소 수다스럽게 얘기하고자 한다. 내가 품었던 열정과 의지에 공감할 수 있었으면 하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면 나도 예전에 선배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선배들의 경험담과 생각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해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항상 가까이 있는 그들을 나의 멘토이자 롤모델로 삼았던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지난날의 열정과 노력을 짚어보며 이 글을 읽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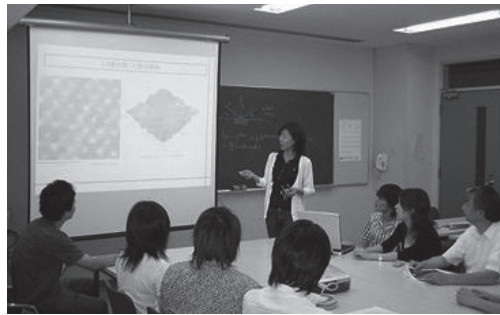
내 인생의 전환점

누구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을 것이다. 이력서에 자신의 인생 전환점에 대해 쓰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그때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많이 고민하며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아 항상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했다. 그리고 무엇이든 이것저것 열심히 하다 보면 웬만큼 성공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대학 생활을 마무리 할 무렵, ‘인생의 홀로서기’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었다. 적당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면 된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때서야 알았다. 그전까지는 부끄럽게도 한 번도 내 인생의 목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인생의 목표라는 물음을 통해 그때 선택한 것은 일본 유학이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한 일본 생활이라 남들보다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일단 스스로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부터가 목표였다. 일본어를 배운 것은 교양 과목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들었던 게 전부였는데 이 과목은 4년 전체 성적의 평점을 떨어뜨린 주범이었다. 하지만 그때 한 일본어 공부와 내가 일본 유학을 선택했을 때의 일본어 공부는 차원이 달랐다. 절실함이 그 차이를 만든 것이다.

책상에 앉아서 여유롭게 일본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에 난 무조건 부딪치기로 했다. 맨 처음 장소는 이토요카도(Ito-Yokado)라는 대형마트. 빨랫비누를 사기 위해 예상 문장을 적은 종이를 들고 지나가는 점원에게 무작정 물었다. 10분이 넘는 설명 끝에 결

국 내가 생각했던 고체 비누가 아닌 가루비누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무척 뿌듯하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 경험을 통해 도전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의 성취감을 맛보았다. 또한 낯선 상황이 두렵기보다 오히려 신이 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지금도 나에게 있어 열정이란 바로 그때의 그 느낌이다. 이후에도 어떤 도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때를 떠올린다.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오로지 절실함만을 가질 수 있도록.



일본 유학 당시 연구실에서 금요일마다 각자 연구 진행 현황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제작한 나노구조의 현미경 사진을 분석하고 공유하며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련은
터널과 같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시련과 보상에도 주기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해진 틀 안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고민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의 믿음이 생겼다.

시련은 동굴이 아닌 터널과 같다. 해답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상황에서는 내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다. 해답이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동굴 속에 갇힌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좌절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지금 가던 길로 묵묵히 나아간다면 결국 터널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곧 환한 빛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해답을 찾기 위해 굳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환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서 가는 방법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터널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터널을 통과했을 때 더 큰 성과와 대가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터널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다. 터널을 얼마나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가는 내가 하기에 달려 있다. 터널 끝에서 만나는 빛은 밖에서 보는 빛보다 훨씬 더 밝게 느껴진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나는 이 얘기를 반드시 해준다. 지금의 고통만큼 나중에 보상받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만일 시련의 시간이 길다면 그만큼 큰 산을 통과하기 위해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니까 참고 견디면 그 크기만큼의 행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열정과
신뢰**

올해로 직장 생활 7년째에 접어들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열정과 신뢰이다. 박사 학위를 따고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당시를 생각하면 도대체 그러한 열정이 다 어디서 나왔나 싶다. 솔직히 바쁜 업무에 지치다 보면 열정이라는 단어에 무감각해지기 쉽다. 설사 무감각해지지 않았더라도 무언가 열정을 끌어낼만한 명확한 동기가 반드시 필요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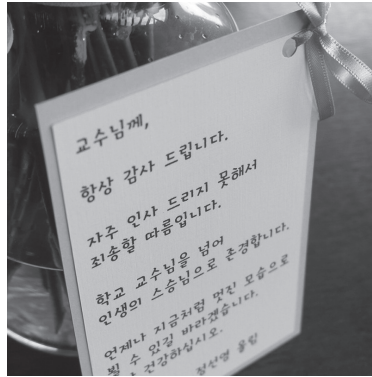
열정은 전염되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사기와 의욕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나는 주위의 가까운 사람 가운데 롤모델이나 멘토를 찾아 그들의 열정에 전염되는 방법을 선호하며, 나의 열정 또한 주변에 퍼지기를 바란다.

신뢰는 조직 생활에 있어서 산소와 같은 것이다. 산소가 없으면 호흡을 할 수 없듯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도 떨어진다. 당연한 소리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감사한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몇 명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 그분들의 근황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내 인생은 나 혼자서만 이루어낸 게 아님을 잊지 말자.

주위에 부모, 스승, 선배, 친구, 형제 등 고마운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살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특정한 날만이라도 진심을 다해 감사를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되도록이면 감사의 글을 직접 써보는 것을 추천한다. 글을 쓰다 보면 내가 힘들었을 때를 떠올리게 되고 그때 나에게 힘이 되어준 말씀과 교훈을 다시금 새기며 명심하게 된다. 나는 이번 달에 대학 교수님 생신을 맞이하여 인사를 드릴까 한다. 항상 “크게 보고 더 넓은 곳으로 나가야만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일본 유학을 적극 권해주셨던 분이다. 교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기며 감사의 편지를 써야겠다.



매년 스승의 날 교수님께 꽃 선물과 메시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
전화 통화로 다시금 격려해주시는 교수님 덕분에 더 힘이 난다.

**살아 움직이는
나무처럼**

어느덧 아이가 둘이나 있는 엄마이자 직장 생활 7년차의 상사가 되었다. 그동안의 나를 되돌아보면 주위 환경과 상황에 따라 참 많이 변해왔던 것 같다. 숫기 없고 새침한 여자 아이에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환경을 즐기는 적극적인 여성 공학인이 되기까지…….

어느 인문학 강의에서 들은 내용이다. 태풍이 와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숲이 온통 흔들리는데 유독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궁금해서 가 보니 바로 죽은 나무였다고 한다. 이처럼 갈수록 주위의 어떠한 변화에도 무덤덤해지는 것 같다. 누구나 안정적인 삶을 바라며 현실에 안주하기 쉽다. 그러다 보니 웬만한 변화나 주변의 문제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게 되고 뭐든 당연시하며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특히 가정생활과 회사 생활, 더욱이 육아까지 하면서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경우 스스로를 돌아켜보고 새로운 변화와 문제에 대응하며 자신을 개발하기가 참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는 나무처럼 외부 자극에 의한 다양한 변화와 문제에 부딪혀야 성장할 수 있다. 지금도 나는 분명 끊임없는 변화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스스로 돌아보며 노력해야 한다. 최근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제 학회 저녁 만찬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각자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 인생의 가장

훌륭한 조언자

훌륭한 조언자나 멘토를 두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결국 내 인생의 가장 훌륭한 조언자는 바로 나 자신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뒤돌아보며 자신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가끔은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누군가에게 소홀하고 있지 않은지, 더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만약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자신을 믿고 스스로에게 조언을 구해보자. 비록 당장 해답을 얻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스스로 더욱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살리라 다짐하며 이 글을 마무리한다.

Jung Ingyung

정인경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대기오염 제어 분야이며 박사 논문 주제는 미생물을 이용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에 관한 연구이다.

경희대학교, 부산대학교에서 연구교수를 하였고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환경·에너지 자원화 분야를 맡고 있다.

선택보다 선택 이후가 더 중요하다

환경공학이

나를 선택하다

책 읽기를 좋아하던 초등학생 시절에 부모님이 사주신 위인전집을 열심히 읽었다. 여러 위인 중에서 특히 여성인 퀴리 부인의 전기가가 가장 재미있었다. 과학자인 퀴리 부인의 삶에 매료되어 나는 과학을 좋아하게 되었다. 고등학교에서 이과를 선택하고 지금까지 공학인의 삶을 살게 된 것도 작게나마 그 영향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딱히 어떤 분야를 공부하겠다는 거나 어떤 직업을 가지겠다는 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대학에서 전공으로 선택한 환경공학은 최첨단 분야로 유망한 산업이 될 것이라고들 했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처음부터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환경공학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나의 성적으로 진학할 수 있는 여러 학과 중 이 전공을 택한 것뿐이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행정 조교를 거쳐 박사과정을 밟게 되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에는 경희대와 부산대에서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

고 논문을 작성하였다. 소신 있는 선택은 아니었지만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전공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세부 전공인 대기오염 제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일하며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에 참여하여 에너지·폐기물 자원화 분야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연구 과제를 수행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과제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환경공학은 종합적인 학문으로 오폐수 처리, 대기오염 제어 및 폐기물 처리 등의 기본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와 융합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산업생태학은 비교적 최근에 발달된 개념으로 먹이사슬로 공생하는 자연생태계의 원리를 산업에 적용한 것이다. 생태산업단지(Eco Industrial Park)는 기업의 생산 활동에 의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자원 및 폐에너지를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다시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산업단지를 말하며 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은 이러한 산업단지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서 전담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 자리까지 온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당장 뚜렷한 꿈이 없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 없다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확실한 꿈과 미래상을 가지고 원하는 학과를 선택하여 진학하고, 졸업 후에는 필요한 경력을 개발하고 일구어나가는 이들을 만날 때면 나 역시 부러워지기도 한다. TV나 책에서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열정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넘치도록 흘러나오지만, 사실 명확한 꿈과 목표를 말하기가 머뭇거려지는 청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 또

한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늘 망설이고 염려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품고 있었다.

나는 석사과정을 마치고 학과에서 행정 조교를 4년간 한 후에 박사과정에 들어갔다. 경제적 여건이나 주위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의 목표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물론 바로 박사과정에 들어가 학위를 빨리 땀으면 어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조교를 하는 동안 조직과 행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때의 경험이 나에게 큰 자산이 되었다.

처음부터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환경공학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나의 성적에 맞추어 우연히 이 전공을 택했다. 그래서인지 학과 공부를 마치고 나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특히 졸업 후 사회 진출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대학원으로 진학할 때에는 혼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환경공학 전공을 살려 오랫동안 연구와 일을 하고 있으며 이 길을 선택한 것에 만족한다. 그동안 무조건 이 길만을 고집한 것은 아니었고 세부 전공을 바꾸거나 학교에서 기업체로 옮겨서 일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겪었는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느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여성 공학인이 되었다.

사람이

진정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겠지만 네

자산이다

트위크 구축을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란다. 무슨 일이든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또한 많은 정

보들을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니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같은 길을 걷어가는 동료나 여성 공학자 선후배들은 때로는 나에게 큰 위안이 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박사과정은 기간도 길고 연구 분량도 많아 문득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같은 상황에 놓인 여성 선후배들과 교류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쌓았다. 이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은 나로서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려고 한다. 주위 사람들과 내실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열심히 구축하고 여성 관련 단체와 조직에도 적극 참여하다 보면 내가 활동하는 데에 든든한 기반이 생기고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여성 공학인의
시대이다**

어떤 일도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 특히 사회에서 하는 일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때 여성의 장점인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으로서의 장점을 알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자신감을 가지자. 앞으로는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이 현대의 산업들을 이끌 것이다. 이에 여러 분야를 동시에 그리고 넓게 융합하고 종합할 수 있는 사고 능력과 자질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여성의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일 것이다.

선택보다

선택 이후가

더 중요하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꿈꾸어왔거나 목표로 했던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이며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선택이고 훌륭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인생과 꿈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 또한 환경공학이라는 전공 안에서 또 다른 다양한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학문은 결국 서로 통한다.

전공을 정하고자 하는 여고생이나 사회에 진출하려는, 또는 대학원 진학을 앞둔 졸업생들의 불안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꿈과 비전이 없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끌리는 것을 선택하라. 그리고 일단 선택하였다면 최선을 다하라. 열심히 하다 보면 사회적 성공뿐만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즐거움과 나만의 성취감이 뒤따라올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여성 엔지니어 9

나는, 공학인이다

1권 1쇄 인쇄 | 2014년 10월 28일

1권 1쇄 발행 | 2014년 11월 4일

지은이 (사)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펴낸이 송영만

디자인 자문 최용립

펴낸곳 효형출판

출판등록 1994년 9월 16일 제406-2003-031호

주소 413-756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25-11(파주출판도시)

전자우편 info@hyohyung.co.kr

홈페이지 www.hyohyung.co.kr

전화 031 955 7600 | 팩스 031 955 7610

© (사)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2014

ISBN 978-89-5872-132-1 03500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효형출판의 허락 없이 옮겨 쓸 수 없습니다.

값 15,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4027790)

‘세상을 바꾸는 여성 엔지니어’ 제9권 『나는, 공학인이다』는 공학을 전공한 선배 여성의 입장에서 다양한 경험과 조언을 후배 여성 공학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령 처음부터 공학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시작하지는 못했거나 첫눈에 반하듯이 전공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노력과 탐구 정신으로 점점 자신만의 분야를 만들어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전문가가 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배들의 생생한 이야기는 진로 선택을 앞두고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수많은 여학생이나 이제 사회에 갓 진출한 여성 공학인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회장 송정희

여성 엔지니어, 세상의 벽을 깨다!

성공한 여성 공학자 19인이 전하는 나를 잃지 않는 인생 설계법

남성 중심의 대한민국 공학계에서 당당히 살아남은 여성들이 있다. 그러나 이 멋진 커리어 우먼들이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길은 마냥 화려하지 않았다. 우아한 자세로 유유히 헤엄치는 백조가 수면 아래에서는 두 발을 쉴 새 없이 바둥대듯이, 눈부시게 빛나는 여성 공학자 19인의 뒤에는 끊임없는 도전과 치열한 노력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다.

일과 가정 중 하나만 선택하기를 강요받는 현실에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꾸준히 경력을 이어온 여성들의 리얼 스토리를 담았다. 불안을 딛고 장애물을 넘어 묵묵히 달려온 이들의 열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오늘도 새로운 꿈을 꾸는 여성 엔지니어들이 후배 공학도들에게 성공의 비결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값 15,000원



9 788958 72132 1

ISBN 978-89-5872-132-1

www.hyohyung.co.kr